

NAKS

회보 18권 1호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7 4

제18대 집행부 사업 공고 및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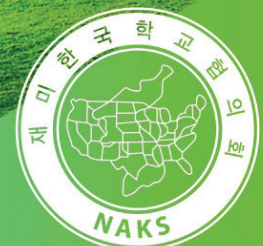
제35회 NAKS 학술대회 안내

NAKS 집행부 사업 보고

14개 지역협의회 소식과 사업 보고

모범학교 소개,
교사와 학생의 글

www.naks.org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 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설립 목적 및 사명	3
인사말씀 / 이승민 회장	4
격려사 / 고은자 이사장	5
축사 /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뉴욕 주재관	6
공고 및 안내 /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7
공고 및 안내 / 협의회 회보, 교육 연구지 제7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10
공고 및 안내 / 제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12
공고 및 안내 / 학교 운영자 초청 워크숍	13
공고 및 안내 / 학술대회 집중연수	15
공고 및 안내 / 제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6
공고 및 안내 / 장기 근속교사 및 개교 20주년 이상 표창 / 역사문화 체험관	17
공고 및 안내 /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 차세대 교사 육성 프로그램	18
공고 및 안내 / NAKS 웹 소개	19
공고 및 안내 /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20
NAKS 사업보고 / NAKS 집행부 사업 보고 [2016. 4. ~ 2017 .3.]	20
NAKS 사업보고 / 제18대 집행부 출범과 NAKS 활동 사진	28
NAKS 사업보고 / 제 21회 SAT II 한국어 Subject Test 모의고사	33
지역협의회 소식 /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남서부, 뉴잉글랜드, 동남부, 동북부, 동중부, 미시간, 북가주, 서북미, 워싱턴, 중남부, 중서부, 콜로라도, 플로리다, 하와이	34
지역협의회 소식 / 모범학교 소개 및 회원교 소개	53
지역협의회 소식 / 교사의 글	67
지역협의회 소식 / 학생의 글 수상작	70
임원 한 마디	79

고맙습니다. / 제18대 임원진

집행부 임원진 Executive Officers

총회장 • 이승민

President Seungmin Lee | president@naks.org

부회장 • 장은영

Vice President Justin Chang | vp-ec@naks.org

부회장 • 오정선미

Vice President Sunmi Jung Oh | vp-so@naks.org

부회장 • 유미순

Vice President Kristie Yoo | vp-ky@naks.org

사무총장 • 황정숙

General Secretary Jane Cho | gs@naks.org

재무 • 김미경

Treasurer Mi Kyung Park | treasurer@naks.org

편집장 • 김윤희

Editor-in-Chief Stephanie Yuni Kim | editor@naks.org

교육간사 • 김선형

Education Affairs Rachael Lee | edu@naks.org

홍보간사 • 윤한나

Public Relations Hanna Yun | pr@naks.org

웹간사 • 지수경

Web Manager Sookyung Ji | web@naks.org

이사장 • 고은자

Board Chairman Eunja Ko | koeunja@gmail.com

지역협의회 회장 Presidents of Regional Chapters

남서부 | Southwest • 임지현

뉴잉글랜드 | New England • 한순용

동남부 | Southeast • 선우인호

동북부 | Northeast • 박종권

동중부 | Mid-Atlantic • 심수목

미시간 | Michigan • 김선미

북가주 | N. California • 한희영

서북미 | Northwest • 이미숙

워싱턴 | Washington D.C. • 한연성

중남부 | Midsouth • 김명숙

중서부 | Midwest • 윤현주

콜로라도 | Colorado • 유미순

플로리다 | Florida • 김진희

하와이 | Hawaii • 손애자

발행일 2017년 4월 15일 | 통권 제18-1

발행인 이승민

편집인 김윤희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인쇄 : Design Do, Inc. 디자인 두 | designdo99@gmail.com

copyright © 2017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All rights reserved.

설립 목적 및 사명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NAKS)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 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 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산하 14개 지역 협의회로는 남서부 지역 (휴스턴), 뉴잉글랜드 지역 (보스턴), 동남부 지역 (애틀랜타), 동북부 지역 (뉴욕), 동중부지역 (필라델피아), 미시간 지역 (디트로이트), 북가주 지역 (샌프란시스코), 서북미 지역 (시애틀), 워싱턴 지역 (D.C.), 중남부 지역 (인디애나폴리스), 중서부 지역 (시카고), 콜로라도 지역 (덴버), 플로리다 지역 (마이애미), 그리고 하와이 지역 (호놀룰루) 등이 있다.

3

1. 교사의 역량과 저변 확대
2. 표준화된 교육과 운영 지침서
3.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10

1. 학술대회
2. 협의회 회보, 한인교육 연구지 발간
3. 지역협의회 활성화 및 차세대교사 육성
4. 집중연수, 운영자 워크숍, 순회연수 및 차세대 교사 연수회
5. SAT II 한국어 Subject Test 모의고사
6. 학생 경시 대회 확대
7. 전문화된 교육위원회 도입
8. 세분화된 운영 지침서 도입 및 협의회 운영 표준화
9. 닉스의 교육용 APP 개발 및 운영
10.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 이승민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 교육을 위해 헌신 하시는 14개 지역 협의회 회장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일선에서 학생들을 대면하시며 수고하시는 회원 학교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교육자의 의미를 꾸준히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헌신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본 협의회는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지향하는 교사와 학교가 모두 자발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교육단체 입니다. 미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을 잊지 말고 연결 고리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한국학교들이 체계적인 맞춤 교육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협의회를 결성하였고 벌써 35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5년동안 협의회 발전과 유익을 위해 힘써 오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협의회 사업이 체계화 되고 향상되었습니다. 연례 학술대회, SAT 한국어 모의고사,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청소년 포럼 등을 개최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차세대 교사 워크숍, 운영자 워크숍 및 집중 연수회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교사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모국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여 왔기에 오늘의 협의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세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협의회 내부의 작은 변화를 통한 외부 환경에 변화를 가져 옴으로 정체성 교육의 이정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올해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도시 애틀랜타에서 8월 10일부터 3일간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이라는 주제로 제35회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과도 연계하여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하는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학급 운영과 수업 교안을 나누는 장으로 거듭나고자 참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안 준비 및 수업 발표 대회를 학술대회 기간 중에 진행합니다.

학술대회를 통하여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이 개별 학교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강의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가한 선생님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모두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 고은자

세계에서 인정받는 한국 교육정책, 더 깊은 소통으로...

미국의 여느 주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공립 및 사립 전문대학이 대규모로 집중되어 있는 애틀랜타에서 그리고...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제35차 NAKS 학술대회가 개최하고 있다는 것에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주 각 지역 한국학교들이 가끔 뜻하지 않은 일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헌신하며 재창출 되어가는 모습에 힘찬 박수를 보내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교육의 모델로 한국 교육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미국인들이 아이를 낳아 부모 곁에서 재우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다는 인식이 점점 높아져 지금은 우리 한국의 본을 떠 부모와 함께 자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연설이 지금도 컷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는 우리의 교육방식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교육열은 한국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이 지금 국내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성과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더 깊은 소통으로, 더 넓은 질적 안목을 키워 가시길 원합니다. 한국어 교육에 애쓰시는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훈훈한 소식이 많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공적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밤낮으로 묵묵히 애써 주신 이승민 총회장님과 집행부, 지역협의회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각 단체 기관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미동포재단
뉴욕주재관 · 김채영

한민족 DNA를 자랑스러워 해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반갑습니다.

재미한국학교의 회보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회보 발간에 애쓰신 집행부와 회원교 선생님들의 노고에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제 미국에서의 한국학교는 코리안 어메리칸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한미 양국 문화의 충돌 상황을 극복하는 돌파구이자, 가정과 학교사이의 완충지대로서 자리매김하여, 동포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단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학교는 교습법이나 교육내용에 있어서 좀 더 강도 높은 전문성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1,000여개의 학교와 함께 하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역의 역할에도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한민족 정체성을 보유하고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을 비롯하여, 정규학교가 아닌 민간 기반으로 설립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특성 탓에, 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재교육이 더욱 절실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한 글로벌 한인 청소년 모국연수, 차세대 포럼 등 교류사업, 조사연구사업 등, 재외동포와 모국을 연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 환경에서 모범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비롯한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롤 모델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한글학교의 위상, 동포사회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모습, 각 한인학교와 동포단체와 유대관계를 맺고 협업해 나가는 모습과 방법,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내 핏줄 속의 한민족 DNA를 자랑스러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되길 바라며, 지역협의회와 각 한글학교와 함께 성장하고 건승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 뉴욕 주재관 김채영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등록 안내

◆ 학술대회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 교육날짜: 2017년 8월 10일 (목) – 12일 (토)

장소: 애틀랜타 메리어트 호텔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nue NE, Atlanta, GA 30303 (☎ 404.521.0000)



〈사진 – 2016 학술대회 (Denver, Colorado)〉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도시 애틀랜타에서 개최됩니다.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어는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강의 및 시연 등을 준비해서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로 돌아가서 가르치실 때,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조 강사로 강경화 UN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을 초빙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2세, 3세들이 글로벌 리더로 잘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며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애틀랜타 지역에서 열리는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국내외의 많은 선생님께서 참여하셔서 유익한 교육정보를 서로 나누시기 바라며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 학술대회 등록 및 숙박 등록 방법: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 (www.naks.org) 에 계정이 없는 분은 회원 등록하여 먼저 본인 계정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누리집의 “웹 이용 안내” 참조)

② 반드시 본인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학술대회 등록을 완료하시고,

③ 학술대회 등록자는 호텔에 숙박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신용카드와 Paypal로 지불 가능합니다.

호텔에 관한 문의는 유미순 NAKS 부회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vp-ky@naks.org)

회원들의 학술대회 등록비 및 호텔 비용입니다. (8월 10일 ~ 12일: 3박)

1인 1실: \$166.24 (\$139 + 세금 +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2인 1실: \$83.12 (\$69.50 + 세금 +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할인 등록비 (회원)	숙박비		총액 (등록비+3박 숙박료)
		참가자 1박 호텔비	참가자 호텔비 (3박)	
1인 1실	\$100.00	\$166.24	\$498.72	\$598.72
2인 1실	\$100.00	\$83.12	\$249.36	\$349.36

I 공고 및 안내 I

- 비회원들의 학술대회 기간 중의 비용입니다. (8월 10일 ~ 12일: 3박)

	할인 등록비 (비회원)	숙박비		총액 (등록비+3박 숙박료)
		참가자 1박 호텔비	참가자 경비 (3박)	
1인 1실	\$150.00	\$166.24	\$498.72	\$648.72
2인 1실	\$150.00	\$83.12	\$249.36	\$399.36

- ① 회원은 NAKS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의 교사를 뜻합니다.
- ② 학술대회에 동행하는 가족도 개인당 등록비 (\$100.00 또는 \$150.00)와 함께 등록을 하셔야 숙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③ 2인 1실을 원하실 경우, 가능하면 등록을 일찍 하시기 바랍니다.
- ④ 2인 1실을 원하시는데 룸 메이트가 없으신 분은 먼저 각 지역협의회에 문의하셔서 룸메이트를 지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⑤ 등록 마감 이후에는 호텔 방이 신청하신 분의 희망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등록 일정 및 마감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등록을 받으며 5월 31까지는 \$20.00 할인된 등록비가 적용됩니다.

(회원 기준 \$100.00/ 비회원 기준 \$150.00), 6월 1일부터는 정상 등록비가 적용됩니다. (회원 기준 \$120.00/ 비회원 기준 \$170.00)

그리고 6월 25일에 등록 마감하며, 그 후에는 더 이상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 ① 등록에 관한 모든 문의: 장은영 NAKS 부회장 (vp-ec@naks.org)

다. 주요 프로그램

- ① 수: 집중연수, 운영자 워크숍
 - ② 목: 집중연수, 역사 강의, SAT 한국어, 강사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시간
 - ③ 금: 개회식, 포상, 주제 강연, 점심 (초청자), 분반 강의, 만찬, 근속교사 표창, 백범일지 대회 시상식, 정주영 에세이 시상식, 한국역사문화체험관
 - ④ 토: 전체 강연, 점심 (강사), 분반 강의, 만찬, 36회 학술대회 소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선별 학생 발표, 지역협의회 장기자랑, 한국역사문화체험관
- 금요일 점심은 초청자와 함께, 토요일 점심은 초청 강사와 함께 호텔에서 식사를 모두 함께 합니다.
- 토요일 만찬 후에 지역협의회 장기자랑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모든 협의회에서 5~7분 정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시간	세부 내용
8월 10일 (목)	13:30-19:00	▪ 특강 (한국문화, 역사, SAT 한국어) ▪ 만남의 시간 (함께 모여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 프리 오프닝을 합니다. 이때 공연도 가능합니다.) ▪ 한국문화 체험관 개관 선포
8월 11일 (금)	8:30 ~ 21:00	▪ 학술대회 개회식 ○ 축하 ○ 표창장 수여 ○ 전체 사진 촬영 ○ 기조강연 ▪ NAKS 초청 VIP 오찬 (손님 및 강사) ▪ 오후 분반 강의 ▪ 근속 교사 표창 ▪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시상식 ▪ 금요일 만찬
8월 12일 (토)	9:00 ~ 21:00	▪ 오전 및 오후 강의 ▪ 총회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지역협의회 장기자랑 ▪ 폐회식
8월 13일 (일)		▪ 귀국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라. 교통

- ① 공항은 하츠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 (ATL) 입니다
- ② 자동차 이용시 호텔 주차비는 하루 35불입니다.
- ③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교통편은 전철이나 우버를 이용하시 면 됩니다.

마. 관광

- ① 관광은 여행을 통해서 학술대회 전후로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 강사 추천 및 강의록 발송 안내

- ① 강사 추천에 관한 공문은 따로 발송합니다.
- ② **추천 마감일: 2017년 3월 10일**
- ③ 준비 서류: 추천서 (강의 요약 포함: 200-300자 내외)
- ④ 강사도 학술대회 등록은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⑤ 담당자: 오정선미 NAKS 부회장 (vp-so@naks.org)

사. 개교 20주년 이상 한국/한글학교 및 장기 근속 교사 표창 추천

본 협의회에서는 개교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이상 된

한국학교 및 10년, 15년, 20년, 25년 그리고 30년 이상 한국 학교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을 표창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해당 학교 및 교사분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수상이 없으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해에 상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① **추천 마감일: 2017년 5월 31일 (수)까지 (마감 후 추천자는 제외됨)**
- ② 위원회의 심사 과정을 거쳐 상패를 준비해야 하므로 마감일을 꼭 지켜주십시오.
- ③ 지역 협의회 회장님이 꼭 확인 서명하고 종합하여 보내주십시오. (개별 접수는 받지 않음.)
- ④ 보내실 곳: 장은영 NAKS 부회장 (vp-ec@naks.org)

아. 한국역사문화 체험관

학술대회 기간 중 한국어,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관련 서적 및 computer software 등의 전시 및 판매를 대회 장소에서 하실 경우 판매 부스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 부스 사용료를 본 협의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① 사용료: 테이블(3x6)당 \$500.00 (회원 학교 및 단체), \$1,000.00 (비회원)
- ② 판매 신청 및 문의: 유미순 NAKS 부회장(vp-ky@naks.org)
- ③ 신청 마감: 2017년 5월 31일 (수)
- ④ 결과 통보: 2017년 6월 15일 (목)

자. 학술대회 강의록 광고 신청

학술대회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책자에 게재할 광고를 모집합니다. 학교나 사업체 및 기타 원하시는 광고를 신청해 주시면 학술대회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광고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① 학술대회 프로그램 안내 책자는 1,000부 이상 인쇄되어 미국과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 배포되는 책자로 광고 효과가 큼니다.
- ② 광고 비용: Full size Color \$3,000, Full size 흑백 \$1,000, 1/2 size: \$500.00 (표지 또는 페이지 순서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③ 마감: 2017년 5월 31일 (수)
- ④ 결과통보: 2016년 6월 15일 (목)
- ⑤ 광고 신청 및 문의: 윤한나 NAKS 홍보 (pr@naks.org)

차. 기타 주의 사항

- ① 학술대회 참가 신청 및 호텔 예약서, 장기근속교사 및 20년 이상 한국학교 추천, 광고 게재 신청은 반드시 마감일을 지켜 주십시오.
- ② 참가 교사 숫자가 확보되면 마감을 일찍할 수도 있습니다.
- ③ 등록 취소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해주시고, 5월 31일 이전에 취소하시는 경우 등록비의 90%를 환불해 드리고, 6월 1일부터는 80% 만 환불해 드리며 7월 1일부터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환불 방법은 협의회 수표를 등록된 주소로 발송해 드리며 취소 일로부터 8주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 ④ 성명과 기타 기입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기입해 주십시오. 기입하는 내용 그대로 명찰과 수료증에 반영됩니다.
- ⑤ 호텔 예약 취소는 호텔을 통해 직접 하셔야 합니다.
- ⑥ 학술대회 등의 행사에서의 모든 문서와 사진과 동영상에 관 한 권리는 NAKS에 있습니다.

카. 기타 문의

학술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는 오정선미 NAKS 부회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vp-so@naks.org ; 전화: 267-255-4653

2017년 한인교육연구 및 2018년 회보 발행

2017년 한인교육연구지: 제32호

발간예정 시기: 2017년 8월 10일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집필진 섭외 및 원고 수집 및 편집: 원고청탁 협조 요망

청탁 추천자의 미니프로필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편집부에 보내주시면 집행부와 의논 후 청탁편지 발송함.

2018년 NAKS 회보: 제18권 2호

발간예정 시기: 2018년 4월 (상세한 내용과 진행과정 등은 추후 공지할 것임.)

《 지역회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

2017년 제7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1. 행사목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재단》과 공동 주최로 거례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거례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는 한국계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며,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2. 주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재단

3. 독후감 선정도서

초등부 - 『나라의 큰 별, 백범 김구』

중고등부 - 『김구』

4. 대상

가) NAKS 14 개 지역 협의회 소속 한국

한글학교에 재학중인 4-12학년 재학생

나) 초등부 (4~6 학년) / 중고등부 (7~12 학년)

※ 제외 대상

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했던 학생

나) 예년 대회의 백범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5. 응모방법

가)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신청서 제출

나) 신청서 동시에 보낼 곳

김구재단 김정은과장 : kkf@kimkoo.org / NAKS 실무 담당자: 김선형 교육간사 : edu@naks.org

다) 신청서 제출마감: 2017년 2월 7일 (화)

라) 도서: 김구재단은 도서 『김구』를 신청 학생들에게 무상 증정하며, 한국/한글학교 단위로 2017년 2월 10일까지 우송한다.
(단, 학교에서 신청한 부수에 준한다.)

마) 독후감 제출 마감: 2017년 4월 18일 (화)까지 응모작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보낼 곳: 김선형 교육간사와 김정은과장에게 동시에 제출한다.

바) 심사 / 수상자 선정 및 당선통보: 2017년 5월 12일 (금)까지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담당학교 선생님께 통보

사) 원고분량: Letter 사이즈 2-3매 (글씨체: 바탕 혹은 굴림 / 글자 사이즈 11)

아) 원고제목: 도서를 읽은 후 느낌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제목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자) 독후감 제출: 반드시 PDF파일로 작성하여 e-mail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6. 수상내역

가) 수상자 전원 시상식 참석 경비지원 (수상자 특전참조)

나) 장학금 지급

다) 수상자 배출 학교 별 인센티브 시상내역

- 수상자 배출 학교 전체: 각 학교당 필요 교육 도서기증 (US \$200 상당)
- 교육 도서는 김구재단에서 선정, 학교에서 선택
- 각 학교는 도서 수령 후, 수령 사진 및 수령 동영상을 김구재단 담당자에게 제출

상명	구분	인원	시상금(1인 기준)	
			장학금	비고
백범상	초등부/ 중,고등부 통합	1명	\$ 500×1명	상패, 장학금
백범통일상	초등부	6명	\$ 100×6명	상패, 장학금
백범평화상	중,고등부	6명	\$ 100×6명	상패, 장학금
합계		총13명	총 \$1,700	

라) 수상자 특전

수상자	항공권	숙박	식사	강의
13명	수상자에게 지급내역을 개별 통지함 (NAKS 규정에 따름)	2인1실 1박 (시상식당일, 호텔비의2인1일중 반액)	● 시상 당일 점심 식사(도시락) ● 시상식 저녁 만찬	역사문화 리더쉽 캠프 개최예정

7.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 김구재단 심사위원회

나) 심사 기준

- ①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②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③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한 독후감은 심사에서 제외
- ④ 학생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 심사
- ⑤ 지도 교사나 부모님의 과도한 개입이 느껴질 경우 감점 처리
- ⑥ 자연스런 한국어 어법의 운용을 중시하여 심사
- ⑦ 응모 학생의 연령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선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중시하여 심사

⑧ 주제는 자유롭게 선택하되, 도서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⑨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판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⑩ 당선 순위에 든 학생들에게 한국어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가 있을 수도 있음.

⑪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소감문과 수상소감 동영상을 김구재단 담당자와 NAKS 담당자에게 제출

8. 시상식

가)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장 (추후 통보)

나) 시상식 참석 :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제 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1. 목적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는 창조적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 자동차, 중공업 등 현대그룹을 창설하여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이끌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획을 그은 정주영 회장의 업적을 기리는 동시에 미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도전 정신을 길러주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아래와 같이 제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을 실시하오니 재미한국학교 교협의회 산하 한국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참여 대상

- 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4-12학년 학생
- ② 초등부(4-6학년)과 중고등부 (7-12학년)으로 나누어 심사 (학년은 미국 정규학교 학년 기준)
- ③ 한국에서 2년 이상 초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은 제외
- ④ 제2회 공모전 대상 및 금상 수상자는 참가는 가능하나 제3회 수상에서는 제외

3. 신청서 작성 요령

- ①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org)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난에서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신청
 - A. NAKS 홈페이지 왼쪽에 공지된 제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을 클릭 <https://www.naks.org/jml/essay-contest>
 - B. 또는 NAKS 홈페이지=>Activities => 독서감상문/글쓰기 대회 => 제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으로 들어

가서 참가 신청

- ② 온라인 신청 기간: 2017년 1월 15일 ~ 2017년 3월 31일
- ③ 신청 마감일: 2017년 3월 31일 밤 12시 (동부시간 기준)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생들은 2017년 6월 15일까지 양식에 맞게 작성된 에세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응모 작품 제출

- A. 응모 작품 제출 마감: 2017년 6월 15일 밤 12시 (동부시간 기준)
- B. 한국(한글)학교에서 일괄하여 이메일로 제출
- C. 원고 분량: Letter 사이즈 2-3페이지, Single Space Font Size 11
- D. 꼭 응모작 양식서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 E. 응모작은 워드 파일로 작성해서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 F. 응모 작품 보내실 곳: NAKS 김윤희 편집장 (editor@naks.org)

- ⑤ 참고 도서: 비룡소 출판 새싹 인물전<정주영>편과 영문 번역본을 무료 증정하며 이 도서를 기본 교재로 하되 기타 정주영 관련 출판물 혹은 웹 자료를 참고할 수 있음.

- ⑥ 참고 도서 신청 문의: 관련 도서가 필요한 학교는 NAKS가 아닌 정주영 기념 미주재단측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필요한 수량의 도서를 수령 하시기 바람. 연락처: jychungmemorial@gmail.com

- ⑦ 심사 및 수상작 발표: 2017년 6월 30일까지 NAKS 홈페이지 및 각 학교 담당 교사에게 통보

4. 시상 내역 및 상금 (모든 입상자에게 상패와 장학금 수여)

5. 특전

- ① 대상 수상자에게는 시상식 초청 항공권과 1박 2일 체재비 일체를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에서 제공 (학부모가 함께 참석 시, 학부모 1인의 항공료를 재단에서 제공)
- ② 금상 이하 수상자는 상금과 상장을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
- ③ 모든 입상작은 단행본으로 엮어 NAKS 산하 각 한국학교에 배부할 예정

상명	상금(장학금)	구분	인원
대상	1,000불	중고등부	1명
금상	500불	초등부	1명
		중고등부	1명
은상	400불	초등부	2명
		중고등부	2명
동상	300불	초등부	2명
		중고등부	2명
장려상	200불	초등부	3명
		중고등부	7명
합계	6,800불		총 21명

6. 심사 및 당선작 선정

- ① 심사위원은 NAKS에서 선정한 약간 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 ② 심사 과정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절차는 NAKS에서 주관
- ③ 입상 작품에서 표절, 지도교사 혹은 부모님의 지나친 협조나 개입이 발견되는 즉시 무효 처리
- ④ 출품된 에세이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품의 모든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
- ⑤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 소감문과 수상 소감 동영상을 정주영 기념 미주재단 담당자와 NAKS 담당자에게 제출
- ⑥ 심사 및 당선자 선정 방법
 - A.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B.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C.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하거나 맞추지 못한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 D. 학생 자신의 생각과 노력을 기초로 작성하였는지 심사
 - E. 자연스러운 한국어 어법의 운용을 중시하여 심사

- F. 응모 학생의 나이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선한 창의력과 표현력을 중시하여 심사
- G. 에세이 제목과 내용은 자유롭게 정하되 정주영 회장이 이룩한 경제적 성과와 불굴의 도전 정신을 잘 표현한 글
- H. 당선 순위에 든 학생들을 상대로 담당자가 무작위로 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확인하는 전화 인터뷰를 할 수도 있음.

7. 시상식

- ① 일시: 2017년 8월 10~12일 (정확한 일시는 추후 알림)
- ② 장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장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nue NE, Atlanta, GA 30303 404.521.0000)

8. 주관 및 후원

- ① 주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 ② 후원: 정주영 기념 미주 재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7년 한국학교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를 위한 운영자 초청 워크숍 안내

일시: 2016년 8월 9일 (수, 8:30am~9:00pm) ~ 10일 (목, 9:00am ~ 11:30pm)

장소: 애틀랜타 메리어트 호텔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 NE, Atlanta, GA 30303

1. 추진 배경 및 목적

미국의 주말 한국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은 현지에 맞는 교육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은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운다. 그러므로 역사교육 또한 쉬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역사를 깊이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이민 1세대가 이민 2세대에게 전하는 한국의 역사, 문화, 언어뿐 아니라 이민 2세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운영자 모임을 통해 차세대를 어떻게 양성하여 이들이 다음 세대의 교육을 어떻게 책임질지 함께 고민하고 발전적인 안을 수립해 보고자 한다. (온라인 등록)

2. 사업 내용

- 일시: 2017년 8월 9일 (수) 오전 9시 ~ 10일 (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 참가대상 및 정원: NAKS 회원학교 운영자 (교장 또는 교감)로서 학술대회 신청자에 한함. 총 인원 50명.
- 등록비: \$50
- 특전: 1) 참가자 전원에게 수료증 발급 2) 식사 2회 무료 제공 (수, 목 점심)
- 등록: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웹 사이트 (naks.org)를 통해 온

라인 등록

- 숙박: 학술대회 숙박과 동일
(룸메이트 필요 시 web@naks.org 로 문의)
- 등록 신청 및 마감: 2017년 3월 1일 (수) ~ 5월 31일 (수)
- 학교 운영사례 제출: 2017년 5월 31일 (수)까지 참가자 전원 web@naks.org 로 제출 요망
(운영사례의 경우 3월 중으로 운영사례 작성 워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 지수경 NAKS 웹간사
(web@naks.org / 703-653-4265)

3. 등록 비용 및 결제

- 학교 운영자 워크숍등록비는 \$50입니다.
(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해 NAKS 회비를 납부한 회원교의 운영자만 등록 가능합니다.)
- 등록하실 때 학교 운영자 워크숍 기간 동안의 2일간 호텔 숙박도 날짜별로 방 종류별로 선택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호텔 숙박 선택에 따라 최종 등록 비용이 정해집니다.
- 등록비 결제는 Credit Card로 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service로 결제하나 PayPal 계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ay] 버튼은 중복으로 결제되지 않도록 한 번만 누르시고 응답이 느려도 기다리십시오.
PayPal 웹에서 결제를 마칠 때 나오는 [NAKS 웹으로 돌아가

I 공고 및 안내 I

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등록 과정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Offline Payment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1주일 내로 개인 수표를 발송해 주십시오. 수표 발송이 늦어지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Payable to NAKS / **부치실 주소**
Mi Kyung Park, 105 Darby Gale Dr. Cary, NC 27518
- 등록 영수증은 행사장 등록 시에 필요할 수 있으니 프린트 혹은 PDF 파일로 가져오십시오.

4. 등록 취소 및 환불

- 등록 취소는 본 웹사이트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하신 행사를 열어서 [Cancel Registration] 버튼으로 취소하십시오.
- 5월 31일까지 취소하시는 경우에는 등록비의 90%를 환불해드리고, 6월 1일부터는 80%만 환불해드리며, 7월 1일부터는 취소할 수 없으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학술대회 등록 취소 및 환불 규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 취소되지 않은 등록비를 다른 사람의 등록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환불 방법은 협의회 수표를 등록된 주소로 발송해 드립니다.

5. 호텔 예약

- 학교 운영자 워크숍 기간 (2일) 동안의 호텔 숙박도 등록 시에 같이 신청하시면 NAKS 측이 호텔 방을 마련해 드립니다.

(2인 1실용 방을 원하지만 같이 투숙할 다른 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하십시오.)

- 워크숍이 8월 9일 (수)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되므로 출발지에 따라 행사 전날인 8월 8일 (화) 숙박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호텔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운영자 워크숍 등록 시에 호텔 숙박을 신청하지 않으시고 호텔에 직접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 호텔 예약은 6월 30일까지, 할인 대상 숙박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입니다.
(숙박료는 2인 1실용 방과 독방이 조금 다릅니다.)
- 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해 호텔 숙박비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호텔예약은 학술대회 등록 후 이메일로 호텔 예약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룸메이트가 필요 없으신 경우 직접 호텔 예약하시면 됩니다.
- 호텔 예약이 늦으면 방 배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일찍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사항

-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교통편은 전철 또는 우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용 운전 시 호텔 주차장 주차료는 하루에 35불입니다.
- 항공권을 미리 구입하셔서 항공료를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 일정표

*강의 시간은 전체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일시 및 강의	집중 강의	강사
8/9 (수요일) 운영자를위한 강연과 활동	개회식 9:00~9:30	개회식
	강의1 9:30~10:30	초청 주제 강연 1
	강의2 10:45~12:00	역사 교육의 실재와 차세대 양성 사례발표 I
	점심 12:00~1:00	점심식사
	강의3 1:00~2:30	초청 주제 강연
	강의4 2:45~4:00	역사 교육의 실재와 차세대 양성 사례발표 II
	강의5 4:15~6:15	내가 교육하고 싶은 역사교육안과 차세대 양성안
	저녁 6:15~7:30	저녁식사
8/10 (목요일)	강의6 7:30~8:45	운영자가 직접 만들어 보는 서식집 (NAKS 표준서식집)
	강의7 9:00~10:15	운영자가 직접 만들어 보는 서식집 (NAKS 표준서식집) 발표
	수료식 10:25~11:30	수료식 및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를 위해 우리가 할 일 발표
	점심 11:40~	기념 사진 촬영 및 점심 식사

2017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어 교사 집중연수회

일시: 2017년 8월 9일 (수) 오전 8시 30분 ~ 오후 7시 30분 10일 (목) 오전 9시 ~ 오후 5시

장소: 애틀랜타 메리어트 호텔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nue NE, Atlanta, GA 30303 (☎ 404.521.0000)

1. 목적: 앞서가는 현대 한국어 교수이론과 한국어의 다양한 학습활동 학습과 교수법 등 유익한 강의로 실제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2. 주제: 한국어 읽기 • 쓰기 교수법

3. 등록 방법: 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 중 선택하여 등록한다. 기초 과목은 해당 연수회의 주제와 상관 없이 다양한 내용의 교수법을 공부할 수 있는 단계이며, 심화과목은 NAKS 집중연수회 이수를 한 교사로 해당연도의 주제와 관련한 강의이다.
협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함. (www.naks.org)

4. 신청 자격: NAKS 회원교 교사

5. 등록비: \$50 (5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

6. 모집 정원: 총 50명

7. 집중연수기간 중 식사: 개인부담

8. 숙박: 2인 1실: \$83.12 Tax포함 / day
- 호텔에 직접전화 혹은 협의회 웹사이트 를통해 등록함

9. 후원: 국립국어원, 이중언어학회

10. 문의: 장은영 부회장(vp-ec@naks.org),
김윤희 편집장

11. 수업일정표: 공통 과목/기초 과목/심화 과목 으로 교육 경력 및 수준에 따라 분반 운영하며 공통 과목은 한국어 교원이라면 알아야 할 어문 규정 등과 관련한 강의, 아동 대상 교수법 등이다.

일시	주요내용		강사(안)	
[8월 9일(수)]				
08:30-09:00	개회식			
09:00-10:15	(공통1) 읽기 교수법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10:30-11:45	(기초1) 한국어발음 교수법	(심화1) 작문교수법	권성미 (부경대/보스턴대)	박석준 (배재대)
11:45-13:00	점심			
13:00-14:30	(기초2) 한국어 문법 교수법	(심화2) 신문기사를 통한 읽기 교육	홍윤기 (경희대)	진정란 (사이버한국외대)
14:45-16:15	(기초3) 한국어 문화 교수법	(심화3) 문학을 통한 읽기 교육	박석준 (배재대)	홍윤기 (경희대)
16:30-18:00	그룹별 모임		참가자 전원	
18:00-19:30	저녁 식사 및 간담회		교수님과 함께	
[8월 10일(목)]				
09:00-11:30	그룹별 주제 발표 및 교사 시연		참가자 전원	
11:30-12:15	집중 연수 수료식		모두 함께	
12:15-13:15	점심		다같이	
13:15-14:15	(공통1) 한국어 바로 쓰기: 한국어 어문 규범		정호성(국립국어원)	
14:30-15:30	(공통2) 아동 대상 한국어 교수법		권성미 (부경대/보스턴대)	
15:45-17:00	(공통3) 재외 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특강		강사희 (AATK)	

[2017년] 제 13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일시: 2017년 8월12일 (토)

장소: 아틀랜타 메리어트 호텔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 NE, Atlanta, GA 30303

1. 추진배경 및 목적

우리 2세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자신들의 소중한 꿈을 발표하며 미래를 펼쳐 볼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목표로 2005년에 시작한 이 대회가 벌써 13회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 2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우리 학생들이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바로 알고 Korean American으로서의 자기의 꿈은 무엇이며, 그 꿈을 하얀 도화지 위에 멋있게 채색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싶습니다. 이 대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이루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 본선 대회 참가 최종 6명 선정과 혜택

- 1) 각 협의회에서 치러진 나의 꿈 말하기 대회의 우승자 중에서 영상 결선을 통해서 최종 6명이 본선 무대에서 경합을 합니다.
해당 협의회에서는 참가자 신청서를 5월 14일 (일)까지 윤한나 홍보 간사 (pr@naks.org)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 각 지역협의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우승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상과 주미한국대사관 대사상을 학술대회장에서 지역협의회 회장님께 전달합니다.
- 3) 동영상 심사를 통한 최종 6명 (개최지 지역 자동 참석)은 지역협의회 회장님들이 철저한 심사를 하여 선발합니다.
- 4) 본 무대에서 경합을 통해 수상자에게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홍보 대사를 위촉하며, 본 무대 참석 학생에게는 학술대회 호텔 2인 1실 2박권을 제 공합니다. 또한, 한국역사문화캠프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타 항공 교통편은 소속 지역협의회에서 제공합니다.

3. 참가 자격 및 심사 기준 안내

• 참가대상 및 자격

- 1) 199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으로서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협의회소속 학교 학생 (*예외: 미국에서 탄생한 학생으로 부득이한 이유로 새 거주지에 이사하게 된 경우, 거주 협의회에서 3년 미만으로 살아도 참가자 격이 됩니다.)
- 2) 현재 지역협의회 산하 한국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3) 한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1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지난 대회 대상 수상자는 참가 불가합니다.

• 심사 기준

1) 원고 내용 (50%)

나의꿈 말하기 대회의 내용은 순수성, 건전성, 솔직성, 창의성을 중시 합니다. 추상적인 내용보다 생활 경험이 담긴 내용으로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 감동을 주는 내용, 세련된 내용보다 순수한 학생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제가 명확한가? 주제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무리가 없는가? 주제의 전개가 설득력이 있는가? 문장과 어휘가 연령이

나 내용에 비해 적절한가? 꿈의 내용이 창의적인가?

순수성, 꿈의 내용이 학생의 수준에서 억지성이 없고, 순수하고, 자연스러운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봅니다.

2) 발표 태도 (30%)

자연스러운 태도, 내용의 이해도, 자신감,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등을 봅니다.

‘태도가 자연스럽고, 자신감이 있는가? 몸동작이나 목소리의 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발음과 억양이 정확하고 적절한가?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하면서 발표하는가? 잘 외어서 막히지 않고 하는가?’ 등을 봅니다

3) 감동 (20%)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감동을 주는가를 봅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원고와 발표를 통해 청중들을 얼마나 설득하였는가? 를 봅니다.

4) 기타: 발표시간은 3-4 분이며, 4 분이 넘으면 감점이 있습니다. 위의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협의회에서 대회를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 1)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신청서
- 2) 발표 원고
- 3) 참가자 사진
- 4) 지역협의회 대상 수상사진
(각 지역협의회 대상자일 경우, 영상을 찍어 5월 14일까지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영상제작 가이드 라인

- 1) 가정 집이 아닌 대회 장소에서 찍은 영상으로, 스피커시설을 이용하여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2) 가급적이면 줌인 (Zoom-in)을 피하고, 학생의 허리부터 상반신이 단상과 함께 나오는 구도로, 중간에 잘리지 않고 편 잡되지 않은 동영상이어야 합니다.
- 3) 화질은 해상도 720x480 (일반미니캠코더)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5. 문의: 윤한나 홍보 간사 pr@naks.org 270-872-9203

2017년 장기 근속교사 및 개교 20주년 이상 표창

지역에서 차세대 뿌리 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8월 10일-12일 아틀랜타에서 개최하는 제35회 학술회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 교사와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를 표창하오니 그 동안 지역협회에서 수고하신 장기근속 교사와 개교 20년 이상 학교가 모두 표창 받도록 협조해 주시고, 특히 수상교사가 학술회 시상식에 꼭 참여하도록 적극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술회 등록은 3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1. 장기 근속교사: 근속 10년부터 표창하며, 매 5년 단위로 시상합니다. 해당교사는 <2017_근속 교사 표창 추천서>에 교장님의 추천을 받아 지역협의회로 접수 바랍니다.
2. 개교 20주년 이상 학교: 개교 20주년부터 표창하며, 매 10년 단위로 시상합니다. 해당학교는 <2017_20주년 이상 학교 표창 추천서>를 지역협의회로 접수 바랍니다.
3. 각 지역협의회: 수합된 1번과 2번의 접수 서류는 지역에서 보관하시고 지역통합 <2017-장기근속 교사 및 개교 20주년이상 학교 표창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장은영 NKAS 담당 부회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신청서는 NAKS 웹 해당 사업 공고 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 2017년 5월 31일 (화) 밤 12시까지 (서부 시간)

접수 및 문의: 장은영 NAKS 부회장: vp-ec@naks.org, 408,728,1678

한국문화체험관

사업목적: 지역 사회 미국인들과 함께 소통하며 한국 문화와 한류를 알리고 체험하는 장을 마련하여 학술회가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닌 지역의 주류 사회와도 함께하며 알리는 행사이다.

체험부스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민간 교류와 경제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사업진행: 학술회 행사중에 진행 (Skyline Level) 8.11.2017 (금요일)과 8.12. 2017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2시, 오후 1시 ~ 오후 5시

* 각 지역에서 소개할 수 있는 부스를 하나씩 책임 맡아서 운영 예) 중서부 지역 - 전통혼례식

* 체험장 :

- 차 마시기
- 종이접기
- 붓글씨
- 한복 입어 보기
- 제기차기
- 공기놀이
- 한국음식/과자 맛보기
- 풍악놀이

*전시 및 자료제공:

- 동남부지역의 한국 문화와 이민 역사 (동남부 지역 협의회)
- 고인쇄박물관 • 직지 시연
- 전라북도 • 한지공예
- 독도 재단 • 독도 사진 찍기
- 한지산업지원센터- 한지 체험
- 반크
- 국립국어원 • 책자 소개
- 반디 Books • 책 판매
- 부스판매를 통해 그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7년 한국 역사 문화 리더십 캠프

사업 목적

재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한국의 역사를 현재의 상황에 적용을 해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 일정

- NAKS 학술대회 기간 중 2017년 8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참가 대상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백범 김구 독서감상문 대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자

캠프 내용

주제별 그룹 활동:

주제 - 대한제국 반포와 이민 역사 / 그룹토의 / 한국문화
체험관 방문 / 그룹별 프레젠테이션 / 수료식

2017년 차세대 교사 육성 프로그램 - 나스 주니어 리더십 어워드

2017 NAKS JUNIOR LEADERSHIP AWARD

개요

차세대 교사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는 각 지역의 보조교사들을 위한 NAKS Leadership Awards 를 제공합니다. 이는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의회와의 연결고리를 이어가기 위함에 있으며, 협의회에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차세대교사 육성 프로그램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에, 각 한국학교에서 봉사하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중 150시간 이상은 Gold를, 100시간 이상은 Silver를, 그리고 50시간 이상은 Bronze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는 4시간씩 32주 봉사 및 특별활동 봉사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사업목적

장기목적: 한인 차세대 한국어 교육과 민족 정체성 교육을 담당할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한글 학교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한다.

단기목적: 보조교사상을 수여함으로써 차세대 교사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협의회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도모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차세대 교사 육성 프로그램의 밑거름이 되도록 한다.

사업진행일정

2016년도

공문발송: 1차 2016년 10월 17일 / 2차 2017년 3월 예정

추천마감: 1차 2016년 11월 2일 / 2차 2017년 4월 15일

상장발송: 1차 2016년 11월 25일 / 2차 2017년 5월 예정
2017년도

공문발송: 2017년 10월 예정

추천마감: 2017년 11월 예정

상장발송: 2017년 11월 예정

수상자 선정기준

각 한글학교 보조교사 중 1년 동안의 봉사 시간이 50시간 이

상 (동상), 100시간 이상 (은상), 150시간 이상 (금상)인 교사를 각 교장의 추천을 받음

* 2016년도: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

* 2017년도: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각 회원 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과 각 지역협의회 회장님들의 승인과 집행부의 최종승인으로 진행합니다.

첨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각 학교에 상장을 준비하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을 획득한 보조교사들은 협의회에서 준비 중에 있는 보조교사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추천방법:

2017년 4월 15일까지 각 지역 협의회장님들께서 나스 웹사이트 (https://www.naks.org/jml/index.php?option=com_rsform&formId=6) 나 정리된 엑셀파일로 유미순 부회장 (vp-ky@naks.org)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단, 지난해 수상자는 제외됨

* 전달 받은 내용대로 상장이 만들어지니 정확한 내용 확인 요
1차 결과 보고:

총 431명의 추천인 중 위의 기준에 맞는 362명에게 상장 발송.
위 기준과 맞지 않는 69명의 누락자 발생

NAKS 웹을 소개합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NAKS) 웹은 협의회 행사 및 일정 업무를 보조하고 이에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보관하여 방문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목적과 필요에 맞게 메뉴를 구성하였고, 학술대회와 같은 큰 규모의 행사 운영의 경우 많은 부분을 웹의 도움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며, 웹 회원에게도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NAKS 집행부가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음은 NAKS 웹의 여러 특징들이다.

- 최신 웹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각종 웹 환경을 지원한다. (스마트폰에서도 적합)
- NAKS 활동에 적합한 메뉴 구성 및 다양한 회원 권한을 관리한다.
- 웹 회원의 경우 웹에 오르는 소식을 매주 1회씩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 민감한 회원 정보 수집에 있어 필수 사항인 암호화된 통신 (Secure Sockets Layer, SSL)
- 학술대회와 각종 행사 온라인 등록 및 신청에 따른 결제 지원
- 웹 회원 각자의 계정을 통한 개인별 서비스 (영수증, 수료증 발급)
- NAKS 및 지역협의회 달력, 온라인 설문조사 기능, 게시글 수정, 사진앨범, 기타 자료실 등이 있다.

NAKS 웹 활용의 현재와 미래

현재 NAKS 웹 활용은 NAKS 의 역사, 지역협의회 소식, 선생님방, 자료실, 집행부 활동 등을 접할 수 있으며, 웹을 통한 NAKS 주관 행사들에 대한 안내와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학술대회, 한국학교 운영자 워크숍, 한국어 교사 집중 연수, 정주영 에세이 등이다.

NAKS 웹은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의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많은 행사와 소식을 웹을 통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예를 들자면 김구 독후감 쓰기 참가 신청, NAKS Junior Award 신청 등이다. NAKS 웹의 사용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NAKS 회원 학교와 집행부간에 신속한 정보 공유와 빠른 행사 진행을 기대해 본다.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및 PDF 수료증 온라인 발급

매해 개최되는 NAKS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NAKS의 가장 중요한 큰 규모의 행사이다. 보안 (SSL) 기능을 갖춘 웹을 통해 학술대회 등록을 받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자 집계와 자료 처리가 신속하여 소수의 인원의 NAKS 집행부가 학술대회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학술대회에 이메일 주소가 검증된 웹 회원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온라인 결제에서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웹을 통해 행사 등록에 대한 영수증 발행과 행사 후 온라인 수료증 (PDF) 발급 등 각종 서비스를 웹을 통해 처리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 또한 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학술대회 관련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웹에 오르는 새 소식을 매주 1회씩 이메일로 수신
- 현재 및 과거에 등록한 학술대회 조회 (등록자 본인이 입력 오타수정 가능)
- 현재 및 과거 등록비 영수증 혹은 수료증 등의 PDF 파일 제공
- 선생님방 글쓰기 권한 (Community/선생님방)
- 이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으나 특히 NAKS 집행부로서는 등록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할 수 있어서 행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영수증 발행이나 수료증 발행 등의 업무가 온라인으로 자동화되어 웹 회원에게 신속한 서비스가 가능하여 NAKS 집행부에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다.

웹 이용요령

NAKS 웹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운영 목표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웹 회원에게 열려 있는 선생님방의 경우에 교육적으로 좋은 글은 환영하지만, 광고성 글은 금지하며 광고성 글의 경우 예고없이 삭제된다. 지역협의회를 위해 소식 및 사진앨범 게시판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협의회 행사 일정을 알릴 수 있는 달력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 웹 이용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단 웹에서 'Community//웹이용안내'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래도 의문이 있을 때에는 'Home/Naks Contacts/Contact Naks' 페이지를 통해서 '웹 관련 문의'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7년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 ‘직지’의 고장인 청주에서 아래와 같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지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제목: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운영
- 운영 기간: 2017년 7월 10일 - 7월 13일 (3박 4일)
- 장소: 청주시 일원
- 참여 대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속 학생 (초등학교 5년 이상)
- 참가 인원: 30명 이내 (인솔교사 3명)
- 내용: 직지 및 한국문화 체험, 직지 특강,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
- 참가자 지원내용: 참가 학생은 체재비 지원, 인솔 교사는 항공료와 체재비 지원
- 제출 서류: 직지캠프 참가자 신청서
- 제출 마감일: 2017년 4월 22일
- 담당 임원: 유미순 부회장 <vp-ky@naks.org>

각 지역별로 2명까지는 자동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단, 선착순으로 하여 2지역은 3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참가 학생이 없는 지역이 있어 자리가 남게 된다면 지원자 중 신청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여름 방학에 한국을 방문하는 학생들이 좀 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번 직지캠프에 귀 한국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NAKS 집행부 사업 보고

(2016.4. ~ 2017.3.)

1. 제17대 집행부 회의
 - 일시: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 장소: Teaneck, NJ
 - 참석자: 최미영, 김정자, 이승민, 오정선미, 유미순, 황정숙, 한희영, 권예순, 김원구
2. 34회 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하실 전현 교수님과 회의 (2016년 4월 1일)
3. 동북부 지역협의회 동화구연대회 참석
 - 일시: 2016년 4월 2일
 - 참석자: 최미영 총회장, 김정자 부회장
4. 김채영 주재관 미팅
 - 일시: 2016년 4월 3일 오전 11시
 - 장소: 뉴저지 한인회관
 - 참석자: 김채영 주재관, 최미영 총회장, 이승민 부회장
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청소년, 교육전문가 및 학부모 면접 조사 계약
 - 일시: 2016년 4월 10일부터 3개월간
 - 장소 및 내용: 서부, 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의 조사 사업
6.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보 17-2호 발간 (2016년 4월 21일)
7. 재외동포재단 최동준 기획이사와의 미팅
 - 일시: 2016년 4월 22일
 - 장소: 산호세
- 참석자: 최동준 기획이사, 김정혜 차장, 이성도 SF 영사, 장동구 이사장, 최미영 총회장, 한희영 교육간사
8.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수상자 발표 (2016년 4월 26일)
9. 예담 한복과 양해각서 체결
 - 일시: 2016년 5월 3일
 - 장소: 서니베이일 캘리포니아
 - 참석자: 추민수 예담 대표, 김문식 한국실크연구원 본부장, 장동구 이사장, 최미영 총회장, 한희영 교육간사
10. SAT한국어 문제집 교정 완료 및 오디오 편집 완료 (10회에 걸친 교정작업을 마침) (2016년 5월 4일)
11. 17대 집행부 전화 회의 (2016년 5월 12일)
12. 2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수상작 발표 (2016년 5월 15일)
13. SAT 한국어 문제집 발간 (2016년 5월 31일)
14. 표준평가문항집 발간 (2016년 6월 30일)
15. 2016년 학술대회 강의를 및 31호 한인교육연구지 발간 (2016년 7월 10일)
16. 2016년 집중연수회 강의를 및 운영자 워크숍 강의를 발간 (2016년 7월 10일)
17. 2016년 집중연수회 개최 (2016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8. 2016년 운영자 워크숍 개최 (2016년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19. 2016년 제35회 학술대회 개최 및 정기총회
 - 일시: 2016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 장소: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 기조강연: 전현 교수
20. 한국문화체험관 개관 (2016년 7월 15일)
21. 2016년 정기총회 (2016년 7월 16일)
 - 신임 총회장 이승민 - 회원교의 투표로 직접 선출
 - 신임 부회장 장은영, 오정선미
 - 이사회에서 선출 총회에서 인준
22.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2016년 7월 16일)
23. 한국문화체험관 오픈 (2016년 7월 15 ~ 16일)
24. 2017년 35회 학술대회 개최 호텔 계약 (2016년 7월 29일)
25.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간담회
 - 일시: 2016년 8월 18일
 - 참석자: 주철기 이사장, 김봉섭 교육지원팀 부장, 김채영 주재관, 고은자 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박종권 동북부 협의회장, 설인숙 동중부 협의회장, 한연성 워싱턴 협의회장
26. 유미순 부회장 선출
 - 일시: 2016년 8월 28일
27. NAKS 18대 제 1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6년 9월 8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2시)
28. 정세균 국회의장 및 3당 원내대표 워싱턴 동포 간담회 참석
 - 일시: 2016년 9월 12일
29. 인수인계 및 사무식
 - 일시: 2016년 9월 24일
30. NAKS 18대 제 2차 임원 회의
 - 일시: 2016년 9월 24일 (동부시간 오후 9시-12시)
31. 안호영 주미대사 면담
 - 일시: 2016년 9월 23일
 - 참석자: 안호영 주미대사, 정종철 교육관, 안미혜 교육원장, 장동구 직전 이사장, 최미영 직전 총회장, 고은자 이사장, 이승민 총 회장
32. 교육관 면담
 - 일시: 2016년 9월 24일
 - 참석자: 집행부 임원 및 이사회 임원
33.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창립 이사회 참석
 - 일시: 2016년 9월 27일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34. 환단고기
 - 일시: 2016년 10월 4일
 - 참석자: 김재남 강사, 이승민 총회장
35.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 추천 의뢰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0월 5일
36. NAKS 회장단 화상 회의
 - 일시: 2016년 10월 11일
37. 회계사무실 면담
 - 일시: 2016년 10월 13일
 - 참석자: 길종언 회계사, 이정하 회계사, 황보철 자문이사, 감미경 재무
38. NAKS Leadership Junior Award 신청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0월 17일
39. NAKS 18대 제 3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6년 10월 18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2시)
40. ACTFL
 - 일시: 2016년 10월 19일
 - 참석자: Marta G. Abbott, Executive Director; 이승민 총 회장
41.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주관 한미중일 청소년 프로그램 신청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0월 22일
42. NAKS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장단 화상 연석회의
 - 일시: 2016년 10월 25일
 - 참석자: 14개 지역협의회 회장, 나스 집행부 임원 (존칭 생략): 동남부 선우인호, 동중부 심수목, 미시간 김선미, 서북미 이미숙, 워싱턴 한연성, 중남부 김명숙 대령 구교성, 중서부 윤현주, 콜로라도 유미순, 플로리다 김진희 협의회 회장 참석 (9명 협의회 회장)
 -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황정숙 사무총장, 감미경 재무, 윤한나 홍보 간사 (6명 임원)
43. 동남부 후원 만찬
 - 일시: 2016년 11월 10일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감미경 재무
44.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 일시: 2016년 11월 14일
 - 참석자: 김철민 관장, 박준호 연구사, 김파중 자료관리팀장, 유미순 부회장, 이승민 총회장
45. 국립국어원
 - 일시: 2016년 11월 14일
 - 참석자: 송철의 원장, 정희원 실장, 황용주 연구관, 이보라 미 연구관,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46. 청주고인쇄박물관
 - 일시: 2016년 11월 14일
 - 참석자: 신흥식 관장, 황정하 실장, 김남석 주무관,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47. 재외동포재단 초청 2016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참석
 - 일시: 2016년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임지현 남서부회장, 박종권 동북부회장, 김명숙 중남부회장
48.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회보 발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1월 17일
49. SCAU Digital 서울문화예술대학교
 - 일시: 2016년 11월 18일
 - 참석자: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 기준성 교수,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50.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

- 일시: 2016년 11월 19일
- 참석자: 박희양 총괄기획, 김태진 연구위원 (한국문화국제 교류운동본부),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51. 독도재단

- 일시: 2016년 11월 19일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52. 예뵈한복

- 일시: 2016년 11월 19일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유미순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5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역 회장단 및 집행부 연석회의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1월 19일

54. 서북미 지역협의회 교육기금 모금 행사 참석

- 2016년 11월 20일
- 장소: 시애틀 텍윌라 더블트리호텔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55. 제7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1월 26일

56. 2016-2017년도 이사회비 및 회원교 회비 납부 안내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1월 27일

57. SAT 한국어 모의고사위원회 화상 회의

- 일시: 2016년 11월 29일
- 참석자: 강주언 위원, 손민호 위원, 서희승 위원, 임난희 위원, 장은영 부회장, 이승민 총회장

58. NAKS 18대 제 4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6년 12월 5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2시)

59. 워싱턴지역협의회 교사의 밤 참석

- 일시: 2016년 12월 10일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60. 동중부지역협의회 교사 송년의 밤 참석

- 일시: 2016년 12월 11일
- 참석자: 고은자 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오정선미 부회장

61. Korean Heritage Foundation 면담

- 일시: 2016년 12월 13일
- 참석자: 주현영 강사, 이승민 총회장

62. 36회 학술대회 호텔 탐방

- 일시: 2016년 12월 19일
- 참석자: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63. 제3회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공문 발송

- 일시: 2016년 12월 27일

6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5 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안내 및 강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

- 일시: 2017년 1월 6일

65. NAKS 18대 제 5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1월 10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2시)

66.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간담회

- 일시: 2017년 1월 11일

67. 2017년 지역협의회장 및 집행부 연석회의

- 일시: 2017년 1월 20일 • 22일
-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Achtree Center Avenue NE, Atlanta, GA 30303)
- 참석자: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12대 이사회 임원, 동남부지역 선출이사, 18대 집행부, 김형률 준비위원장, 서문원 자문이사
- 손님: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권영일 총괄담당, 선보영 역사문화 교육담당, 김채영 주재관

68. 정종철 교육관 환송회 (워싱턴지역 관계자)

- 일시: 2017년 2월 6일

69. NAKS 18대 제 6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2월 7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2시)

70. 대구경북(TK) 워싱턴 DC 시도민회 김경구회장 면담

- 일시: 2017년 2월 8일

71. 한미교육재단

- 일시: 2017년 2월 21일
- 이광자 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72. NAKS 18대 제 7차 임원 유선회의

- 일시: 2017년 3월 7일 (동부시간 오후 9시 ~ 12시)

73.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집중연수 / 운영자워크숍 등록 시작

- 2017년 3월 1일

74. 제35회 학술대회 기조강사 확정

- 강경화 UN 사무총장의 특별정책보좌관
- 일시: 2017년 3월 8일

75. 부고:故 이상오 자문이사 (7대 총회장 / 7대 이사장)

- 2017년 3월 17일

76. 신문규 교육관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면담

- 일시: 2017년 3월 21일
- 참석자: 신문규 교육관, 안미혜 워싱턴교육원장, 한연성 워싱턴지역협의회장, 이승민총회장

77. 제21회 SAT Subject Test 한국어 모의고사 (2017년 3월 24일 ~ 26일)

[2016. 8] 감사패 증정

최미영 총회장은 지난 8월 말 한국 출장 시에 지난 5년 이상 본 협의회의 정체성 교육에 협력해 주신 여러 단체와 개인을 방문하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2009년 플로리다 학술대회와 2015년 뉴욕/뉴저지 학술대회에 강의와 자료를 제공하였고, 지난 수년간 각 한국학교에 한국알리기를 위한 자료를 제공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의 박기태 단장님과 함께〉



〈2010년부터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 한복을 보내주시고 올해부터 각 지역협의회에 10벌씩의 한복을 제공해 주시는 예담한복 추민수 대표님과 함께〉



〈2009년 플로리다 학술대회에 기자단으로 참석하여 본 협의회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협의회 기사를 연합뉴스에 게재하여 재미 차세대 한국어 및 한국 역사화 교육을 널리 알린 왕길환 기자님과 함께〉

[2016. 9. 1]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18대 집행부 출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의 제18대 임원회가 발족되어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7월 13일 콜로라도 주 덴버 Renaissance Denver Stapleton Hotel 에서 개최된 제 33차 총회에서 각 회원학교 대표 2인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이승민 전 재미한국학교 부회장 (워싱턴지역 새인약 한국학교 교장) 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16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장은영 (캘리포니아 은혜 한국학교), 오정선미 전 사무총장 (벽스카운티 한국학교), 유미순 전 재무 (콜로라도 지역회장) 등이 인준 절차를 거쳐 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사무총장에 황정숙 뉴저지 사랑 한국학교 교감, 재무에 김미경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교감, 편집장에 김윤희 텍사스 킬린 한국학교 교감, 교육간사로는 김선형 콜로라도 볼더 한국학교 교감, 홍보간사에 윤한나 켄터키 루이빌 한국학교 교장이 영입되어 집행부의 구성을 마친 18대 나스 임원회는 지난 9월 8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인사를 나누고 18대 사업에 대해 구상을 하였다.

이어 지난 9월 24일 버지니아 알란턴 크리스탈 시티의 코트야드 호텔에서 개최된 시무식에는 이승민 나스 총회장을 비롯한 18대 임원진과 안미혜 워싱턴지역 교육원장, 고은자 나스이사장, 신현주 부이사장, 황희연 총무이사, 장동구 나스이사, 이광호 자문이사, 이내경 자문이사, 황보철 자문이사 등이 참여하여 18대 나스 임원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민 총회장은 “뿌리교육을 위해 힘쓰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시금 다짐 하였고, “2년 임기 동안 모두에게 인정받는 한국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고은자 나스이사장은 17대 집행부에 감사하고 18대 집행부의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부탁함과 동시에 시무식을 축하하며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발전된 나스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안미혜 워싱턴 교육원장은 재미한국학교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한국학교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예로 우리 재미한국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고 특히 한글교육을 이끌어 나가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17대의 업적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18대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지난 36년의 나스 역사상 최초로 17대, 18대가 모두 같이 가진 공식적인 시무식에서 모든 임원은 당선증과 임명장을 받았고,

18대 집행위원들은 임원으로서 협의회의 정관을 지키고, 회원 학교와 지역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함께 서약하는 서약식으로 낙스 임원 임기의 실제 시작을 알렸다. 또한, 집행부 임원들은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무엇보다도 배우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직무에 임하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인수인계를 마친 후 18대 NAKS 임원회는 NAKS의 역사와 정관 그리고 현재의 사업 및 역할 분담에 대하여 토론하고 배우는 연수회를 이틀 동안 가졌다. 특히 사업기획서 작성법, 맡은 사업의 진행 과정 및 완료 때까지 임원이 책임 있게 해야 할 일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훈련을 받았다. 투명한 재정 운용을 강조하는 이승민 회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 재정의 사용 방법에 대한 논의와 지출 결의서 및 영수증 등을 정확히 첨부하는 방법을 다시금 강조 하였다.

[2016.11.1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국립국어원

일시: 2016년 11월 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점심 포함)
참석: 송철의 원장, 정희원 실장, 황용주 연구관, 이보라미 연구관,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내용: 34회 학술대회에 함께해주심에 감사드리
35회 학술대회 사전 사업으로 집중연수를 계획함에 있어 장은영 부회장과 협력하여 진행함.
집중연수는 수준별로 교육함. (2 track)

[2016.11.18]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SCAU Digital 서울 문화 예술 대학교

기관: SCAU Digital 서울 문화 예술 대학교
일시: 2016년 11월 18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참석: 육효장 국제언어교육원장, 기준성 교수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내용: 학술대회 광고로 협찬해 주심에 감사
이화여대 서혁교수님을 주재강연으로 최근에 학술대회 개최함. 앞으로 협력기관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6.11.19]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예담한복

기관: 예담한복
일시: 2016년 11월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참석: 추민수 대표이사,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위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

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내용: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 한복 지원 지속적으로 진행

교육대상

- 주재국에서 3년 이상의 한글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자 및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현지국가에서 출생한 학생 우선 선정
- 모국 방문의 기회가 적은 국가의 청소년 및 모국방문의 기회가 없었던 청소년을 우선 선정
- 최대한 다양한 국가에서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학생 우선 선정

교육내용

- 스토리텔링을 통한 역사교육
- 한국어 교육 - 전래동화 읽기교육, 동요를 통한 말하기 교육, 미술을 통한 즐거운 한국어 교육
- 한국 전통문화 체험교육 : 장구 / 탈춤 / 우리민요 / 붓글씨 / 한지체험 등
- 서울 및 전주 유적지 및 관광명소 탐방 - 광화문, 경복궁, 한국민속박물관, 전주 한옥마을, 전주 역사박물관

연수경비

- 본인부담 : 왕복항공료
- 전주시 부담 : 숙식 및 교육, 문화체험 등 한국에서의 모든 경비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1부, 사진 1매 (3.5x4.5), 여권 사본 1부

주의사항

- 한국 방문중에 일어나는 천재지변 등은 주최측이 책임지지 않음 (단, 연수 진행중 부상에 대한 단체보험은 가입완료)

[2016.11.19]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방문 - 독도재단

기관: 독도재단
일시: 2016년 11월 19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참석: 조우동 팀장, 문준환 대리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위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내용: 학교별 독도 UCC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작 수상 및 독도 탐방 기회 부여 해외한국학교 교사 독도 교육 NAKS 학술대회 독도특강 학술대회 개최 전 동남부 지역협의회와 연계하여 독도교육 및 홍보 병행하기로 함.

[2016.11.19.]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전주시 한국전총문화전당

기관: 전주시 한국전총문화전당

일시: 2016년 11월 19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참석: 박희양 총괄기획, 김태진 연구위원 (한국문화국제교류
 운동본부)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
 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위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 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내용: 한지공예 물품제공 교사 양성 프로그램
 학술대회 참여 프로그램 간구

전주시와 함께 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전통 문화 체험 및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 ◇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국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우수한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서 민족 문화 정체성 확립
- ◇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시에서 한국전통문화를 교육함으로써 한국 고유의 문화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로 양성

사업명: 전주시와 함께하는 재외동포 차세대 한국전통문화
 체험 및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 참여인원 : 30명
 ○ 참가대상: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 (만 11세~15세)
 ○ 사업내용: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한국전통문화연수
 (한국어 및 전통문화체험 등)
 ○ 주최 / 주관: 전주시 / 전주시 산하기관
 (재)한국전통문화전당
 ○ 행사일: 2016. 12. 16 (금)~12. 23 (금) 동계방학기간
 참가신청
 ○ 신청기간: 2016년 11월 15일(화)까지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
 신청서 작성
 e-mail 접수 (jiwoo@gwmail.ktcc.or.kr)
 ○ 선정학생 발표: 신청서 심사 후 선정학생 개별통보
 ○ 문의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 및 한국전통문화연수
 총괄기획자 박희양 M) 010-9757-1950
 ○ e-Mail) hyleeseoul@hanmail.net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전략기획팀 김지우 / T. 063-281-1515

한미중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주관으로 미국, 중국, 일본 교민 자녀를 포함한 현지인을 대상으로 전라북도 청소년들과 함께 전라북도를 알리는 기회를 갖고자 '한미중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3일부터 4박 5일간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각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미국내 20명의 아이들이 추천되어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체류비 및 프로그램 기간의 비용은 전라북도에서 부담하고 항공비만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NAKS 웹 해당 프로그램 페이지의 첨부파일을 (한미중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7.1.20 ~22]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집행부 연석회의 개최

- 일시: 2017년 1월 20일~22일(금-일)
-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Atlanta, GA
- 참석자: 이승민 제 18대 총회장 및 집행부,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이사회 임원, 고은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신현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부이사장, 서문원 자문이사, 선우인호 아틀란타협의회 회장.
- 손님: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권영일 총괄담당, 선보영 교육부 역사문화 담당,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승민 총회장, 이하 NAKS)는 2017년 1월 20일~22일에 NAKS 집행부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에서 열었다. 이 회의에서는 2017년 8월 조지아주 애틀란타지역에서 개최될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 2017년 사업 협력 및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발전에 관해 논의하였다.

2017년 들어 처음 함께 만나는 자리인 만큼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시작된 이 회의에서 연석회의를 주최한 이승민 총회장은 "우리 NAKS가 35년간 열심히 노력한 만큼 올해도 크나큰 성공적인 행사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또한 이 행사가 우리만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부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협의회장들은 관망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사업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소통과 교감 속에서 함께 미래를 꿈꾸는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NAKS는 올해 한미양국 정부 및 외국어 기관 등과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지역협의회 회장님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의 학교와 교사와 학생들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함에 늘 감사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함께 노력하자.” 고 했다.

고은자 NAKS 이사장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NAKS가 되길 바라며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입직하는 동안 NAKS 회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은혜를 입었다.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NAKS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분발해 4세대까지 내려가는 한국계 학생들의 성취에 많은 도움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채영 주재관은 “한국학교 소속 교사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낙스가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동포사업 관계자들은 후진 100년, 전진 100년을 아우르는 교육적 사야를 지녀야 한다. 민족사업의 가장 큰 구심점은 한글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 교육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다. 서로 간 협력 속에서 낙스를 계속 돕겠다” 고 말했다.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 대회를 주관하게 될 동남부한국학교협의회 선우인호 회장은 “협의회는 100여 곳의 한국학교 연합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교육 등을 통해 2세, 3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는 데 힘쓰고 있다”며 “35회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애틀랜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특히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워크숍’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현존하는 한국어 관련 기관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황정숙), AATK와 미국내 한국어 교육현황 (에모리 대학 한국어학교 최범용 교수), 한국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현지화 방안 논의 (유미순), 교육부 역사 문화 사업 방향 (선보영 역사문화 교육담당) 등의 순서로 특별 강의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 참석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외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현지의 교육과 맞추어 우리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올해 행사는 그전의 1박 2일과 다르게 2박 3일로 이루어졌고, 서문원 자문 이사이자, 제 3대 총회장님의 35년의 NAKS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왜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게 되었는지, 우리의 열정과 사랑이 식지 않고 영원히 간직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고, 이번 연석회의 참가자들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발전을 위해 모두 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 후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이에 교육관님은 생각지도 않은 감사패에 감동을 받으신 듯 하였고, 감사의 표현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김형률 준비위원장은 “그간 한인 2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참여하게 됐다”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고, 오는 8월에 개최 예정인 제35회 애틀랜타 낙스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금을 전달했다.

2박 3일간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행사계획 준비에 아주 바빴던 행사로 잠시도 여유도 없었던 행사였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8월 행사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7.1.20.]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워크숍

일시: 2017년 1월 20일 / 장소: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 Atlanta, GA

- 참석자: 이승민 제18대 총회장 및 집행부,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이사회 임원, 고은자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이사장, 신현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부이사장, 서문원 자문이사, 선우인호 애틀랜타 협의회 회장.
- 손님: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권영일 총괄담당, 선보영 교육부 역사문화 담당,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현존하는 한국어 관련 기관 소개 및 협력 방안 논의 (황정숙), AATK와 미국내 한국어 교육현황 (에모리 대학 한국어학교 최범용 교수), 한국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현지화 방안 논의 (유미순), 교육부 역사 문화 사업 방향 (선보영 역사문화 교육담당) 등의 순서로 특별 강의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우리 참석자들에게 다시금 어떻게 하면 외국에 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현지의 교육과 맞추어 우리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017.1.20]

2017년 제 35회 NAKS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지 기자간담회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오는 8월 10일 ~ 12일 2박 3일간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된다. 이를 홍보하기 위한 기자간담회가 지난 1월 20일 오후 3시에 Atlanta Marriott Marquis Hotel에서 있었다. 이날은 재외동포 재단이 후원하는 ‘한국어교육의 현지화 및 상호협력을 위한 워크숍’과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NAKS)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 연석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NAKS 이승민 총회장과 김형률 학술대회 준비위원장, 고은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서문원 자문이사, 선우인호 애틀랜타협의회 회장이 배석했다. 또한 정종철 주미대

사관 교육관, 권영일 총괄담당, 선보영 교육부 역사문화 담당,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이승민 회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오는 8월에 있을 재미 한국학교 학술대회를 위한 준비 및 협의회 발전을 위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 하였다. 또한, “행사가 우리만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부기관과의 협력 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어야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협의회장들은 관망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사업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소통과 교감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두들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NAKS는 올해 한미 양국 정부 및 외국어 기관 등과 협력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은자 NAKS 이사장은 “나날이 발전해 가는 NAKS가 되길 바라며 한분 한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임직하는 동안 NAKS 회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은혜를 입었다.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NAKS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분발해 4세대까지 내려가는 한국계 학생들의 성취에 많은 도움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김채영 주재관은 “한국학교 소속 교사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NAKS가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동포사업 관계자들은 후진 100년, 전진 100년을 아우르는 교육적 사야를 지녀야 한다. 민족사업의 가장 큰 구심점은 한글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 교육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다. 서로 간 협력 속에서 NAKS를 계속 돕겠다”고 했다.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될 동남부한국학교협의회 선우인호 회장은 “협의회는 미주에 있는 100여 곳의 한국학교 연합체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교육 등을 통해 2세, 3세 자녀들에게 정체성을 심어 주는 데 힘쓰고 있다”며 “제35회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애틀랜타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행사 후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김형률 준비위원장은 “그간 한인 2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규모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선뜻 참여하게 됐다”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고, 오는 8월에 개최 예정인 제35회 애틀랜타 NAKS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2017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요 사업 일정을 살펴보면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백범 김구 일지 독서 감상문 △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 나의 꿈 말하기 대회 △ 한국문화 체험관 △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 운영자 워크숍 △ 지역협의회 및 이사회 등이다.

참석한 기자단: 한국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독교 신문

[2017.1.20] 제 21차 전국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 출제

조지아주 애틀랜타 메리어트호텔에서 2017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총회장 이승민) 소속 SAT 전문위원들인 손민호, 서희승, 강주언이 모여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치러질 모의고사를 출제하였다.

NAKS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가 올해로 제21회째가 된다. 올해 출제되는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의 출제 경향은 본고사 SAT Subject Test: Korean의 수준과 유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 협의회 회장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 모의고사의 문제 난이도보다 하향 조정하여, 본고사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전년 대비 읽기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한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고은자 본 협의회 이사장, 이승민 총회장, 장은영 부회장, 그리고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관과 함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한국학교에서 SAT Subject Test: Korean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알리도록 하는 방안과 SAT Subject Test: Korean를 보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예로, 우수 대학에 입학 지원서를 낼 때, SAT Subject Test: Korean의 고득점 시험점수를 제출하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과 대학에 따라 필수 외국어 학점이 있는데, SAT한국어 점수로 필수 외국어 학점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음을 학부모님들에게 적극 알려 이 시험을 꼭 치르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이 모의고사를 PSAT처럼 활용할 수 있는데, 그 활용의 예로 3월에 이 모의고사를 치르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7개월간의 본고사 준비기간을 가지고 11월에 본고사를 치러 고득점을 얻도록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NAKS에서는 한 장 짜리 홍보물을 만들어 각 지역협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SAT 전문위원회 측은 올해 8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 35차 NAKS 전국학술대회에서 SAT Subject Test한국어 시험 홍보와 올 3월에 전국적으로 치루어질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기능별로 분석하여 발표하고, SAT 모의고사를 활용한 수업지도안 발표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염성 질환이나 신체 부상으로 인해 치료 중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교육 활동 (야외활동 등)이 곤란한 학생은 참가가 제한될 수 있음.
- 연수 중에 찍은 사진, 동영상에 대한 초상권은 주최측에 있음.

제18대 집행부 출범과 NAKS 활동 사진

[2016.9.1]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18대 집행부 출범



[2016.11.1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국립국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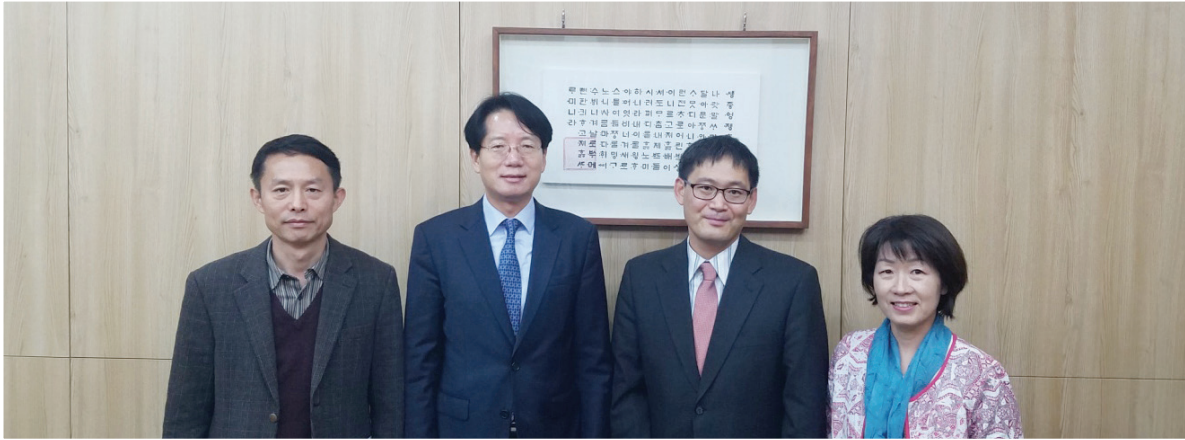
참석: 송철의 원장, 정희원 실장, 황용주 연구관, 이보라미 연구관,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2016.11.1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청주고인쇄박물관



참석: 신희식 관장, 황정하 실장, 김남석 주무관,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2016.11.14]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국립한글박물관



참석: 김철민 관장, 박준호 연구사, 김파중 자료관리팀장,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2016.11.15]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재외동포재단 초청 2016 한글학교 협의회 회장단 워크숍





참석: NAKS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임지현 남서부회장, 박종권 동북부회장, 김명숙 중남부회장

[2016.11.19]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전주시 한국전충문화전당



참석: 박희양 총괄기획, 김태진 연구위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중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2016.11.18]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SCAU Digital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참석: 육효창 국제언어교육원장, 기준성 교수,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2016.11.19]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예담한복



참석: 추민수 대표이사,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충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2016.11.19]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협력기관 방문 - 독도재단



참석: 조우동 팀장, 문준환 대리, 이승민 총회장, 유미순 부회장, 장은영 부회장, 선우인호 동남부회장, 한연성 워싱턴회장, 윤현주 중서부회장, 심수목 동충부회장, 김선미 미시간회장, 한순용 뉴잉글랜드회장

[2017.1.20 ~ 22] 재미한국학교협의회지역협의회 회장단 및 집행부 연석회의 개최



[2017.1.20] 제 21차 전국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 출제



사진설명: 손민호 출제위원, 이승민 NAKS 총회장, 고은자 이사장, 서승희 출제위원, 강주언 출제위원, 장은영 부회장,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2017.1.20] 한국어 교육의 현지화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워크숍



[2017.3.21] 신문규 교육관 (주미국대한민국 대사관) 면담



일시: 2017년 3월 21일

참석자: 신문규 교육관, 안미혜 워싱턴교육원장; 한연성 워싱턴지역협의회장; 이승민총회장

[2017년] 제 21회 SAT II 한국어 Subject Test 모의고사

2017년 응시 신청 현황: 전국 211 학교에서 3376 학생이 응시 신청

NAKS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국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가 올해로 제21회째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출제된 SAT Subject Test: Korean 모의고사의 출제경향은 본고사 SAT Subject Test: Korean 의 수준과 유형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협의회 회장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 모의고사의 문제 난이도보다 하향 조정하여, 본고사에 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감을 고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읽기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9~12학년 학생들에게 만점표창장을 발급합니다. 앞으로도 11월 실전 고사를 대비 또는 한국어 실력 점검을 위해 학생들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사업 목적

- 주말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권장하고 본 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여 미국 대학교 입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주말한국학교 재학생들이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실력을 평가해 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SAT 한국어 모의고사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SAT 한국어 시험을 치르도록 홍보할 수 있다.

● 모의고사 출제 준비 및 실시 과정

1) 출제위원 및 감수위원 선임:

추천의뢰 2016년 10월 26일

선임통보 2016년 11월 11일 (임기 2년)

출제위원: 강주언, 서희승, 손민호

감수위원: 임난희

2) 출제회의: 2017년 1월 20일 (금) ~ 22일 (일)

3) SAT 모의고사 안내 공문: 연석회의 및 1월 공문

4) 감수 문제 발송: 1월 25 일

5) 감수 완료 및 문제지 최종 편집: 2월 10일

6) 문제지 듣기 문제와 지문 녹음: 2월 17일

7) 지역별 응시자 통계 및 접수 마감: 2월 28일

8)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선임

추천의뢰: 2월 14일

선임통보: 3월 15일 (임기 2년)

평가위원: 김민정

자문위원: 이광호

9) Scranton 답안지 발송: 3월 10일

10) 모의고사 문제지, 시험 세부사항: 평가 내역서 등 관련문서를 각 지역협회 별로 발송: 3월 15일

12) 실시: 각 학교별 2017년 3월 24일 (금) ~ 26 (일)

13) 모의고사 실시 후 평가 의뢰서 및 scantron

답안지 발송: 3월 31일

14) 결과 평가서 회원학교에 발송: 5월 30일

- 학술대회 목요일 특강: 8월 10일 (목) 제21회 모의고사 결과 평가 및 SAT- Subject Test 홍보, 모의고사 교재사용 사례 보고 등 앞으로의 실력 향상과 시험 전략 강의이므로 학교 당 교사 한 분 참석 바랍니다.

- 만점 학생 표창: 학술대회 기간 중에 9~12학년 학생에게 표창장 발급합니다.

시행 경과 및 접수 결과 보고

신청 마감: 2월 28일 (화)

실시: 3월 24일 (금) ~ 26일 (일)

신청서 제출: 개별 회원학교 응시 신청서,
지역협의회 응시 신청서

모의고사 대상: 5학년 ~ 12학년

응시료: 무료

접수처 및 문의:

장은영 NAKS 부회장 (vp-ec@naks.org, 408.728.1678)

총 신청자 수: 전국 211 학교에서 3376 학생이 응시하였습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남서부지역협의회



임지현 회장

안녕하세요. 남서부협의회에서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 미술대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남서부 지역 소속 델러스 포트워스 협의회에서는 해마다 한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6년도에 역시 20개 학교의 1500명의 학생이 각자 주어진 주제에 맞게 그림 솜씨를 뽐냈습니다. 한글 수업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미술 주제를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으로 자랑스러움을 느낄 좋은 기회입니다. 높은 참여도와 함께 지역 사회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행사입니다



DFW 미술대회 학년별 수상작들, 미술대회 주제: 독도, 독도 이야기



4년째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Mr. Vaughn



수상자 발표와 시상식 (달라스 영상관)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한순용 회장

뉴잉글랜드 협의회는 1989년 10월에 초대 임원단이 (회장 겸 이사장: 김영집) 출범하여, 현재 15대 (회장: 한 순용, 이사장: 윤 미아) 까지 약 3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입니다. 현재 뉴잉글랜드 5개 주 (Maine, Massachusetts, Rhode Island, Connecticut, Vermont 주)의 24개의 학교가 회원으로 등록하여 있으며, 학생 수는 약 1,000명 교사 수는 약 200명의 숫자를 자랑하고 있는 협의회입니다.

현재 임원진은 총무 겸 재무 박지애, 부회장에 신영옥 김현주, 교육 간사에 김희진, 홍보 간사에 이정옥, 웹 간사에 이지훈 선생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뉴잉글랜드 협의회에 연간 행사로는 9월에 교사연수회, 12월에 열리는 동요합창제 발표회, 2월에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 4월에 글짓기 대회, 5월에는 사생대회 및 봄 소풍 그리고 6월에는 정기회의가 개최됩니다. 매년 행사에 많은 학교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 대한민국 보스턴 총영사와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월에는 서울 정신여중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계시는 강용철 선생님을

모시고 이틀간에 걸쳐서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엄성준 보스턴 총영사님을 비롯하여 내외 귀빈들도 참석하였고, 1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교사로서의 초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 1월 27~28일에는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하는 “제1회 찾아가는 역사 문화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학생들도 이 캠프에 참가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하루라는 짧은 일정에도 아이들이 한국의 역사의 흐름과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독도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특별활동으로 거북선 만들기, 역사 인물 캐릭터 그리기 등을 하며,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하여 친근하게 다가갈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주최

〈찾아가는 역사, 문화 캠프〉 성황리에 개최

두 차례의 교사 대상 강연과 학생 캠프로 이틀에 걸친 알찬 프로그램 펼쳐 재미한국학교 NE 지역협의회 (회장 한순용)는 뉴잉글랜드지역에 사는 동포 2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지난 1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친 〈찾아가는 역사, 문화 캠프〉 행사를 성공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캠프는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에서 주최한 첫 번째 역사, 문화 캠프로서,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그림 그리 는 선생님, 참 썸”으로 유명한 김차명 선생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지역 4학년 이상의 한국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참여하여 재미나고 유익한 역사교육의 현장을 함께 했다.

우선 첫 날 순서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사, 학부모 대상의 강연이 밀알한국학교와 성요한한국학교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보다 많은 분에게 참여기회를 주기 위한 협의회 측의 배려로 진행된 두 번의 강연에서, 피곤한 기색 없이 열심과 성의를 다해 강의를 이끄는 강사와 적극적인 활동 참여와 토론으로 대응한

참여자들에 의해 열정적인 분위기를 이루어, 예정된 시간보다 한 시간이나 길어진 강연이었다. 이 날 강연에서는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역사 공부를 흥미롭고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교수법으로써 그림, 이미지를 통한 비주얼 싱킹을 유도하고, 계속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 나가게 하는 내용이 전달되었다. 강연을 들은 한 교사는 “그림을 이용한 역사 가르치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수업 방식이라든가 쉽게 캐릭터 그리기 등의 새롭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워서 무척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튿날, 노스 앤도버 소재 다문화선교교회에서 펼쳐진 학생 대상의 캠프에서는 예상외로 많은 현장 등록자가 추가돼 7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자리를 메워서 떠들썩한 분위기였다. 전체 학생들이 연령대별로 골고루 섞여 10개의 조로 나뉘어 각각의 테이블에 앉은 후 ‘머리 어깨 무릎 발’ 게임과 이름 빙고게임 등을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정비되고, 곧이어 강사의 자기소개, 역사를 이해하는 법과 우리 역사의 전반적 흐름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강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계속 퀴즈를 내고 맞추는 아이에게 준비해 온 스낵을 주기도 하였으며, 빨대를 이용한 ‘담쌓기’, 신분제 가위바위보 게임활동을 할 때에는 학생들의 열띤 승부욕과 경쟁으로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다. 오전 1부 순서를 마친 아이들은 강사가 직접 디자인한 티셔츠를 입고 단체 사

진을 찍은 뒤, 점심으로 한식뷔페를 즐겼다.
이어 오후 시간에는 기본 남자, 여자 캐릭터 그리기를 배운 후 단군왕검과 세종대왕 캐릭터 그리기, 세종대왕에 관한 미니 북 만들기, 또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운 다음, 거북선 만들기 등의 활동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캠프를 위해 김차명 선생은 한국말에 익숙지 않은 2세 학생들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온 영상에 전날까지 밤샘 작업으로 영어자막을 추가하는 등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고 협의회 총무는 학생들을 위해 동시통역을 해 주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수고를 기울였다. 뒤이어 6.25 한국전쟁과 독도 문제에 관한 강의도 덧붙여졌다.

또, 캠프가 끝난 후, 뉴잉글랜드한국학교의 이해린, 준호 남매가 자발적으로 무대로 나와 강사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율동과 함께 노래를 선사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김차명 선생도 줄지어 선 많은 아이들에게 일일이 캐릭터를 정성껏 그려주며 대화를 나누는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김차명 선생은 소감을 통해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활동에 참여하고 또 스스로없이 자신에게 다가와 주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였고, 캠프에 참여했던 밀알한국학교의 김지은학생은 “기

대 이상으로 재미있는 활동을 많이 하여 시간 가는 줄 몰랐으며, 특히 쉽게 캐릭터 그리는 법을 배운 것과 멋진 거북선 모형을 만든 것이 너무 좋았다”고 하였다.

한순용 뉴잉글랜드협의회장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보람된 시간이었고, 큰 힘을 보태준 협의회 김현주 부회장, 박지애 총무, 이정옥 간사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역사, 문화캠프를 열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에 커다란 의미를 둔다”고 밝혔다.

또한, 우스터 한국학교의 한 학부모는 캠프를 다녀온 아이가 대뜸 “오늘 캠프를 보내 주셔서 고맙워요.”라고 하였는데, 운전만 해줬을 뿐인데 지금껏 어떤 프로그램에 보내도 듣지 못했던 말을 처음 들었다며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날의 역사, 문화 캠프를 지켜본 관계자들은 “이번 캠프는 연령과 수준에 상관없이 전체 학생들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하고도 흥미로운 활동과 함께 우리 역사의 핵심적 내용을 총망라한 값진 배움터였던 동시에,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사랑이 오가는 따뜻한 협력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동남부지역협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 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준비하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이하 NAKS)가 주최하는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2017년 8월10일부터 12일까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Marriott Marquis호텔에서 개최됩니다. Atlanta 에서 열리는 제35회 낙스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동남부한국학교협의회(회장 선우인호)는 68개 학교 약 550여 명의 교사와 2,800여 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남부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하여 교사연수회, 교장 세미나, 한글 올림피아드, SAT 한국어 모의고사 등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역 협의회들과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35회 낙스학술대회를 역대 가장 내실 있는 대회로 꾸미고자 동남부지역협의회에서는 김형률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괄, 홍보, 기획, 재무, 교육, 의전 등 부문별로 팀을 구성하여, 전 미주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오시는 학술대회 참가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을 마음을 다해 맞이하고 대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남부협의회 최 대 규모 행사인 학술대회에는 미국 내의 한국학교 교사와 한국 및 미국의 교육 관계자, 14개 지역협의회 회장 등 8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그 준비 과정에 많은 인력과 경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협의회에서는 재정적인 후원을 위한 여러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준비위원장추대 기자회견 기사

2017년 NAKS 학술대회 준비위원장에
김형률씨 기사입력: 2016-09-09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



재미한국학교 동남부협의회 선우인호 회장(왼쪽)이 2017년 애틀랜타에서 개최될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2세 교육 위한 후원” 당부

재미한국학교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이하 NAKS)가 주최하는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이하 학술대회)가 2017년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개최된다.

NAKS 동남부협의회 선우인호 회장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학술대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김형률 조지아애틀랜타한인상공회의소 이사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형률 준비위원장은 “2-3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전국대회가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라며 “최선을 다해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힘써 일하겠다”고 말했다.

선우 회장은 “역대 가장 내실 있는 학술대회로 꾸미고자 동남부지역협의회에서는 김형률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총괄, 홍보, 기획, 재무, 교육, 의전 등 부문별로 팀을 구성해, 전 미주와 한국에서 오시는 학술대회 참가 선생님들과 관계자들을 맞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미국 내의 한국학교 교사와 한국 및 미국의 교육 관계자, 14개 지역협의회 회장 등 8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부협의회는 이번 학술대회에 소요될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립 한국학교의 연합체인 NAKS는 한국어, 한국 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궁지 함양, 교육 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천여 개의 회원 학교와 오천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사만여 명의 우리 2세들의 미래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NAKS는 미국의 전 지역에 산하 14개의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내년 Atlanta에서 열리는 제35회 낙스학술대회를 주관하는 동남부한국학교협의회는 68개 학교 약 550여 명의 교사와 2800여 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다. ‘3세 교육을 위한 2세 교육’을 모토로 하고 있는 동남부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하여 교사연수회, 교장세미나, 한글 올림피아드, SAT 한국어 모의고사 등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지역협의회들과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한국어 학술대회 애틀랜타서 열린다

낙스, 내년 8월 10~12일...800명 참가예상
지난 10일 다운타운서 대규모 후원모임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낙스)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0일 애틀랜타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14년만에 애틀랜타에서 내년 8월 10~12일 열리는 이 대회의 성공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총영사관 및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선우인호 낙스 동남부협의회장은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 호주 등에서도 방문하는 내년 애틀랜타 대규모 낙스 대회를 역대 가장 내실 있는 대회로 성공시키고자 한다”면서 “이에 준비위원장으로 위촉된 김형률 애틀랜타 조지아상의 이사장을 중심으로 홍보, 기획, 재무, 교육, 의전 등 부문별로 팀을 구성해 매끄러운 행사 준비는 물론 참가자들 및 관계자들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진 총영사는 “현재 미주내 시민권자는 3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세, 3세들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한국어 교육에 활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 뒤 “한인 정계진출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이번 선거에서 주하원 4명중 1명이 조지아주에서 배출됐다. 또한 한인인구 25만명의 동남부 지역에는 150개 이상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을 만큼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민 낙스 신임회장은 매년 여름 14개 지역 협의회별 순차로 열리는 정기총회 및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주제로 열리는 내년 학술대회 특징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내 한국학교 교사를 비롯해 본국 및 미국 교육 관계자들 800명이 참가 예정인 이번 대회에 대해 이승민 회장은 “한국문화체험관을 위해 25개 부스가 마련해 한인

으로서의 자긍심을 실질적으로 심어주는 데 포커스를 맞춰 예정”이라면서 “14개 지역협의회 중에서도 특히 동남부지역은 내실을 자랑하는 만큼 내년 대회 성료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제니퍼 페로 피치트리리지고교 교감은 “우리의 성공은 우리 자녀의 성공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가 창조한 커뮤니티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한 성공의 핵심은 교육이다. 이에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젊은 세대들의 성공을 계속 물려줘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김형률 대회 준비위원장은 “예산 소요 경비는 24만달러로 한인사회의 후원이 절실하다”면서 “14년에 한번 애틀랜타서 개최되는 흔치 않은 대회인 만큼 1년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언정기자 kim7@atlantachosun.com

[후원금 전달]

미씨화장품, 낙스(NAKS) 학술대회 후원금 3천불 전달!

미씨화장품 조미숙 대표는 어제 오후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 (SEKSA, 회장 선우인호)가 주최하는 제35회 낙스(NAKS)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위한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김현경 기자>

조미숙 미씨화장품 대표는 어제 1일 제35회 낙스(NAKS)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 (SEKSA, 회장 선우인호)의 선우인호 회장과 김형률 낙스학술대회 준비위원장이 참

여한 가운데 후원금 3천불을 전달했습니다. 자신의 두 자녀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학교의 교육을 통해 모두 한국어를 잘하는 성인을 키워내기도 한 조미숙 대표는 “한국학교에 가서 한국말을 정확히 배워왔으면 좋겠다”며 “주말만 가는 한국학교가 아니라 어른이고 어린이들 상관없이 매일 가서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낙스 (NAKS) 주최 최대 규모 행사인 학술대회에는 미국 내의 한국학교 교사와 한국과 미국의 교육 관계자 그리고 14개 지역협의회 회장과 같은 관계자들 700~8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회 규모로 볼 때 25만불의 재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국어로부터 3분의 1 금액이, 낙스 미주본부에서 3분의 1이, 그리고 나머지 금액 8만불 정도는 애틀랜타에 소재한 동남부지역협의회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제35회 낙스학술대회의 모든 재정과 후원을 총관리하는 김형률 준비위원장은 한 달 전 열린 후원 모금 갈라쇼에서 “뿌리교육과 정체성교육이 우리 차세대들이 주류사회에 나가서 당당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1세대들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차세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교재 연구와 교수 학습 연구가 이뤄지는 학술대회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후원금 전달식에서 김형률 준비위원장은 내년 낙스 대회에 첫 테이프를 끊어준 조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지출이 많은 연말이지만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낙스 (NAKS)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는 매년 지역협의회가 돌아가며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이번 제35회는 2017년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메리어트 (Marriott Marquis)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애틀랜타에서는 2003년에 개최된 후 13년 만에 열리게 되는 셈입니다.



노아은행, 한인 차세대 위해 후원금 전달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 (SEKSA, 회장 선우인호)가 주최하는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위한 후원금이 이어지고 있다.

노아은행의 윤혜리 부행장은 지난 20일, 제35회 나스 (NAKS)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주최하는 재미한국학교 동남부지역협의회 (SEKSA, 회장 선우인호) 측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선우인호 동남부지역협의회 회장과 연석 회의차 방문한 이승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과 유미순, 오정선미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승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은 “우리 코리안아메리칸 아이들에게 정체성 함양을 해줘야 한다. 우리 1세대들이 2세들을 위해 헌신해 줬으면 좋겠다”며 후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윤혜리 노아은행 부행장은 “노아은행은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은행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차세대를 위해 후원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주최하는 ‘제35회 재미한국학교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개최된다.

윤수영 기자 atldaily@gmail.com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장단 연석회의 기사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재미한국학교협의회(나스) 집행부 및 지역협의회장단 연석회의가 지난 20일~22일 사흘간 애틀랜타에서 개최됐다.

20일 애틀랜타 매리엇 마퀴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14개 지역협의회 회장단, 12대 이사회임원, 동남부 지역 선출이사, 18대 집행부, 김형률 준비위원장, 서문원 자문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 권영일 총괄담당, 선보영 교육부 역사문화 담당, 김채영 재외동포재단 주재관 등이 참석했다.

이승민 나스 총회장은 “행사가 우리만의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부기관과의 협력속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할수 있어야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협의회장들은 관망 차원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좋은 사업들을 의논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소통과 교감 속에서 미래를 꿈꾸는 한국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모두들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고은자 나스 이사장은 “나날

이 발전해 가는 나스가 되길 바라며 한분 한분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깊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은 “임직하는 동안 나스 회원들로부터 지난 3년간 은혜를 입었다. 회원들의 열정과 헌신은 나스 발전의 원동력이라 생각한다. 계속해서 분발해 4세대까지 내려가는 한국계 학생들의 성취에 많은 도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채영 주재관은 “한국학교 소속 교사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나스가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룰 수 있도록 후원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동포사업 관계자들은 후진 100년, 전진 100년을 아우르는 교육적 시야를 지녀야 한다. 민족사업의 가장 큰 구심점은 한글교육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 교육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다. 서로간 협력 속에서 나스를 계속 돕겠다”고 말했다. 행사후 정종철 주미대사관 교육관에게는 감사패가 증정됐으며 김형률 준비위원장은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제35회 애틀랜타 나스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2017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주요 사업 일정을 살펴보면 △ SAT II한국어 모의고사 △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백범 김구 일지 독서감상문 △한국역사문화 리더십 캠프 △나의 꿈 말하기 대회 △한국문화 체험관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 △운영자 워크숍 △지역협의회 및 이사회 등이다.



행사 참석자들이 8월 애틀랜타 행사에 대해 한인사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고 있다.
김연정 기자 kim7@atlantachosun.com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동북부지역협의회



박종권 회장

어느덧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교실에서 배우는 역사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는 역사문화교육을 해보자는 취지로 2013년 시작됐다. 매년 힘든 과정을 거쳐 준비되는 까닭에 다음 해에도 다시 할 수 있을까 겁을 낼 정도이지만, 보람과 성과를 생각하면 힘든 과정을 보상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캠프는 8월 말에 열리지만, 역사문화분과위원회의 연구교사 모임은 1년 내내 가동되며 주제 선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온몸으로 심도있게 체험학습토록 공동연구한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의 거의 매주 연구모임을 하며 참가교사 오리엔테이션, 캠프활동지 발간 등 역사문화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다.

1. 제5회 역사문화체험캠프

- 일시: 2017년 8월 24일(목) ~ 26일(토) 2박 3일간
- 장소: Linwood Mac Donald YMCA Camp / 1 Flatbrook Rd, Sandyston, NJ 07826
- 참고: NAKSNEC.org, YTN news (나의 뿌리를 찾아서)



매년 30여 학교에서 1백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

역사문화분과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들은 7월 전국학술대회를 비롯 9월에는 김지선 (세종한국학교) 선생님이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중미/카리브협의회 교사연수회에 역사문화캠프 강사로 파견되었으며, 10월에는 김 선생님 과 최경선 (푸른겨레학교) 선생님 2명이 서북미협의회 (회장 이미숙) 연수회에 초청되어 강의하는 등 축적된 연구 결과물들을 공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포스터〉



동북부협의회는 2016년 허병렬 선생님(앞줄 왼쪽 네번째) 90회 생신을 맞아 한국문화교육 5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했다.

미동부 지역에서 한국문화교육이 뿌리내린지 어언 반세기에 이르렀습니다. 딱히 어느 시점을 원년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만, 1967년 허병렬 선생님(사진)이 뉴욕에서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시작한 시점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꿈이 모아져 설립된 학교가 뉴욕한국학교 (1973년 개교). 이후 한국어 수업과 더불어 역사와 문화수업은 거의 모든 한국학교의 전형적 커리큘럼으로 자리매김 됐다고 평가됩니다.

50주년을 맞아 본 협의회는 그간 축적된 문화교육 자료를 기록물로 남기기 위한 백서발간 사업을 펼치며, 아울러 관련 교재들을 작품으로 꾸며 문화교육을 전파하기 위한 순회전시회 및 강연회를 갖습니다. 우선 동북부지역의 6월 17일과 24일의 뉴욕 및 뉴저지 연수회에서 그 첫선을 보일 예정이며, 8월 10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서도 전시 및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문화교육 50주년 기념사업이 현직 교사들에게 자긍심과 함께 교육적 자극을 주고 후손들에게는 한국문화교육의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3. 청소년 리더십 포럼

동북부 지역 4개교 공동주최

2017년 2월 19 ~ 20일 @ Suffern-Mahwah

한국학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와 한글학습의 동기 부여를 위한 '제1회 청소년 리더십 포럼' 이 지난 2월 19~20일 이틀간 뉴저지주 마와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의 역사 인물을 찾아서-나의 멘토를 찾아라' 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소년 리더십 포럼은 재외동포재단의 맞춤형 지원 사업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 Based Learning)' 주관 학교인 스테튼아일랜드한인학교, 팰리세이드한국학교, 필그림한국학교, 한소망한국학교 4개교가 협력해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 (Project Based Learning)의 학습 결과물을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을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또한 '자신감(Confidence)과 발표기술(Presentation Skills)'

'나는 한인 리더이다(I am a Korean Leader)'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 학생들이 지도자로서의 덕목을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기조 강연자로는 뉴욕차일드센터의 윤성민 박사가 나서 "리더의 성품 찾기" 라는 제목으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청소년 리더십 포럼은 미래의 한국학교 고학년 학생을 위한 의미 있는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동중부지역협의회



심수목 회장

2016년 한글창제 570돌 기념 한글날 행사

재미한국학교 동중부지역협의회 (회장 심수목)는 지난 2016년 10월 8일 한글 창제 570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 어린이들에게 한글날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한민족의 후손임과 한글의 우수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민족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한글날 기념 그림 그리기, 백일장, 한글 디자인 대회를 개최하였다. 호şam에 위치한 영생장로교회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협의회 소속 12개 한국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약 270여 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민주 평통 필라델피아 협의회 (회장 장권일) 후원으로 골든벨 역사퀴즈대회가 함께 열려 풍성한 한글날 잔치의 한마당이 펼쳐졌다.

매년 개최식으로 인해 대회 시간이 지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대회는 개회식 없이 등록을 마치는 대로 바로 각 대회 장소에 들어가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남부뉴저지 통합한국학교 학생들을 인솔해 온 이 학교 정 안젤라 교장은 “개회식 없이 등록을 마치자마자 바로 대회가 진행이 되어 학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대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의 입장에서 진행을 배려해 준 집합부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5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한 백일장 대회는 ‘가을’, ‘엄마’, ‘한글과 나’라는 제목이 주어졌는데 많은 학생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수준 높은 작품들이 배출되었다. 심사를 맡은 필라문인협회 정홍택 회장은 “학생들이 한국학교에서 한글 및 글쓰기 교육을 매우 잘 받은 것 같다”며 “학생들의 문장력과 표현력이 의외로 상당히 높았다”고 평했다.

미술 부문에서는 나이에 따라 저학년은 그림그리기, 고학년은 한글 디자인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심사를 맡은 박홍정 (그림 그리기), 정태숙 (한글 디자인) 심사위원 두 분 모두 홍익대학교 미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전문 미술가들로 학생들의 작품이 너무 독창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무엇보다 학생들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주로 심사에 반영했다고 한다. 고학년이 참가한 백일장과 한글 디자인 대회 대상은 다솜한국학교의 장예린 학생과 임마누엘 한국학교의 이겸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고 이들에게는 뉴욕총영사 상장과 부상도 함께 수여되었다.

오전 대회가 끝난 후에는 영생한국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호기로 모든 참석자들이 즐거운 점심시간을 가졌으며 단체사진촬영을 한 후 민주평통 필라협의회가 후원한 역사 골든벨 대회가 별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미 배부한 예상문제집을 통해 공부하고 참가한 40여 명의 학생들이 열띤 경합을 벌인 결과 양의문 한국학교 박진혁, 박진환 형제가 각각 장원과 부장원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골든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학년 학생들은 ‘도리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한글자막과 함께 관람하였고 이어서 이정애 협의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진행된 시상식 및 폐회식에서 장병기 필라한인회장은 “세종대왕은 지금까지 세계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한다”며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셨듯이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민주 평통 필라협의회 장권일 회장도 “이러한 귀한 행사를 마련해 준 동중부 한국학교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더욱 한국어와 한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계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이 되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년 제15회 한국학교 교사 사은회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학교 교사 사은회 열려

재미한국학교동중부지역협의회(회장 심수목)가 지난 11일 오후 6시 루트 202선상에 있는 윌리엄 펜 인에서 ‘제15회 교사 사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은회에는 지역 한국학교 교사 등 14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해 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심수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여러 선생님들이 주인”이라며 “선생님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일년간 참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승민 총회장은 “2000년에 출범한 동중부지역 협의회가 벌써 16살이 되었는데 20살이 되는 해인 2020년에는 필라에서 전미협의회 38회 학술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히며 “우리 모두 내일을 여는 한국학교 교사가 되자”고 다짐했다.

장병기 필라한인회장은 “한국학교협의회가 최근 한인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한다”며 “나라를 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잘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날 행사에서 설인숙 전직 회장과 코리아위크 허영철 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협의회는 코리아위크가 지난 10월부터 한국학교 특집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한국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고 한국학교를 소개한 공로를 높게 인정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날 사은회에서는 지역 한국학교 교사 24명이 모범교사상을 받았다.

모범교사상을 수상한 교사는 다음과 같다.



김혜영(델라웨어영원한교회), 정은영(랜스데이연합), 조진모, 김현지(필라연합), 김수현, 안혜진(임마누엘), 이선진(성순선지해리스버그), 김인숙(벅스카운티), 허형선(양의문), 조수진(델라웨어), 이지희(영생), 김영의(해밀튼), 김정란, 황수희(기쁨의교회), 이경호(제일한인교회), 신은희, 박유미(남부뉴저지통합), 박희선(다솜), 신혜원, 김지영(안디옥), 류제강(남부뉴저지감리교회), 김나진(초대), 브라이언리(케이컬)

이 밖에 협의회 관련 내용은 naksmac.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미시간지역협의회



김선미 회장

미시간협의회는 미 중서부에 위치하여 중서부협의회 소속이었다가 지난 1992년에 독립된 협의회로 시작하여 현재 약 14개의 학교가 소속되어 있다.

미시간협의회는 작은 협의회인 장점을 살려 학교 간의 유대감을 돈독하게 유지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협의회로 일 년에 여러 행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관련 지식을 높이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다.

미시간 지역의 한국학교들은 남쪽으로는 오하이오의 톨리도 한국학교와 디트로이트 인근 메트로 지역의 다수의 한국학교 그리고 서쪽의 그랜드래피드 지역의 한국학교 그리고 미시간 중부 지역 미드랜드 지역의 한국학교까지 다수의 학교들이 각각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협의회 행사로 지역 한글학교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2회의 교사연수를 주최하는데, 지역의 Michigan State University 대학과 연계하여 하는 춘계 교사연수는 다른 지역의 협의회 자체만의 준비로 하는 교사 연수들과 다른 특이점을 보여준다. 또한 교장 연수와 교장 신년

하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매해 5월에 실시하여 학교마다 일년간 연마한 실력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초대 연사를 모셔 강의를 듣고 제한된 시간으로 하기 어려운 한글학교의 역사 수업을 강의와 퀴즈 대회 그리고 만들기를 통한 통합적 수업을 협의회 차원에서 준비해 제공하는 “미시간 한국학교의 날”을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1.교사연수



2.교장연수



3.신년하례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북가주지역협의회



한희영 회장

〈제23회 한글 백일장 및 제16회 그림그리기대회 & 세종대왕을 알리라 프로젝트 대회〉

제23회 한글 백일장 및 제16회 그림그리기대회 & 세종대왕을 알리라 프로젝트 대회가 지난 2016년 10월 8일 Shadow Cliffs Park에서 500여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백일장, 그림그리기 대회가 열리는 동안, 세종대왕 프로젝트에 출전한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 심사되었고, 대회 후에는 한글을 이용한 예쁜 티셔츠 만들기, 한복 입어 보기, 세종대왕 퀴즈, 퍼즐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 제20기 교사 집중연수회 및 교육자료 공모전 〉

제20기 교사 집중 연수회와 교육자료 공모전의 시상식이 2016년 8월 20일 성 마이클 천주교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집중 연수회에서는 7개의 집중 강의가 이루어졌고, 공모전의 수상자들도 강사로 나서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했다. 공모전 당선 자료는 USB에 담아 참가 교사들에게 보급되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서북미지역협의회



이미숙 회장

1. 한국어 말하기제 및 합창제

재미한국학교 서북미지역협의회에서 매년 5월달에 한국어 말하기 축제 및 합창 경연제가 열린다. 또 4월에 실시한 학력경시대회 입상자 57명에 대한 시상식도 있어 300여 명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가해 어린이날 같은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다.

참가한 학생들은 유창한 한국말과 노래로 열띤 실력을 겨루며 상을 타기 위한 목적보다는 한국어 공부를 하는 어린이, 교사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실력들을 함께 나누는 즐거운 축제의 분위기로 어린이들이 그동안 쌓아온 한국어 실력과 그들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또 즐거운 마음과 팀워크를 키워가며 할 수 있는 합창 노래로 한국어실력을 발휘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은 모두가 상을 받는 푸짐한 날이 되어서 한국어 교육을 받는 학생들과 또 교육하시는 선생님과 부모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취지도 있다.

2. 역사문화캠프

재미한국학교 서북미 지역협의회와 워싱턴주 한미여성회가 공동 주최한 '어린이 역사 문화 캠프'에 서북미 협의회 산하 여러 한국학교 어린이들이 참가해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어린이들은 한국전통 혼례식과 사물놀이에 대해 배운 것을 비롯해 전통 차 마시는 법, 한국 전통 음식 먹는 법, 광복절 역사, 도깨비 강의, 전통놀이마당 등 5개 반으로 나뉘어 현장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3년간 해 왔던 방식과는 달리 일일 캠프 형식으로 새롭게 선을 보였으며 부모들의 참관 없이 학생들만이 각 조별로 정해진 클래스로 들어가 역사, 문화 수업과 함께 체험을 하게 했다. 어린이들이 한국 역사, 문화의 지식을 쌓는데 조금이나마 돕고 이해하도록 현장체험을 곁들였기 때문에 깊이 있는 학습이 되었다.

점심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 불고기와 김치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으며 학생들은 캠프 기념으로 광복 클래스에서 각자 디자인 한 광복 티셔츠와 기념사진, 도깨비 가면, 그리고 각 클래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배지를 받았다.



1.한국어말하기및 합창제



2.역사문화캠프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워싱턴지역협의회



한연성 회장

1. 수업발표대회

본 협의회는 각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수업 노하우를 발굴하고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업발표대회를 2년에 한번씩 합니다.

한국학교 전문성 제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본 협의회는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미국 타 지역의 한국학교협의회 및 한국학교 수업 개선 활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2. 교사의 밤

워싱턴협의회는 이 지역의 90여 개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600여 명의 교사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교사들의 밤을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5년 근속교사 수상, 최우수 교사상, 각 학교의 활동상황을 담은 동영상 상영, 각 종 경품 수상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각 한인단체들과 만남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3. 우수 학교 추천

1)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추천사유: 이 지역에서 많은 새로운 프로그램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운동회, 역사문화캠프 등)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연락처: 이메일 sakkoreanschool@gmail.com 교장: 최규용

2) 중앙한국학교

추천사유: 워싱턴협의회에 등록된 학교 중에 가장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그 노하우를 자랑하고 있다.

연락처: 이메일 kshwa211@gmail.com 교감: 김선화



1.수업발표대회



2.교사의밤-1



3.교사의밤 - 2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중남부지역 협의회



김명숙 회장

중남부 한국학교협의회 (www.msnaks.org) 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의 중남부 지부로 KY, IN, 그리고 OH가 연합하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7년 2월에 중서부협의회에서 분리되어 초대 김용순 회장에 이어 현재 김명숙 회장 아래 모두가 지역 한글, 역사, 문화 교육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매년 한국(한글)학교 교사 세미나, 학생축제, 청소년 리더십 캠프, 문화/역사 퀴즈대회 등이 있습니다.

임원: 회장 김명숙, 부회장 구교성, 총무 이현구, 서기 강형숙, 재무 김승주, 감사 윤한나/이상희, 캠프 director Steve Kim

한국 (한글) 학교 교사 연수회



재미한국학교 중남부 협의회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네트워크 형성, 한글학교 교육/교재등 정보교환 및 최근 한글교육의 흐름을 공유하는 행사로, 해당 지역 교육원과 연계하여 각종 교육원 사업 소개 및 협력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중남부 청소년 리더십 캠프

지역 한인 2세 청소년의 정체성 확립 및 차세대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해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주제 강사의 주제강의와 소그룹 토의, 다양한 강의 및 야외 활동들로 참석한 학생들이 새롭게 자신의 이상과 리더십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중남부 학생축제 지역 한글학교 학생들이 함께 모여 고학년의 꿈 말하기 대회 및 저학년 동화 구연대회가 있고, 더불어 매년 다른 주제로 사생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점심 후 행사지에 따라 각종 게임이나 관람을 합니다. 폐회식에서는 모범학생 및 각종 시상이 있습니다. 중남부 행사 중 참여도가 가장 높은 행사입니다.



2017 행사 일정

- 중남부 회지 발간 (9월, 2016)
 - 학생축제 4월말 29일 (토)
 - 교장회의 일정 5월 20일, 데이톤
 - 청소년 리더십 캠프 6월 둘째주 (6/7 수요일 오후 6/10 토 오전)
 - 닉스 (NAKS) 참석 (8월 10일 ~ 11, 12일 아틀란타)
 - 교사 연수 (9월 23일) - KY
 - 중남부 문화 역사 퀴즈대회 - 10월 28일 토요일 (OH)
- * 문의는 info@msnaks.org로 하시면 됩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중서부지역 협의회



윤현주 회장

〈전통혼례 체험 글짓기대회〉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전통 혼례를 체험하고 이를 주제로 한 글짓기대회를 마련 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9일에 중서부한국학교협의회에서는 한국 전통혼례 체험 글짓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460여 명의 한국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혼례 의식을 체험하고 순서 및 절차, 의미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전통 혼례에 사용되는 물건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족두리, 비녀, 사모, 흥배, 꽃가마, 청사초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 혼례 체험을 주제로 글짓기 대회를 하였습니다.

(사진 1은 전통 혼례 사진, 사진 2는 글짓기 대회 사진)



사진-1 전통혼례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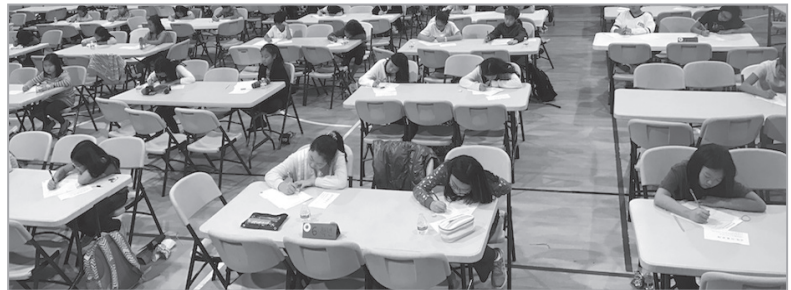


사진-2 글짓기대회

〈오월의 하늘〉 독도를 주제로 한 운동회

2016년 5월 14일에 있었던 '오월의 하늘' 운동회 행사는 독도를 주제로 하여 꾸며졌다. '독도는 우리 땅' 춤을 배우고 여러 종류의 운동회 게임을 통해 독도에 대하여 알아보는 운동회였다. 독도를 찾아라, 독도 퀴즈 보물찾기, 동도와 서도 알아보기, 독도 알림 뱃지만들기 등으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사진-3 독도춤



사진-4 독도게임

중서부협의회 소속 모범학교

- 1) 불타한국학교: 교장: 추은경 (773-896-6973, ekchoo72@gmail.com)
한국의 전통 문화 수업을 잘 해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통 악기, 무용, 음악, 태권도 등 다양한 수업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 2) 하상한국학교: 교장 김지민 (224-306-8331, gommouse@gmail.com)
한국어 수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운영이 잘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콜로라도지역 협의회



유미순 회장

1. 2016년 정기총회
2. 봄학기 교사 연수회
3.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

콜로라도 지역협의회가 주최한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가 2015년 4월 25일 덴버제자한국 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백일장에는 총 7개 한국학교에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내가 좋아하는 한국음식'이라는 주제로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각자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백일장및 그림그리기대회

학술대회

마일 하이 시티인 덴버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34회 재미한국학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가 열렸다. 14개 지역 중 제일 작은 협의회지만, 10년 만에 다시 열린 학술대회에는 60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했다. 특별히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문화체험관"을 열어 많은 지역 주류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함으로써 소개하는 장을 만들어 성과를 보였다.



학술대회

가을학기 교사 연수회

가을학기 교사 연수회가 새문한국학교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문화 및 역사 체험장

콜로라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 문화 및 역사 체험장을 제자 한국학교에서 열었다. 한국 전통의 음악과 문화를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떡메치기, 팥이돌리기, 탈만들기, 고무줄 놀이, 한복 입어보기, 등의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여 학생들이 즐기도록 하였다.



학예발표회

각 학교에서 대표팀들이 모여서 학예발표회를 열었다. 연극, 노래, 태권도, 사물놀이 등 다양한 달란트를 발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교장 연수회 및 교사 사은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로 교사 사은회가 있었다. 교사들과 함께 퀴즈와 게임을 통해 많은 상품을 나눠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김진희 회장

우리 플로리다 지역협의회는 제27차를 맞이한 한글날 글짓기 대회와 더불어 현재 제45차를 맞이한 플로리다 지역 교사수련회를 자랑하고 싶다. 매년 1월, 8월 2차례 열리는 교사수련회를 통해 매 학기 적용 가능한 실질적 한국어 교수법을 습득하고 한국학교 교사의 자세 및 학급 연령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진행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교사수련회를 통해 학교별 상호 네트워킹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 문화 및 한글의 확장 방법을 토론하는 장이 되고 있다.

우리 플로리다 지역협의회는 10월 9일 한글날을 전후로 한글날 글짓기 대회를 치르고 있다. 2016년 제27차를 맞이한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주최 한글날 글짓기 대회 (참가인원 229명)를 통해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주제가 뚜렷하고 생동감 넘치는 표현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한글 사랑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별히 연령별 학교를 대표하여 본선에 참가하여 다른 학교 학생들과 실력을 겨룸으로써 지속적인 한글교육의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수상자 명단:

유 치 부

박수민 (탐파통합 한국학교) - 금상
유은지 (올랜드 푸른동산 한국학교) - 은상
김소울 (올랜드 참좋은 한국학교) - 동상
이애나 (탐파돈보스코 한국학교) - 장려상
고아람 (게인즈빌 한국학교) - 장려상

초 등 부

이신 (탈라하시 한글학교) - 금상
양혜나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 은상
남대빈 (잭슨빌 반석 한국학교) - 동상
김혜나 (올랜드 한국학교) - 장려상
김고은 (올랜드 참좋은 한국학교) - 장려상

중 등 부

송규희 (올랜드 한국학교) - 금상
권가영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 은상
문선경 (탐파통합 한국학교) - 동상
윤지호 (올랜드 푸른동산 한국학교) - 장려상
전아영 (탈라하시 한글학교) - 장려상



고 등 부

이하은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 금상
진찬영 (잭슨빌 아띠 한글학교) - 은상
임요안나 (올랜드 푸른동산 한국학교) - 동상
송예진 (탐파통합 한국학교) - 장려상

2016년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주최 제 27 차 한글날 글짓기 대회
는 모두 10학교가 참여하였습니다. (총 참가 인원수 = 229 명)

1. 잭슨빌 반석 한글학교 (4명)
2. 올랜드 참 좋은 한국학교 (9명)
3. 잭슨빌 제일 침례교회 아띠 한글학교 (9명)
4. 팜비치 늘푸른 한국학교 (16명)
5. 탈라하시 한글학교 (16명)
6. 올랜드 한국학교 (16명)
7. 올랜드 푸른 동산 한국학교 (22명)
8. 탐파 돈보스코 한국학교 (30명)
9. 게인즈빌 한국학교 (31명)
10. 탐파 통합 한국학교 (76명)

* 괄호 안의 숫자는 참여한 학생

각 지역협의회 주요사업 보고 및 계획 – 하와이지역 협의회



손애자 회장

〈 제16회 동요 부르기 대회 〉

2016년 11월 12일

독창, 중창, 합창 총 23팀 160명 출전 학생, 교사 학부모 등 400여 명 참석



〈제2회 한마당 글잔치〉

2016년 10월 8일 오전 10시~오후 3시

아이에아 한인연합감리교회

570돌 한글날을 기념하며 개최한 한마당 글잔치에 오전 10시부터 한자리에 모여 받아쓰기대회, 동시낭송대회, 글짓기대회, 태극기 예쁘게 색칠하기 등 참여 학생 300여 명, 한글날을 기념하며 학교와 가정에서 배우고 익힌 한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한글 창제의 감사함과 우수성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제23회 교사연수회〉

2016년 9월 10일(토) 오후 1시~8시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주제는 ‘새 세대로 나아가는 우리말 우리글’

특강은 강주언 교수의 SAT Subject Test- 한국어 출제경향 및 성공적인 수업전략



〈 제2회한마당글잔치〉



한국인의 긍지, 텍사스 '킬린한국학교'

Since 1975 "무궁토록 발전하는 자랑스러운 미국 속의 한국인 차세대의 배움터"

킬린한국학교 교장 김윤희

좋은 환경, 좋은 교사, 좋은 학생 "킬린한국학교"

킬린한국학교는 공립초등학교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며 아름다운 최고의 교육 환경 시설에서, 사명감과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학부모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교육수준의 향상과 학교의 발전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한인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하며 열정적으로 운영,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표

- * 차세대를 위한 한국어/한국역사/한국문화 교육 및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함양
- *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한국계 글로벌 인재 육성
- * 한국 문화 보급과 홍보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연간 운영 현황

- * 연간 수업일수: 30~32주 (가을 15~16주, 봄 15~16주)
- * 수업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9:10 ~ 오후 12:30 (학기 중)
- * 교육과목: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예능
- * 교육과목: 한국어, 한국역사, 한국문화, 예능
- * 역사/문화 프로그램 - 전통무용, 전통악기, 전통놀이, 종이문화, 역사퀴즈, 역사탈레이, 한식요리
- * 특색 사업 (운영중) 오후 12:30 ~ 오후 1:15
- * 예능 프로그램 - K-Pop, 노래, 밴드, 댄스
- * 멘토링 프로그램 - 특수교육, 특별지도반, 청소년
- * 리더십프로그램, 멘토링
- * 학교 주소: 1910 Herndon Drive, Killeen, TX 76543
- * 우편 주소: 2209 Excel Drive, Killeen, TX 76542

연락처: 교장 (254) 681-4989

교감 (254) 368-0469

교무 (254) 630-3736 KilleenKoreanSchool@gmail.com

킬린한국학교 는

텍사스 주의 중심인 센트럴 텍사스의 킬린 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킬린지역을 중심으로 한인동포들이 밀집한 인근 도시에서 한국어와 한국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한인과 한국계 다문화가정의 2, 3, 4세대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여러 작은 도시들의 중심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킬린한국학교는 역량을 갖춘 사명감에 불타는 훌륭한 교사진들과 열정과 정성으로 자녀들의 배움에 앞장서는 학부모들과 창의적이고도 독창적인 아이디어뱅크인 학생들의 한글과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열의가 넘치는 매우 특별한 학교입니다. 학교 또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교육청 공립학교의 교정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으며 모든 문화생활과 체험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치반에 입학하면 꾸준히 한국학교를 출석하게 하여 결국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잘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우 유익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일지라도 현지 지역행사와 다문화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기 중에 배우고 닦은 한국 전통예술품을 발표하고 선보임으로써 한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사명을 톡톡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남서부지역협의회

알칸사 제자들 한국학교

교사 박인영

문을 박차고 재잘거리며 등교하는 어린아이들, 주눅 주눅 들어오는 청소년들, 자녀들 손잡고 함께 등교하는 아빠들과 한국을 사랑하시는 장년부 영어권 학생들이 함께 모여 알칸사 제자들 한국학교 토요일 한국학교가 시작됩니다.

1교시 조회시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먼저 마음을 모으고 집중하여 예쁜 입을 벌려 한글 찬양을 함께 부르고 교감 선생님의 기도로 시작하지요. 이어서 이야기를 통해 익히는 한자 고사성어 시간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한글에는 한자가 포함 되어있어서 한자 공부는 고급단계의 한글을 익히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EBS에서 만든 초등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역사교육 시간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선생님들에게도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오래전 배웠던 것들을 다시 보며 우리 조국을 생각해보며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지요. 구석기부터 시작해 고조선 발해 고구려 등 삼국시대에서 조선까지 또한 문화와 정치 음식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 역사담당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시험지를 푸는 것으로 역사 시간이 마치게 됩니다.

2교시 한글시간, 맛있는 요구르트와 초코파이 없이는 한글시간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회시간으로 지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웃음과 심을 주기 때문입니다. 1교시에 읽기 중심으로 교과 과정에 맞추어 수업이 진행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교과서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교시에는 초등부를 위해 동요시간으로 동요와 우리 고유의 악기들 장구, 징, 팽과리 등등을 사용하여 우리 장단과 가락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중고등부는 연극 시간을 가지고 한국 전통 연

극등을 미디어를 통해 보면서 직접 대사를 받아 적어 보기도 하면서 자신이 맡을 역할을 집중 연구하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4교시 한글 쓰기 중심의 시간이지요. 일기 숙제를 내주고 검사하며 일기 쓰는 법, 편지, 시 등 쓰기를 연습해 보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5교시에는 모두 함께 태권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외국인 어른까지 함께 모여 사범님의 기합소리에 맞춰 빛나는 눈동자와 날렵한 옷자락의 움직임 뒤에 멋진 품새가 갖춰집니다.

영어권 어른들을 위한 수업은 별도로 2교시부터 4교시까지 쉽 없이 이어집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열기는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열 같습니다.

이렇게 1년을 배운 후 교회에서 한글학교 발표시간을 통해 각반 별로 배운 것을 어른들 앞에서 맘껏 펼쳐놓습니다. 노래로 무용으로 시로 글로 우리 가락으로 한국을 맘껏 뽐어내는 시간입니다. 발표하는 학생들도 즐겁고 관람하는 어른들도 행복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제자들 한글학교의 야외소풍은 우리 전통놀이가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지 경험하는 학습장입니다. 구슬치기, 무우뽑기, 딱지치기, 자치기 등등 놀아보면 너무 재밌어서 점심 먹기도 아까울 만큼 시간이 훌 지나갑니다.

이렇게 한해씩 배우며 자라난 아이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느새 직장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미국에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량과 긍지를 가지고 한국인 공동체와도 잘 어울릴 뿐 아니라 미국사회에도 당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깨닫게 됩니다.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애머스트 한국학교



애머스트 한국학교는, 서부 메사츄세츠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 한인 동포, 그리고 이 지역 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함께 배우고 이해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로서, 유아부부터 중등부까지 약 40여 명의 학생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공부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주 3교시 수업으로, 한국 교과서를 기본으로 국어, 사회, 수학 등을 공부하며, 태권도, 한국 미술, 음악 / 무용등으로 이루어진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든 교사들이 자원 봉사로 애를 써주시고 있습니다.

박철 드림

연락처: koreanamherst@gmail.cojm



동북부지역협의회 신규 회원교 소개

뉴욕성실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신규가입 회원교 중 모범적 성장을 하고 있는 뉴욕성실한국학교를 소개한다. 이제 막 걸음마를 댄 2년 역사이지만, 교장(담임목사)과 디렉터 등 관계자들이 한마음으로 신장적 정체성 못지않게 민족적 정체성 확립에 힘쓰고 있다. 교장 이길호 목사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 개교 2015년 3월
- 소재지 Great Neck in New York
- 학교 웹사이트: www.fcny.tv

2015년 개교 ... “정체성 갖춘 글로벌 리더 육성 목표”

본교는 뉴욕성실장로교회 부속 한국학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근거로 해서 후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역사, 문화, 전통, 예절을 잘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코리안아메리칸의 정체성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 통일 조국을 위해서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나아가서 우리의 2세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2015년 봄, 뜻을 세워 한국학교를 설립했지만 학생 수가 너무 적어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제법 학생수가 늘어나더니 지금은 전체 학생 중 외부 학생이 70퍼센트가 될 정도로 교회 밖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짧은 시간에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전문적이며 성실한 교사진 덕이라고 평가합니다. 선생님들의 충실한 수업과 학생들의 실

력향상으로 인해 주위에서 좋은 평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2학기 제 (봄, 가을학기)로 나누어 한 학기당 14주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3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1, 2교시는 한국어 수업, 3교시는 특별활동 수업으로 전문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한국무용과 판소리를 비롯 민속놀이, 한국음식반, 미술공작반, 주산반, 기타반 등 다양한 특별활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강발표회를 통해 전통무용과 판소리, 동요부르기, 기타 연주와 동화구연 등 여러 방면으로 각 반별 발표회를 통해 학부모들을 초청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우 즐겁게 배우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확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뉴욕성실한국학교는 앞으로 더욱 체계적인 학과과정을 통하여 더욱 전문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본교가 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준 협의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동북부협의회 회원교 소개

성 바오로 정하상 한국학교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는 천주교 부설로 올해 개교 40년을 맞았다. 뉴욕의 한인최대 밀집지역에 자리잡아 학생모집이 안정적이며, 커리큘럼과 교사진도 종교에 상관없이 전문성을 갖고 운영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새롭게 마련된 아름다운 교육관을 한국 학교로 사용하고 있어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40주년을 맞아 고노엘라 교장수녀의 감회와 포부를 듣는다.

〈편집자 주〉

감사와 감사의 40년

“부모 자녀 소통에 밑거름 되는 학교”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문화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한민족의 뿌리를 심어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함으로써 미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긍지를 높이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어느덧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77년 사제관에서 2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한국학교가 이제는 1백 58



〈상단 사진〉

명이라는 큰 규모의 학교로 발전했습니다. 때맞춰 성 바오로 정하상 한국학교는 2015년에 성당 내에 교육관을 신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말해주듯 사랑과 열정이 많은 선생님들의 노고와 토요일마다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도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포기하지 않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당에 나오는 어떤 학생은 부모님에게 “왜 나는 일주일 모두 학교를 다녀야 해요?” 하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월~금요일은 일반 학교, 토요일에는 한국학교, 일요일에는 성당 주일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일마다 학교에 나와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특별활동을 찾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즐겁게 변화시켜가는 학생들을 보면 대견하기만 합니다.

미주한인사회에서 언어문제로 부모와 자녀 간 점점 사라지는 대화와 소통을 이곳 한국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로 좀 더 가족이 화목해 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주신 본당 신부님과 뉴욕 한국교육원, 재외동포재단, 동북부협의회,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성 바오로 정하상 한국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 노엘라 수녀/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장

미시간지역협의회

디트로이트세종학교

- 교장 - 김선미
- 설립연도 - 1972년 3월4일
- 위치 - 메트로 디트로이트 지역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1972년에 세종대왕의 정신을 본받아 바른 한인 후세를 키우자는 뜻을 가진 분들에 의해 설립되어 올해로 45년을 맞이하는 미시간을 대표하는 긴 역사의 지역 한국학교이다. 디트로이트 세종학교는 오랜 역사와 더불어 많은 동문을 배출해 미국의 곳곳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현재 약 180여 명의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수업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 반까지 하고 있으며, 수업내용은 한국어 시간과 한국 동요배우기, 한국 무용,태권도, 사물놀이 그리고 난타 시간을 통하여 한국의 전통과 얼을 익히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동요 부르기 대회, 글짓기 대회, 새해 행사, 추석 행사, 개교기념일 행사로 역사 지식을

거루는 “세종 골든벨”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학교 문집 발간과 한 학기에 2회에 걸쳐 학교 신문 발간을 하고 있으며 학기말 “세종 예술제”와 종강일에 가지는 “세종장터” 등의 행사들이 있다. 또한 지역 학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역사, 문화 지식을 함께 나누는 역사 프로그램으로 “세종역사문화캠프”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협의회 차원의 한국학교를 위한 역사,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 개학식과 예술제 및 세종문집과 세종역사문화캠프〉



워싱턴지역협의회 모범학교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Olney, MD)

1978년 개교한 본교는 워싱턴 지역의 가장 오래된 한국학교의 하나로서 한국어 교육을 통한 뿌리교육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학교의 이념은 “뿌리를 꽃피우는 한국인”이며 미국에서 성공하는 한인 2세가 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인식하고 한국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며 한국의 전통문화, 역사,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도록 한인 2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다. 현재 매주 토요일 오전 3시간씩 가을 학기와 봄학기 각각 15주씩 운영하며 12개의 정규학

급과 2개의 성인반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본교는 한인 2세 어린이들이 가장 명랑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시설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존중받으며 배운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본교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 것을 학생들이 성장한 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말 한국학교의 가장 큰 제약은 3시간이라는 짧은 교육시간이다. 가르칠 것은 많고 시간은 없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한국어 교육 자체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한국어 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등의 콘텐츠를 한국어 교육에 융합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학급에서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교실마다 인터넷과 computer projector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학교 운영의 안정성: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힘든 일 중의 하나는 학생들을 한국학교에 계속 다니게 하는 것과 학년별 교육의 연계성이다.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유아, 유치반에 다닐 때는 한국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성을 보이다가도 차츰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관심도가 떨어지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초등 3, 4학년 이후가 되면 아예 한국학교를 그만두게 되어 그나마 조금 배운 한국어를 모두 잊어버리고 한글 문맹자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무관심하다가 뒤늦게 초등학교 3, 4학년 이후에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입학시

켰다가 자녀들이 다니기 싫어하고 학부모도 열성이 부족하여 결국 1년 이내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다 보니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본교에서는 과거에 임시방편적으로 편입생들을 위하여 운영하던 기초반, 중급반 등의 학급 운영 제도를 완전히 폐기하였다. 그 대신 6년 전부터 미국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아, 유치반부터 학년별로 학급을 구성하고 한국어 교육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학급 14명의 정원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학년제 등록과 입학제도로 전환시켰다. 즉, 매년 4월 당해연도의 가을 학기 신입생은 유아반을 중심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초등, 중등반 편입생의 경우 적절한 진단 평가를 치르게 하여 어느 정도 한국어 기초가 있어야 입학시키고 또한 본인이 한국학교에 다니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은 죽어도 다니기 싫은데 부모의 의지에 의하여 억지로 한국학교에 다니게 되어 한국어 공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게 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가을 학기가 끝나고 봄학기가 시작될 때에는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교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담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학교는 아무 때나 마음이 내키면 입학시키기도 하고 그만둘 수도 있는 곳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면서 현재는 정규한국어반 12개 학급이 대체로 안정화 되었고 retention rate 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역지사지(易地思之) 개념의 한국어 교육: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주일 내내 학교생활을 하고 토요일 아침에 또다시 한국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일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 부모가 한국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어나 오는 경우가 특히 초등-중학생들에 해당된다고 본다. 이렇게 착한 학생들에게 한국학교에서의 3시간이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본교에서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였고 이를 위해서 첫째 교사가 재미있게 가르칠 것, 둘째 학생

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도록 하여 매주 토요일 친구들 만나는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할 것, 셋째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등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실의 책상배치를 C-자로 하여 모든 학생들이 서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좋은 효과를 얻었다. 여기에 추가된 중요한 것은 1교시 후의 간식이다. 어린 학생들은 성장기에 있는데다가 친구들과 공부하다가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본교의 자모회에서는 각 반별로 학부모 봉사자들이 매주 돌아가며 다양한 종류의 간식을 준비하여 전교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이지만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며 먹는 간식은 아주 특별한 추억과 한국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크다.

교육행사: 본교의 각 학급에서는 교사들의 재량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있으나 몇 개의 인접 학급들이 함께 하는 활동도 많다. 예를 들면 '시장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기초적인 경제관념을 가르치고 육심부리지 않고 나누는 마음도 가르치며 매년 가을 학기에는 김치 깎두기 담그는 법 배워보기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한다. 전교생이 함께하는 문화 행사로는 추석 송편 만들기, 설날 세배 예절 배우기가 있다. 또한 해마다 3.1절이 들어있는 주에는 전교생이 태극기를 만들어 보고 함께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함치게 세번씩 부르는 행사를 함으로써 조상들이 일제의 탄압에 저항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을에는 전통 한국식 운동회를 개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를 마련한다. 특별 프로그램으로 본교에서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읽기 대회'가 있는데 이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반에서 예선을 거친 후 전교생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선 경연을 통하여 읽기 실력을 겨루어보는 대회이다. 2016년 열린 첫 대회에서는 본선에 출전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회를 참관한 모든 학생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다.

한국어 교육 결과 평가: 학생들의 한국어 실력을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의 4개 영

역에 대하여 성취도를 평가하는 Learning Outcomes Assessment 제도를 도입하여 매학기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고 있다. 각 언어영역을 학년별로 좀더 상세한 항목으로 나누어 평정 4.0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각 학생 개인이 학급 전체 수준에서 어떠한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각 항목별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과거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성적표 양식에서 아주 잘함-잘함-보통-못함-아주 못함 등의 정성적 평가법을 지양하고 평가 지표를 수치화함으로써 각 개인과 학급별로 한국어 교육 성취도를 수치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한국학교에서 각 학생의 행동발달 사항도 여러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평점화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습 교재 개발과 활용: 본교의 또 한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은 자체 교재 개발이다. 특히 인성교육을 위하여 사자소학(四字小學)을 편집하여 책자로 만들었고 그 내용을 한국어 교육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다. 사자소학은 원문의 한자가 너무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서 학생들이 그 뜻을 배우고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한자 150자를 30자씩 5권에 나누어 편집하여 교재로 만들어 초등 4학년 이상부터 가르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한자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글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재외동포재단의 맞춤형 사업지원을 받아 "한국인의 미국 이민역사와 나"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고등반에서 교재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의 많은 한국학교에도 보급한바 있다. 이 책자는 한인 2세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재로 부터 과거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이며 왜 미국에서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고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의 역사문화 캠프'를 열어 조선시대의 기록문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의궤문화와 고지도 문화에 대하여 학생들이 배우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특별 교육을 통하여 한인 2세 학생들을 지적(知的)으로 자극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 활동의 기록: 본교의 전통으로 자리잡은 것은 매년 발행하는 교지 (Yearbook)이다. 주말 한국학교의 취약점이라 할 수 있는 기록과 보존을 교지 발간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즉, 교지는 단순히 학생들의 글을 게재하는 기능이 아니라 1년간 일어났던 한국학교의 많은 행사와 활동, 담임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글과 다양한 사진을 상세하게 게재함으로써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문서가 되도록 하였다. 매년 5월 종업식에 맞추어 발간되는 교지는 60-80 페이지의 분량으로 편집되어 교사, 학부모에게 배포된다.

학부모와의 소통 노력: 한국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학부모와의 소통과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본교에서는 자모회의 활성화와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교양 세미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학부모 백일장, 학부모 한글 경시대회 등을 통하여 한국학교라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수업과 survey를 실시하여 한국학교 교육의 개선점을 청취하여 이를 교육에 반영하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그들은 잠재적인 한국학교의 인적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자발적으로 한국학교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우수한 교사의 확보: 한국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한국어 교사의 확보이다. 또한 교사들이 오랫동안 한국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교에서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 현직 공립학교 교사들로서 정규 학교에서의 교육방식을 한국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과 지적 능력 개발에 플러스 알파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주말 한국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봉사의 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므로 본교에서는 교사들에게 최선의 대우를 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학교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들이 오랫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교사간에 화목한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본교는 매우 복이 많은 학교이다.

또한 본교의 졸업생들은 보조교사로서 사회봉사 기회를 가지며 한국어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 제도: 한국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주중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학급 학생들의 지도 이외의 학교 행사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부담이 되고 어렵다. 본교는 운영위원회 제도를 마련하여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하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행사는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는 2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이기도 하며 교사 경력을 가진 분들로서 비상시 교사를 대신하여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교내의 학술 행사 기획, 운영을 맡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교지발간, 특별 프로그램 개발, 학습교재 편찬등 운영위원회가 맡은 임무가 매우 많으며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본교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

성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최규용 교장
choi@umd.edu
sakkoreanschool@gmail.com



한국의 역사문화 캠프
의궤문화 탐구: 학생들이 을묘화성원행반차도의 부분을 재현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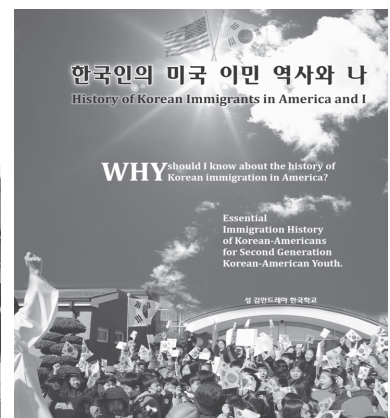
삼일절 만세 부르기. 유아-고등반에 이르는 전교생이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부른다.



2016년 성 김안드레아 한국학교 전교생과 교사 단체 사진



2016년 제1회 교내 읽기 대회 본선에 참가한 어린이의 발표 모습. 주어진 2개의 지문을 정확히 주어진 시간 내에 읽는 것을 겨루어 보는 대회이다.



한국인의 이민 역사와 나 교재 커버

동중부지역협의회

회원교 소개 1 -

기쁨의 교회 한국학교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 만든다

설립 3년 만에 대형 한국학교 성장, 소수 정원제로 최적화된 반편성

이 지역 한국학교들이 학생수 감소와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개교 3년 만에 학생 수 120명에 육박하는 대형 한국학교로 급 성장한 곳이 있다. 웨스트 노리튼에 있는 기쁨의 교회 한국학교.

이 학교는 지난 2013년 70여명의 학생으로 9개 반을 편성해 문을 열었고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지난 가을학기에는 총 115명의 학생에 15개 반으로 편성돼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이 학교는 교회 부설 한국학교라는 태생적 한계까지 뛰어넘었다. 많은 수의 한국학교들이 소속된 교회의 교인 자녀들로 교실을 채우는 데 비해 기쁨의 교회 한국학교는 학생의 약 40%가 해당 교회의 교인 자녀가 아니다. 또 이번 가을 학기부터는 한인 자녀가 아닌, 타 민족 성인 학생 8명으로 구성된 성인반까지 개설됐다.

이는 이 학교가 교회 내 부설기관이라는 한계를 넘어 필라 지역의 한인 2세와 3세는 물론 주류사회에까지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전파하는 열린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한인 부모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개학 때만 되면 입학 신청이 몰려들고 있다. 대부분의 다른 한국학교들이 사전 입학 신청을 받아 반을 미리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기

에 들어가면서 반을 편성해 나가는데 반해 이 학교는 학기 시작 전에 입학신청을 마무리하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반 편성까지 끝낸 뒤 수업을 시작한다. 따라서 등록 마감일을 넘길 경우 정원초과로 인해 자녀의 실력에 맞는 반에 배정받기가 힘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기쁨의 교회 한국학교 유재범 교감은 “개강하기 최소 1개월 전에 등록을 마감하면서 학생들 수준에 맞는 반을 편성하고 교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재 연구 및 커리큘럼을 작성하는 등 수업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철저히 반별 소수 정원제를 실시해 현재 반별 인원이 유아반의 경우 평균 6명, 초등반은 평균 8명으로 구성되는 등 인원 배정을 최적화시켰다. 이렇게 해야 담임교사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고 각 학생의 개별 활동에도 별도의 지도가 가능하다. 또 이 학교는 각 반별로 보조교사도 1명씩 배치해 담임 교사가 학생을 더욱 철저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교사진들 또한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15명의 담임교사 중 9명의 교사가 이미 한국에서 일선 교사 경험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6명은 교육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와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 최소 1회 이상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내용과 학생들의 활동상황, 숙제 등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평가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가정에서의 학습에 대한 상호 피

드백(Feedback)을 통해 학습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이 학교는 대외적인 활동보다는 수업에 충실한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15주간의 학기 운영 기간 동안 한국어와 한국 문화, 역사를 알차게 가르치기 위해 가능한 한 대외적인 행사는 지양하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봄 재미한국학교 동중부 지역협의회에서 주최한 동요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고 동화구연대회에서 은상을, 전 미주 한국학교협의회 주최 정주영 에세이 공모전에서 은상을 수상하면서 대외적으로도 학교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물론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봄에는 <전통문화 체험캠프>를 통해 이 학교 학생들이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미국 어린이들까지 참여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실제 체험해보는 행사를 가지고 가을에는 <가을 운동회>를 통해 아이들의 놀이문화와 친구들 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유재범 교감은 “학생들이 한국학교를 떠올릴 때 재미있는 곳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고 흥겨운 수업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며 “그래야 우리 2세들에게 한국학교가 기다려지고 가고 싶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모님들께는 자녀를 한국학교에 보내면서 한국어 실력이 쑥쑥 향상되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원교 소개 2 -

초대 한국학교

초대한국학교에는 다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처음 발을 딛는 아이들은 즐겁게 놀고 싶은 토요일을 빼앗긴 불만으로 한국학교 생활을 시작하지만 2~3주가 지나면서부터 표정이 바뀝니다. 아이들의 토요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때로는 어머니가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서 밝고 친근한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하는 과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선생님들의 표정도 다릅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리기도 하고, 목회자 사모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섬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인을 보여주고 가르친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 밝고 자신 있는 표정,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 무한 사랑하는 웃음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부모들의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토요일 오전 시간을 보내거나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사는 한인으로서의 삶을 한 세대 먼저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한국학교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선생님들의 준비입니다. 토요일 5시간의 수업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모여서 회의하고 돌아가서 교재를 준비합니다. 다음 학기 교육을 위해서 방학기간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더 성장된 교육환경으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계속 회의하면서 함께 준비합니다. 한국어와 문화와 역사, 그리고 다양한 특별활동반이 가능한 이유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철저한 준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백설기라는 단어를 가르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백설기를 먹습니다. 땀기 머리를 가르치기 위해 자녀들의 머리를 땀습니다. 암행어사 제도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마패를 만들어서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치기도 하

고, 연극으로 만들어서 그 시대를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한국전통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형문화재를 모시고 강의를 듣고, 태권도는 지역 사회에서 도장을 운영하는 사범이 직접 와서 시범과 더불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지역의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음악 공연을 주최하고,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학부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토요일 오전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맡겨진 자녀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참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매끼마다 정성스럽게 지어진 밥과 반찬으로 자녀들이 공동의 식사를 즐깁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즐거운 식단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초대한국학교는 초대교회가 개척 설립된 후 많은 고민과 기도의 결과로 탄생되었습니다. 교회의 구색을 맞추는 사역이 아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민사회에서 대부분의 한국학교는 교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초대한국학교 역시 초대교회의 지역사회에 대한 섬김과 헌신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학교 운영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학교를 결국 교회 성장의 도구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실은 초대한국학교가 가장 경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학교의 교육목적과 교회의 선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한국학교를 전도의 목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과

가 좋지 못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교회가 재정과 인적자원을 사용해서 한국학교를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녀들과 공유하는데 있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없고, 지역사회가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인적자원과 물질적자원은 ‘공공재’(公共財)입니다. 개교회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역교회가 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필요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학교는 교회의 성장이 아닌, 이웃의 필요를 돕는 섬김의 사역입니다.

따라서 한국학교와 교회의 관계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어야 합니다. 비록 교회가 설립했지만 교회와는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사역해야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포괄적인 사역을 감당한다면 한국학교는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돕습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국학교는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문화를 교육해서 ‘세계 속에서 자라나는 건강한 한국인’으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 목적과 사역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학교에 요구되는 것은 ‘이민사회’ 자체에 대한 학습과 연구입니다. 요즘 이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속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외치고 가르쳤던



‘한국’을 요즘 자녀들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한국을 배우고 익히는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대중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K-pop이나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혹은 미국매체에 노출되는 한국에 대한 소식으로 자녀들은 한국을 배웁니다. 한국학교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정체성 혹은 소위 ‘한국열’은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쉽게 만들어지고 소비됩니다. 민족정신과 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한국을 배우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겠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국

학교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학교가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바로 이 문제들입니다. 한국에서 가르치고 소비하는 문화가 아니라, 이민자로 살면서 한국인으로서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역사와 문화와 가정이 무엇인지를 한국학교의 틀에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500만 이민자의 시대에 ‘한국에 의존한 한국인 교육’이 아닌 ‘이민자로서의 한국인 교육’이 연구되고 교육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한국학교의 고민이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모를 한국학교

에서 정신없이 교실들을 뛰어다니며 장난치던 개구쟁이 소년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보조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쁜 학교생활을 쫓아 매주 토요일 한국을 배우던 학생에서 지금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미국에서 자랐지만 바른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예의범절을 지키는 그 청년에게서 한국학교의 미래를 봅니다. 보람을 찾습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한국학교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땀 흘려야 할 참가지치는 사역입니다.

남서부지역협의회 모범학교

포트워스 한국학교

포트워스 한국학교가 개교 30년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여는 창문” 5호 교지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포트워스 한국학교가 존재하고 운영되어 오면서, 지역 사회를 위해 좋은 결실을 맺고 있음은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의 교육열과 뒤에서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도움의 손길들의 공로가 컸으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고 한류 문화가 급부상하는 이때 우리의 모국어 보급이 더욱 필요하며, 우리 한글학교들은 2세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더욱 열과 성의를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트워스 한국학교도 지역 한글학교들과 밀접히 연관을 맺고, 상호 협조하며, 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학기별로 한글과 문화체험, 전통예절 습득 등을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교한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는 저희 포트워스 한국 학교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 주고, 한글과 한국 문화를 가르침으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주류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학교는 자라나는 차세대 교육에 더욱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2세들의 한인 교육에 앞장서 가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열리는

재미 한인 학교 연수 교육과 이 지역의 다양한 연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교사 훈련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된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지도해 주시며, 그러한 선생님들을 통해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을 전수할 수 있기까지는 배후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공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2세 교육에 전념하며, 이끌어 올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모든 지역 인사님, 선생님, 학부모님, 조교, 또 장소 및 시설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한마음 교회 목사님과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포트워스 한국학교 교장 김미령

워싱턴지역협의회 모범학교

중앙 한국학교

(The Central Korean School)

본교는 버지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여, 건전한 정체감 형성으로 Korean-American으로서 거주국의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는 교육 목표를 가지고 2000년 9월 11일 버지니아

중앙장로교회 부속학교로서 다시 개교하여 한인 2세 어린이 학생들의 한국어와 뿌리 교육을 맡아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학교로 성장해 왔다. 현재 260여 명이 등록하여 특별활동 시간 포함 매주 토요일 9:00부터 1:30까지 공부하고 있다. 학급편성은 유치부 (별님, 무지개, 해님,

은하수, 달님), 유년부 (초롱, 거북선, 무궁화, 태극, 색동), 초등부 (꽃신, 땀기, 연지, 곤지, 족두리), 소년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로 되어 있으며 학년을 기초로 일단 나누고 다시 레벨별로 나누어 학생들이 각자의 학년, 한국어 수준별로 나누어져 편안한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음악교사가 따로 있어 돌아가며 하는 음악 수업은 학생들이 한국학교에 오고 싶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동안 워싱턴한국교육원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었던 성인반은 레벨별로 3개 학급(훈민정음 1, 2, 3)으로 운영되어 한국어를 배울 기회를 놓친 학부모, 성인, 외국인이 자기 수준에 맞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기회가 되고 있다.

중앙한국학교의 다양한 행사는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신감, 질서 교육, 인성교육, 협동심, 남을 배려하는 마음 등을 배울 수 있으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많은 기여

를 하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애국가부르기 대회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은 인원수가 같이 참여하며 미국 땅에서 소리높여 애국가를 자녀와 함께 부르며 마음 속의 진한 감동을 서로 느끼는 행사가 되었고, 한국어 말하기잔치를 통해 학생들은 친구들 앞에서 한국어로 시낭송, 동화구연, 나의 꿈 말하기, 자신의 생각 말하기를 하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은 연중 프로젝트로 한국 상장을 나타내는 것을 반별로 조사하고 공부하여 한국상징표현대회를 통해 발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 저학년 학생들은 동요부르기 대회를 통해 서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설날에 맞추어 진행되는 중앙민속놀이는 30여 가지의 민속놀이를 반별로 부스를 만들고 교사, 학부모, 학생은 한복을 입고 나이에 맞는 민속놀이를 교사가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고, 학부모님들은 부스를 관리, 떡국까지 끓여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PTA 주관 시장놀이는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 쓰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모아 가지고 와 누군가와 나누는 과정에서 근검절약을 배우고, 교실에서는 학습태도에 따라 받는 포인트 제도를 통해 자기 관리를 배우고, 직접 시장놀이의 현장에서 한국 화폐단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일 년을 마무리하는 종업식 전날 학부모, 학생, 교사가 힘을 모아 하는 행사로 유치부부터 성인반 학생 모두가 일년동안 기다리는 행사이다.

또한 중앙한국학교는 연방정부에서 비영리단체로 인가된 학교로 매년 봉사하는 학생보조교사들에게 대통령봉사장을 수여하고, 학교 기준에 따라 졸업생을 배출하며 워싱턴 지역에서 내실이 튼튼한 학교로 성장하기 위해 전 교사진이 노력하고 있다.



중남부지역협의회 모범학교

루이빌 한국학교

학교의 특성

루이빌 한국학교는 재미한국학교 산하, 켄터키 한인회 소속 통합 학교로 켄터키 루이빌지역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교사와 학생 대부분이 이곳 지역 사회의 2세, 1.5세, 입양인, 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설립연도는 1990

년이고, 지난해 25주년 행사를 루이빌 시장의 축하선언과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른 지역과 비슷하게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부에서 중등부, 성인반까지 6-7개의 학급(유치부 1, 초등부 3- Kinder & 1 학년, 2 & 3 학년, 4 & 5 학년, 성인반 2)이 개설되어 있고, 교사는 정규 교사 6-7 분과 문화 수업 선생님 3분이 계십니다. 특별 활동으로 태권도, 풍물놀이, 서예, 미술, 산수가 있으며, 역사 및 문화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특별 행사가 있을 때는 한국 무용도 배워 지역 행사에 우리의 문화 소개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목표와 철학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곳 켄터키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선구자의 역할을 함으로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사, 스태프 recruiting과 훈련

주변 지인을 통해 경력자 우선 선발, 인

티뷰 과정을 거치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가에 대해 5분 정도 샘플 강의를 하게 합니다.

학기 시작하기 전 8월에 2번의 교사 회의를 통해 교수법 및 학생 지도 훈련, 교사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학생지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려 노력 합니다.

교육과목 및 교육과정, 특별활동

1, 2 교사: 한국어
3교사: 역사, 문화
특별활동:
한국 미술, 붓글씨(사군자), 태권도, 사물놀이, 산수, 성인 대화반, 한국 무용

이사 유무 유
이사장: 서성교 회장님

이사: 윤기로, 서우남, 김영훈, 김운경, 최경주, 강정인, 이춘자, Bob Eagle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는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학부모회를 자랑거리로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 도움을 주십니다.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주의에서 벗어나 국 하나라도 모두 조금씩 끓여오면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그런 정신으로 모두 같이 학교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매달 한 번씩 미팅을 여시고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은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연락이 오가면서 학생들의 상황을 체크하십니다.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행사의 하나로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지 역사회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학교를 알

리고 매해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께 학부모님들께서 손수 음식을 하여 대접하는 행사인데, 티켓은 아주 적은 돈에 팔지만 이기회를 통해 켄터키 미국 사회와 한인 사회에 한국 학교를 알리고 또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날은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이 사님, 학부모님 모두가 참여 하고 일을 같이 도움으로서 우리 학교가 모범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처:

교장 윤한나 270-872-9203

hannatyun@gmail.com

학교 주소: 5937 Six Mile Ln. Louisville, Kentucky 40218

학교 이 메일 or facebook ; louisville-koreanschool@gmail.com



하와이지역협의회 모범학교 오사랑 한국학교

저희 오사랑한국학교는 40명의 학생과 14명의 정, 부교사로 이루어진 하와이 호놀룰루 지역에 위치한 재하와이한인학교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입니다. 오사랑한국학교는 소그룹 (각 반 최대6명) 소수 정원제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교육 부분은 수업시작 전 조회시간을 통해 애국가를 시작으로 역사관련 DVD관람 등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대한민국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으며, '애국

가' '독도는 우리땅'을 목청껏 불러보며 역사와 애국심을 함양해 가고 있습니다. 미술 (액티비티) 시간은 사군자 그리기, 동시 외우기, 동시 쓰기 등으로 우리의 예술과 문화를 익혀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사랑한국학교에서 특화된 수업은 글짓기 반입니다. 수업시간에 쓴 작품들을 동시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자작시를 낭송하기도 하고, 하와이한인문인협회의 시화전에도 저희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행사에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저희 학교 자체 글짓기작품전을 열기도 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사랑한국학교는 각종 대회 (동시경연대회, 나의 꿈 말하기대회, 동요대회, 시화전)에 적극 참여하여 학생들의 발표력을 향상시키고, 한인사회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성장해 가는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지역협의회 모범학교 사모아 한글학교

저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아메리칸 사모아에 살고 있는 사모아 한글학교 교장 권선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한글학교를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 섬은 너무 작아서 세계지도에서 점도 찍을 수 없는 작은 섬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이곳에 사는 전체 한인 수는 해마다 줄어서 지금은 약 13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학교 학생수도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 지금은 전교생이 14명입니다. 봉사 하

는 선생님 수는 7명입니다. 학생 수 대비 선생님 수가 많아서 학생들 하나하나 살펴봐 눈높이 교육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대부분이 학부모님들께서 봉사를 하고 계셔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듯 열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들이 영어 만큼이나 한국어어를 잘 이해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수업을 통해 한국의 뿌리에 대한 이해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소속되어 있는 하와이 협의회 주체 글짓기 대회에 매년 참가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수상을 했습니다. 글짓기를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게 평소에 일기쓰기를 지도하고 한글학

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빌린 책을 반납할 때 독후감을 창의적으로 쓸 수 있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곳 환경이 많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즐겁게 한글교육을 받으며 정성을 쏟은만큼 학생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어서 저는 무척 보람을 느낍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사모아 한글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글교육을 위해 힘쓰고 계신 전세계 한글 학교 교사님들 화이팅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아 한글학교 교장 권선희

하와이지역협의회 모범학교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미주 한인이민역사와 맥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1903년 설립) 부설 하와이 한인 사회학교는 1970년에 설립되어 한국어 교육을 통해 한국문화와 민족의 얼을 전수하고 나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한다는 교육목표 아래 하와이 코리안 커

뮤니티가 함께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설에는 '얼맛이 행사'를 갖고 유치부, 초등,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교 어르신들께 세배를 드리면서 한국 명절 문화 체험을 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윷놀이, 제기차기, 연 만들기, 투호 등의 전통놀이문화도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 고유의 설에 웃어른들께 공경하며 이웃간의 덕담을 나누는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교장 최현규



북가주지역협의회 모퉁이돌 한국학교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의회 소속 모퉁이돌 한국학교는 세계적인 교육의 중심지, 스탠포드 지역에서 2005년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 소속으로 설립되어 금요일 저녁 수업하는 학교로 첫발을 내디뎠다.

모퉁이돌은 건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돌로, 모퉁이돌 한국학교도 이런 의미를 갖고 설립되어 한국인의 정체성의 기본이 되고 모국에 대한 뿌리 교육의 기초인 한국어와 모국인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만나는 학교로 성장 발전하여, 2011학년도에는 교회로부터 독립하여 자체 이사회를 구성하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새로운 학교 체계로 운영하게 되었다.

현재 모퉁이돌 한국학교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40분까지 7개 반이 수준별로 수업하며, 특별활동으로는 창작 미술반, 동요 율동반, 사물놀이반, 종이접기반, 사진반, 태권도반이 열정있는 교사들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격월로 반별 <부모님

과 함께하는 도전! 한국 역사 퀴즈 대회>, 매월 <교내 교사 연수: 햇갈리는 맞춤법>를 실시하여 교사와 부모와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고 있고, 해마다 큰 주제인 <생각나는 대한민국>에 소 주제별로 맛 멋 소리 씬 인물 등을 정하여 <생각나는 대한민국 _ 맛> 편에서는 한국 전통 음식 체험의 날을 절기에 맞춰 실시하여 직접 송편, 인절미, 김밥 만두 약식 고추장 된장 등을 직접 만들어 보며 음식 예절 문화도 배우고, 올해는 인물 편에서 미주, 특히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펼쳐진 독립운동가에 대하여 배우고 학생들이 직접 제출한 역사 문제로 퀴즈대회도 진행되었다. 앞으로 모퉁이돌 한국학교는 부모와 나의 이야기를 우리의 차세대들이 이 땅에서 당당히 펼치기 위해 교사들은 끊임없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사랑으로 선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땅의 보배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기 위해 원리와 원칙에 기초한 다양하고 흥미 있는 학습자 참여 수업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것이며, 그래서 학교명처럼 학문의 기준이 되는 초석을 다져줄 것이다.



남서부지역협의회

한인학교가 내게 가르쳐준것은..

〈오클라호마 한인 학교 교사의 글 - 윤수연 교장〉

1991년 9월 미국에서의 첫 보름달. 하교길 하이웨이에서 마주한 어마어마한 달은 흡사 내가 달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이 내 시야의 지평선을 꽉 메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단 한번도 볼 수 없었던 그 큰달이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모든 것이 낯설고 설레던 첫 미국생활이 아직도 생생한데 25번의 대보름달이 뜨고 졌으며 어느덧 올해로 오클라호마에서 한인학교를 섬기며 봉사한지 2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여정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길어진 지금, 저의 미국생활이 그냥 살기에 바빴던 것이 아니고 한인학교라는 터전에 뿌리내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을 봉사해 온 노고를 치하해 주시지만 사실 제가 학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보다 이방인으로서 제 삶이 허투르지 않게 묶을 주고 저를 가르쳐 준 학교에 감사한 마음으로 글 문을 열어봅니다.

한인학교가 내게 가르쳐준 건 수고가 아닌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학교 초창기, '가나다'를 가르치면 금방이라도 실력이 늘어 부모 간 언어 소통에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무모함을 깨달으며 내겐 너무나 당연한 한글을 또 다른 제 2의 언어로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 무심하고 당연했던 한글을 깊이 있게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더니 그냥 익숙했던 모든 것이 값있고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런 깨달음을 학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딱 맞는 교재도 없고, 체계화된 틀도 없었기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많은 고충이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작한 한글학교라 남편의 외조는 필수요 우리 아이들의 동행은 운명이었기에 혹여 학교가 문 닫게 될까 싶어 세 아이 모두 산 후 휴가는 엄두도 못 내고 갓난이들을 데리고 젖을 물리며 수업을 진행해 온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시절 어린 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자기 자녀를 학생으로 등록하고 한인학교에 대한 추억이 그들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어 있음을 볼 때 제가 참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습니다. 이 수고는 저에게 삶의 열매이며 가슴 벅찬 보람입니다.

한인학교가 내게 가르쳐준 건 혼자서 아닌 함께 하는 삶이었습니다. 한인학교에는 늘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 교육에 대한 열정,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베푸는 넉넉함이 어우러진 동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늘 긍정의 에너지로 충전받고 인생을 마주하는 지혜도 배우며 학교와 함께한 세월 만큼 저도 철이 들어가고 있음을 배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이 귀한 토요일을 쓴다면 널브러져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주말여행과 여가로 즐길 수도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좋은 분들과 힘을 합해 한인학교가 표류하지 않고 쉬지 않는 항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의논하고 고민하는 만남은 그 어떤 즐거움을 쫓는 모임보다 값지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의 전통문화 수업은 전공자가 아니면 가르치기 어려워 선생님이 없어 위기가 올 것도 운영진 선생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배우고 연습하며 수업을 이어갔고 이에 잘 커 준 학생들이 선배로서 선생님이 되어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그만두었다면 오클라호마에서 한국을 알리는 문화 외교 사절단으로서 디딤돌이 되어 온 지금의 부채춤도 장구 소리도 들을 수 없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뜻을 지녔어도 함께 할 동역자가 없다면 쉬이 지치고 주저앉았을 텐데 이렇듯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이 만남에는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한인학교가 내게 가르쳐준 건 포기가 아닌 끈기였습니다.

일주일 4시간 수업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언어적 천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4시간이 한 달이 되고 한 학년이 되면서 학생들의 지성과 감성이 성장합니다. 한인학교를 통한 시간들이 쌓여 말은 서툴러도 부모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며 주중 학교와 달리 집 반찬을 싸 오는 한인학교 점심 도시락은 학생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기도 합니다. 이 즐거움은 자칫 다름에서 오는 편견에서 자유로워지고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다름을 포용해 가는 큰 그릇이 됩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필요하게 될 때 단시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듯 편안하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거쳐 간 졸업생들을 볼 때 배우는 것이 더딘 것만 같아도 학교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10여 년씩을 다닌 아이들을 보면 어느덧 아이들 하나하나가 이미 우리들의 문화유산이 되어있고 스스로가 계승되어야 할 전통을 품고 있음을 봅니다. 단시간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 조급한 마음을 먹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학교와 함께 한 학생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도 요즘은 한국 정부가 재외 동포들에게 갖는 관심과 지원도 높아지고 시대적으로 타 문화권에서도 K-Pop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이 생겨 우리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것을 공감해 준다는 것은 자존감을 높일 뿐 아니라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들의 성장기 어느 한 페이지에 기록될 한인학교에서의 경험과 추억, 그리고 실력을 통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인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 지식만이 아닌 꿈이 있는 미래입니다.

오클라호마 한인학교 학부모의 글

이옥선

“강지우 어머님! 제가 보았을 때 지우는 한국에서 태어나 살다 가 미국에 몇 년 잠시 다녀온 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여름 7살 지우가 한 달 동안 다녔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친구들에게 이별을 고하는 지우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제 직장 일로 한국에서 두 달을 지내는 동안,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한 달 밖에 가 본 적이 없는 이제 미국 나이로 7살 반 되는 저희 아이 지우를 한국의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 시켜 한 달동안 다니게 하였습니다. 데이케어에서 부터 7살까지 7년을 미국 아이들과 미국 학교만을 다닌 녀석이 한국 학교에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부모로서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달의 한국 학교 수업과정을 마치고 돌아서는 날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미국에서만 자란 저희 아이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오클라호마 한인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많은 자원봉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토요 한인학교가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사를 오자마자 아이를 등록시키고, 태권도, 사물놀이, 한글, 한국화, 서예, 미술반, 한국 무용, 가야금 등 미국에서 자라나는 한인 2세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자원봉사 선생님들의 열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미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Korean-American으로 태어나 미국 아이들과 자라나는 녀석이 같은 피부색과 언어, 문화를 가진 한국 친구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 날을 매일 손꼽아 기다리면서 토요일 아침, 학교가방 보다 무거운 한글학교 가방을 메고, 학교에는 가져가지 않았던 한국 음식이 든 도시락을 들고, 가벼운 발걸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토요일 아침 한글학교를 가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한인학교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인 학교에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내 나라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역사와 한국 역사를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가려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뭉클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장구채를 잡고 사물놀이 옷을 입고 또래의 한국 친구들과 University of Oklahoma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할 때의 감동 또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나 자기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며 여러 민족 앞에서 우리나라 악기로 우리나라 음악을 공연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의 한국, 한국인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Thanksgiving Day 보다 한인학교에서 추석 송편을 만들고, 새해 만두 빚는 날을 더 기다리는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해 줄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한인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열정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본인의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한인 아이들

의 정체성을 고민하시면서, 본인의 병원 건물 지하를 한인학교를 위해서 기꺼이 헌납해주시고, 오클라호마 한인 이세들의 정체성을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뿌리 깊은 근간을 마련해 주신 최 박사님과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뿌리신 씨앗이 어른이 되어서도 어디에 살든지 우리 아이들의 가슴속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자랑스럽게 여김과 동시에 오클라호마 한인학교에서 확립된 정체성을 바탕으로, 타민족과 문화에 대한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여 국제화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로 자라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바람이 머물다 간 들판에 모락모락 피어나는 저녁연가...”
오늘도 한인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자연스럽게 부르며 작은 손으로 레고를 만들며 놓고 있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려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자] 강의를 마치고

북가주협의회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교사 문난모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여쭙보셨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학교 교사로 일하면서 무척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텐데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 고비를 넘기셨습니까? 나누어주실 비법이 있나요?
그 자리에서는 인지부조화이론과 신앙적인 이야기로 답변했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아 과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고심해 보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젊은 시절 이후로 계속 우울증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의 <천지창조> 그림을 보면 압도하는 아름다움에 어지러운 정도이지만, 나중에 그린 성당 앞쪽 벽에 그린 <최후의 심판> 그림에는 그의 냉소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점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그림 그리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예술가로서 작품을 만들어냈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목이 쉬어라 교실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고심 끝에 얻은 결론은 바로 “사명감”과 그 사명의 “실천으로 인한 기쁨”이 그 원동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지닐 때 일에 대한 내적 동기는 한층 강해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 그 자체에서 기쁨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면서도 “행복”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복으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은 고되지만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경험입니다. 여우의 신포도와 같은 정당화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표현은 실로 정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 처럼 /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괴롭지만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기 원했던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것도 같습니다.

지난 학기 학교 문집을 내면서 실었던 글이 있습니다. “저는 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꿈은★이루어진다는거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좋은 교사가 되는 꿈입니다. 실력있는 교사는 어쩌면 단시간에 될 수 있어도, 좋은 교사가 되는 데는 평생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차가 높아지면 경력 있는 교사는 될 수 있겠지만 저절로 좋은 교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심어린 눈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앞으로 닥칠 어떠한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제 꿈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학생들도 제가 연수 강의를 통해 곱씹으며 깨달은 ‘괴로움과 행복’의 진실을 알고 실천하고 있겠지요. (

학술대회와 집중연수를 처음으로 참여하고나서

북가주협의회 산호세천주교한국학교 교사 양봉준

“한국학교 왜 다녀?” “엄마가 가라고 해서요.” “한국말 배우면 뭐 하고 싶어.” “음....가족과 얘기를? 한국 여행할?” 우연히 하게 된 한국학교 선생님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막연히 대학교 시절 하던 과외만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던 나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종류의 학생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한국인이니까 한국말은 알아야지? 그다지 피부로 와 닿지

않는 한국인의 정체성과 민족적 자긍심 등의 이유가 과연 애들에게 충분한 배움의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없다’ 였다.

자신의 정체성 고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한국말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한국말 배우기’에의 동기를 가지게 할 수 있을까? ‘한국말 배우기’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을 하는 데 필요한 수단일 뿐 말 배우기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럼 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스스로 ‘한국말 배우기’가 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에 꼭 필요한 수단이 될까? 집중연수와 학술대회는 나의 이런 고민이 공유되고 있고, 끊임없이 효과적인 교육의 방법이 모색되고 시도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 ‘선생님들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나를 뜨겁게 하고 낯설다. 그렇지만 강의를 하시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에게서는 그 ‘열정과 헌신’을 느낄 수 있었다. 집중연수와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미국에 사는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한국의 정서를 공감하게 할까를 의논하는 것은 ‘과연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한국학교 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하였다. 한국학교 선생님 1년, 나는 아직 내가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렵다. 하지만, 나의 고민이 여러 선생님과 공유되고 있고, 물어보는 질문에 ‘열정과 헌신’과 더불어 웃음과 공감으로 답해 줄 선생님들이 있다는 건 대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 같은 주제를 고민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선생님들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랬을 것이다. 대회는 내가 다녀본 여러 학회 중 참여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가장 밝았던 학회로 기억된다.

남서부지역협의회 영락한글학교

한글 4반 담임:오수연

지난주 우리학교 전교생 만들기 수업 ~ 실내화 꾸미기!

만들기를 하다 보면 개성 만점 우리 아이들의 성격이 한눈에 보인다. 선생 눈에 예쁘다고 아이들 눈에 예쁜 것도 아니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해도 서로 얼마나 다른 아이디어들이 나오는지 참 신기하다. 하나하나 꼼꼼히 칠하는 녀석, 조금만 색이 번져도 울상이 녀석도 있고, 빨리 하고 옆 친구와 수다를 떨기 위해 날림(?)으로 10분 만에 완성을 하는 녀석까지~ 그래도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재미있고 흐뭇하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 만들기가 끝나서 다 모아 놓고 보니 제법이네! 얼마나 오래 신을지 몰라도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실내화... 애들아~ 다음주는 또 열심히 토크 예상문제를 공부해 보자!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Slow and Steady

워싱턴 지역협의회 한 연 성

책상에 앉으면 늘 라디오를 귀에 끼고 공부 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 나이에는 밤 늦게 책상에 앉아 있는 것이 고등학생들의 일상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한창 자랄 나이에 수면 시간은 거의 5시간 내외였다. 대학을 앞두고 가득 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라디오 청취.

라디오 프로에 빠지다 보면 공부가 뒷 전 일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호랑이 엄마는 귀신같이 알고 한마디 하신다.

“배움에는 나이가 있단다.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여러가지 제약이 따른다.” 고.

한국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면 학생들의 한국어 공부를 하는 시기를 묻는 부모들이 있다.

오랜 시간 교사의 경험으로 보면 가장 좋

은 시기가 “지금” 이라고 대답한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1학년을 시작하면서 자기 주장이 강해질 때 시작을 하여 중학생이 되기 전에 학생들의 머릿속에 한국어와 배움의 중요성을 남겨야 한다고 조언을 하곤 한다. 이미 고등학생이 되면 시간도 없지만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본인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진다.

가정에서 어린 나이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부모의 영향이 90% 이상인 걸 보면 한국어 교육도 부모의 생각이 90% 이상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해 나이가 들어버린 학생을 데리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부모들을 쉽게 만난다. 다른 경우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학생이 한국학교를 싫어한다고 그제 마치 학생의 이유인 양 학교를 그만두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 학생의 이유보다도 부모의 귀찮음이 답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부모가 게으르면 학생이 미국에 살면서 두 개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한국어, 문화, 역사 교육을 하자면 다른 어느 곳이 한국학교보다 더 나은 장소인지 생각을 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가장 자연스런 교육이 한국어 교육 (정규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되도록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다. 내 자신이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한 단계의 과정이 3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집에서 노력을 하면 보다 빨리 습득할 수 있겠지만 수업만으로는 그런 결과를 보았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는 자연히 Slow and Steady교육이 되고 만다.

오늘도 워싱턴지역의 한국학교의 교정에는 하얀 꽃들이 만개했다. 우리의 뿌리교육이 이 꽃들처럼 만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말마다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한국학교 등교하도록 도와주는 학부모님과 사랑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린다.

뉴잉글랜드 협의회 글짓기 대회 2016 [총영사상]

사랑하는 가족에게

천주교 한국학교 9학년 김유지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나” 4학년인 제 동생에게 가족이란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어린 초등학생인 동생에게는 무조건 가족은 같이 사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귀여운 동생, 사랑스런 엄마, 자상하신 아빠 하지만, 저에게는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부모님도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한국에서 자랐습니다.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은, 제가 4살 때 아빠가 MIT에서 직업을 잡아서 이사 오게 된 것입니다. 아빠가 혼자서 보스턴에서 1년 정도 살다가, 엄마와 함께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2년 후,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 MA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이사를 2번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크게 우리의 생활이 바뀌지는 않았습

니다. 저에게는 미국으로 오기 제일 힘들었던 이유는 제 사촌을 떠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 사촌은 저와 동갑이고, 우리는 같은 빌딩에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층, 우리가족은 1층, 사촌과 고모, 그리고 고모부는 3층. 우리는 유치원도 함께 다니고, 함께 놀고,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저와 제 사촌은 정말로 단짝 친구였습니다. 아무리 어렸어도, 제 친구, 그리고 제 사촌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나 슬펐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이를 먹고, 더 커서 돌아보니, 저의 슬픔과 아쉬움은 제 부모님의 아쉬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 친구, 집, 동네, 아는 것을 모두 놓고 온 제 부모님께서는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의 12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2-3년씩마다 갑니다. 어렵습니다. 2-3년에 한번씩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족일 수가 있는 지 저는 궁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을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사촌들을 보면 바로 알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마음에 너무 사랑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촌을 떠나서 미국으로 왔을 때에는 아쉬웠지만, 한국으로 가서 얼굴을 보면, 어렸을 때처럼 단짝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지구 반대쪽에 있다는 일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생일날 때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끔씩은 제 사촌을 보고 싶어서 부모님께, “우리 한국 또 언제 가요? 우리 빨리 가요.” 라고 조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기분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꼭 자주 봐야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 사랑과 행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촌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가족이 되 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는 언제까지나 내 단짝 친구일지야. 사랑하고, 한국에서 멀리 있어도, 나는 너를 매일매일 생각하고 있어. 나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해.

[9학년 대상]

사랑하는 가족에게

권지한국학교 김동영

어렸을 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의 나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뭔가 의미심장한 단어가 되었다. 유년시절,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철 없었던 그때의 나는 친할머니와 아버지의 손에서 동생과 함께 자랐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 어머니에 대해 여쭙봐도 돌아오는 건 그저 텅 빈 공기소리 뿐, 그 누구도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초등학교 부모님 참관 수업 일이나 체육대회 때 내 빈 옆자리를 매꿔주셨던 건 어머니 대신 아버지와 고모였고, 녹내장을 앓고 계시던 할머니는 눈이 잘 보이지시지 않으셨지만 항상 어린 나와 동생을 정성으로 보살펴 주셨다. 사실 아버지는 항상 일에 바빠 늦은 밤에 들어오셨기에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기억은 집에서 아버지의 등을 밟거나 근처 공원에 놀러가 돼지바를 먹었던 기억 뿐이다. 유년시절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의 사랑이 절실했지만, 그 사랑을 대신 채워주신 나의 할머니. 반찬투정을 하거나 괜한 이유없는 성질을 부릴 때도 항상 나를 감싸 안아주신 나의 할머니... 작은 몸집이었지만 누구보다 넓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주신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내게 있어서 할머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고 나는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할머니께 드릴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저 내가 가장 사랑을 받고 싶었을 시기에 주지 못하셨던 사랑이 조금 많이 아

쉬울 뿐이다. 어머니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 갈 때쯤 나의 눈 앞에 모습을 들어내셨다. 갑자기 나타나신 어머니, 그리고 나의 눈 앞에서 눈물을 똑똑 흘리시는 그 모습. 그 동안의 서러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조금 어머니가 미워도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었을까. 나의 눈가도 붉게 변하며 눈에서 떨어지는 나의 눈물이 내 눈앞을 가리워 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안 어머니는 미국에서 나와 내 동생을 더 좋은 교육을 받기 원하셔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신 뒤 우리에게 연락을 하셨다는 것이다. 그 때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 무엇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하지만 결국 어른들의 강요 때문에 나는 현재 미국에서 사랑하는 어머님과 같이 지내고 있고, 어머니 없이 외로이 보내던 나의 어린 시절, 시간이 약이라고 쳐도 그 외로움은 절대 못 고치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또 나를 사랑해주던 나의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시절을 버릴 수 있었다. 내가 싫어하는 가족 따위는 없다. 나는 나의 가족 모두를 사랑하고 좋아한다.

“가족”이란 단어가 지금의 나에게 더욱 더 의미심장한 이유는 아마도 나에게 그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어느 자연히 Slow and Steady교육이 되고 만다.

오늘도 워싱턴지역의 한국학교의 교정에는 하얀 꽃들이 만개했다. 우리의 뿌리교육이 이 꽃들처럼 만발하기를 기대하면서 주말마다 학생들과 씨름하면서 한국학교 등교하도록 도와주신 학부모님과 사랑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제18회 미동북부 한국어 글짓기대회

(2016년 10월 18일) 대상

성 김대건 한국학교 7학년 한제인

보통 스마트폰과는 “중독”, “시간낭비”와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하지만, 저는 스마트폰과는 “추억”, 그리고 “연결” 같은 단어들이 떠올라요.

저는 작년 겨울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할머니 장례식을 했고, 스마트폰을 특히 많이 썼어요.

한국에 있던 어느 날, 저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 사진으로 올라갈수록 어릴 때 한국 놀러와서 찍은 사진들을 찾게 되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와 찍어 놓은 사진들이 특히 많았지요. 저는 이 사진들이 아직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조차도 까먹고 있었어요. 옛날에 찍은 이 사진들의 추억에 저는 눈에 눈물이 가득 찼어요. 찍을 때는 그렇게 찍기 싫었던 사진들을 찍어놔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저는 사진정리를 다시 시작했고, 할머니가 계신 사진이 보일 때마다 코 끝이 찡했어요.

며칠 후 저는 친구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많이 받게 되었어요.

어디갔냐고 아픈거냐고 학교는 왜 안오는거냐고...저는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한국에 잠깐 있다가 간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의 문자메세지 소리에 잤어요. 무엇인지 봤더니, 제 친구들이 모인 그룹 채팅방에 한 명이 비디오를 보내줬어요. 그 비디오는 저의 모든 친구들이 한국 노래 “지나간다”를 부르고 있었어요. 미국 친구들이 한국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심장은 춤을 추고 눈물이 눈 앞을 가렸어요. 비디오 끝에 친구들이 다 영어발음 한국어로 우리친구 화이팅하고 응원해줬어요. 저는 그 겨울 스마트폰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스마트폰은 시간을 낭비하고 게임에 중독시키는 기구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지요. 저는 그 겨울 스마트폰 덕분에 할머니와 보낸 추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과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겨울,

스마트폰에 저장할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지요.

동충부지역 협의회 - 2016년 백일장 대회 대상 수상작

“한글과 나”



장예진 (다송한국학교)

저는 한 살때 이민해서 그런지 한국의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모든 어릴 적 기억들은 뉴욕에서 부터 펜실베이니아까지, 미국이라는 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치원 전부터 쓰고 배운 언어는 한국어였습니다. 어린 저에게 가장 행복한 기억은 제가 처음으로 한글을 혼자서 읽는 법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던 선생님과 함께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영어만 쓰는 학교를 간 후에도 저의 부모님은 저에게 한글로 가득찬 만화책, 그림책, 소설책등 항상 저의 방을 한국문화로 채우셨습니다. 한국학교는 물론 한국역사 과외 같은 것도 시키셨습니다. 부족한 형편에 왜 그렇게 까지 하나, 한국에서 키우는 것도 아니면서 영어는 안 쓰고 왜 한국어만 시키냐 등 그 당시에 지켜보는 분들이 저의 부모님께 말했다는군요. 저도 사실 크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남들 다 쉬고 노는 주말에 또 학교를 가야하지? 학교 친구들의 부모님은 영어숙제 같은거 다 봐주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한국책만 보여주시지? 한국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자랐으니까, 당연히 미국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저의 엄마 아빠는 들은채 하지도 않으시며 한국어를 끈임없이 고집하셨습니다.

저는다른 아이들과 함께 워싱턴 대통령을 배우며 집에서 세종대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미국음식을 사먹고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신 한국음식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디즈니영화와 옛날 한국 만화를 보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저는 늘 한글이 있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하며 트다보니 조금씩 무언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1.5세, 2세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란 것을 깨달았고, 독도나 세월호 같은 일들을 알거나 관심 갖는 교포들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말을 못하니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이민가정들은 가족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친구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향한 감사만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 우쭐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쭐해하는 태도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들을 어디에 쓸수있을까? 하 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기회들을 주셨을까?” 곧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저는 이나라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는 날, 독도가 엄연히 우리나라의 땅으로 인정되는 날 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교포 친구들이 한국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루어 지려면 먼저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로 소망하셨습니다. 때문에 한글은 저에게 그만큼 더 소중합니다. 저도 세종대왕님의 뜻을 품은 한국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글은 저의 믿음을 확신케 하는 소중한 선물이자 저의 정체성의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중서부협의회 학생글

“나 만의 왕자를 찾겠다.”

이데레사 (7학년-하상한국학교)

전통혼례를 처음 본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단계에 의미가 담겨 있는 것과전통혼례에서는 결혼을 축하하는 많은 물건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입장식부터 결혼식에 끝까지 눈이 안 떨어지는 이후에는 느낀 점이 들어옵니다. 신랑이 말을 타고 나옵니다 그것을 본 저는 왕자가 말을 타는 이야기가 머리에 들어왔습니다. 공주는 찾긴 찾아야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자기랑 결혼 할 것인지를 머릿속에 생각하는 왕자랑 생각이 다름 없습니다. 결혼할 사람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고민이 둘 다 많을 것입니다.

신부는 공주로 머리 숙여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랑 결혼 하라고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멋있나? 아

니면 두꺼비처럼 못 생겼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할 수 없이 시집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본 저는 전통혼례를 반대 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 생각도 아주 중요 하지만 자신의 생각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 결혼을 한다면 부모님도 인정하고 저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을 보거나 만지지도 못하고 결혼하는 것은 진짜 싫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좋아해도 그렇지,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는 행복이 달아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제가 영원히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이면, 제 생각에는 종이에 새겨져 있는 제 삶을 꾸겨서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지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삶의 의미에 행복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야기 속에 부모가 결혼할 사람을 정해 주는 처녀가 공주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할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얘기도 무조건 들어 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저는 전통혼례에 작은 입장식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로서 왕관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 나만의 왕자를 찾고 싶습니다.

제23회 북가주 협의회 학생 백일장 대회 으뜸상

엄마

북가주 협의회 뉴비전 한국학교 김유라

나는 눈을 살포시 감았다. 바다 바람이 내 얼굴을 살며시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그때 장난기가 발동을 했다. “오빠, 오빠 우리 시험할까? 오빠가 귀찮은듯이 한 눈을 뜨며 말했다. “저기 성까지 누가 더 빨리 날 수 있는지 시험하자!”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시작” 내 “작” 이 끝나기 전에 오빠가 먼저 출발을 했다. 뒤늦게 내 하얀 날개를 편 나는 심술이 났다. “오빠! 반칙! 반칙!” 나는 웃으며 오빠 뒤를 따랐다. 오빠의 날개는 천국에서 떨어진 눈송이처럼 하얗다 하얗다. 오빠의 눈은 내 눈처럼 반짝이는 검정 구슬과 같았다. 나는 날개짓을 열심히 하면서 아래를 한번 힐끔 쳐다봤다. 푸른 바다가 햇빛에 비추어 반짝거렸다. 바다 냄새는 언제 맡아도 익숙한 좋은 냄새였다. 짠 소금과 신선한 바람 그 둘이 완벽한 조화 바로 내 고향에 냄새를 이루었다.

아이쿠! 내가 세 살 밖에 위인 오빠를 너무 알았나보다. 어느새 그 푸른 성에 다다른 오빠는 벌써 우리 둘이 먹을 점심거리를 찾고 있었다. 뒤늦게 도착한 나는 오늘의 수확을 눈여겨보았다. “음 역시 독도에는 맛난게 많아” 오빠가 조그만한 은색 물고기를 부리에 물으며 말했다. “독도? 그게 뭔데?” “어휴 니유야 그게 바로 이 섬이라고” 와 우리오빠 지유는 모르는게 없는 갈매기였다. “알았어요 척척박사님 빨리 점심이나 주세요.”

맛있는 물고기를 먹는 도중에 나는 질문이 떠올랐다. “지유오빠, 우리 부모님은?” 처음에는 오빠는 조용했다. “오빠, 우리 엄마는?” 참을성 없는 내가 다시 물었다. “없” 바람이 불었다. 시간이 지났다. “뭐? 그게 무슨말이야? 우리 아빠는 어디있는데? 어?” 나는 어리둥절함에 고개를 갸우뚱 거렸다. “몰라 물어보지마!” 오빠는 나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날아갔다. “자, 잠깐” 너무 나도 놀랜 나는 울음을 터트렸다.

한참을 울고 있는데 오느 목소리가 들렸다. “애, 울지마” 깊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눈물 콧물 번쩍인 나는 울음을 뚝 그쳤다. “누구세요?” 날개로 눈을 닦으며 360도 고개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여기야 여기. 너의 밑을 봐.” 나는 목소리의 지시를 따라 밑을 보았더니 빨간 불가사리가 있었다. 그 불가사리는 바다 안에 다른 바다 생물들이랑 같이 있었으나 나이가 있어 보였고 특히 빛이 났다. “나는 너를 알아.

너가 태어난날, 오빠가 태어난 날, 그리고 너의 부모님이 결혼한 날도 알지” “정말, 정말이요?” 나는 바닷속으로 기울었다. “암 그럼 너의 부모님은 바로 여기, 독도에서 결혼식을 치렀고 오빠의 탄생도 보았지. 하지만 어느날 “빨강 불가사리아저씨가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이번에는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렸다. “어느날 욕심쟁이 사냥꾼이 …” 나는 뒤를 들을 필요도 없었다. 사냥꾼이 내 부모님을 총으로 쏜 죽인 것이다. “으앙!” 또 다시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내 울음으로 독도를 가라안칠까봐 걱정이 됐다. 갈매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사람은 갈매기 두 마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되냐고, 서러운 생각들이 머리를 뱅글뱅글 맴돌았다.

그때 불가사리아저씨가 두 팔로 박수를 한 번 쳤다. “아!” 나는 울음을 그쳤다. 귀를 쫑긋세웠다. “왜요, 왜요?”

“엄마는 살아 있을 확률이 있을 것이다. 엄마가 그랬다. 서도에 등지에서 보기를 … 그때 오빠가 내 곁으로 날아왔다.

“서도로 가자” 오빠는 모든 것을 들은 것이었다. 역시 우리 오빠.

우리는 대답없이 즉시 서도로 출발했다. 서도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오빠를 뒤따라 저번 강주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았다. 한, 시속 천킬로미터로 난 것 같았다. 서도에 가면 엄마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각에, 마음이 쿵쿵거렸다. “오빠도 못찾았어? 나도.” 풀이 죽은 나는 또 울려고 숨을 들이쉬 순간! 비단보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유? 니유?” “엄마!” 오빠가 엄마품으로 날아왔다. “엄마?”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를 말해보았다. 엄마가 나에게 조심스레 날아와서 살며시 나를 안았다. 따뜻한 갈매기털, 독도의 냄새, 엄마냄새, 엄마에 애정과 사랑이 나에게 와 닿았다. “엄마,” 나는 엄마를 한번 더 불러 보았다.

엄마, 지유오빠와 나 니유는 서도에 자리 잡아 집을 만들었다. 안타깝게도 아빠는 총에 쏘였지만 엄마가 어디냐? “엄마, 엄마, 엄마” “니유야? 그동안 힘들었지? 순간 오빠와 나 엄마는 어느때 보다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름다운 가족의 완성체. 불가사리아저씨, 감사합니다. 오빠,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요. 엄마, 엄마, 엄마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이름 엄마.

서북미 협의회 - 졸업하는학생의글

~ 사랑하는 무궁화 한국학교 후배들에게 ~

졸업생 박지은

지난 한국학교 생활들을 회상해 보면 나는 한국학교에서 다양하고 신나는 방법으로 공부했던 기억들로 가슴이 벅차다.

나는 어릴 적부터 한국학교에 다녔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문화, 문법, 역사, 등등 ...한국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고 대한민국의 매력을 확실히 느꼈다.

현신을 다하시는 선생님들과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의 모습들이

매우 보기 좋았고 그 생생한 기억들이 나의 마음속에 그대로 담겨져있다.

한국학교 생활은 너무 즐거웠고 사랑하는 동생들에게 꼭 한국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추천하고 싶다.

“애들아, 힘들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라, 분명히 보람이 있을꺼야.”

본 학교를 추천하는 사유는 서북미지역에 40년의 오랜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교로 끊임없는 질적향상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교장이름: 권순우(253) 886-4027

이메일주소: fwmc1004@hotmail.com



남서부지역협의회

2016년 제15회

백일장 대상 수상작

“김치”

칼린한국학교 이해나

김치는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음식 중 하나입니다. 김치의 독특한 맛은 이제 세계의 많은 나라에 알려져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백김치, 오이김치, 물김치, 부추김치, 파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역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다양한 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배추김치입니다. 배추김치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엄마가 집에서 직접 김치를 만드시는 것을 옆에서 보게 됩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물에 몇 시간 동안 절이고 고춧가루, 파, 마

늘, 생각, 젓갈, 그리고 찹쌀가루 물을 섞어서 양념장을 만들고 소금에 절여 배추에 골고루 바릅니다. 김치를 만들어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며칠 동안 숙성 시킨 후에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드신 맛있는 김치를 매일 반찬으로 먹고 찌개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김치와 함께 먹으면 고기도 너무 맛있게 먹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매 식사 때마다 먹습니다.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놀라운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발효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인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김치는 한국의 음식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김치 인기는 점점 늘어나면서 더 많은 외국인들이 김치를 찾고 있습니다. 다양한 김치를 맛보고 한국의 음식 문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자랑스런 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한국의 우수한 문화도 함께 알려야 하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설 자리

워싱턴통합MD

정지인 (Angelina Chung, 9학년, 15세)

나는 지금 <미국국제연구소>에서 한반도 전문가로 일하고 있다. 어려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통일을 바라며 남한과 북한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현재 그 꿈을 이루게 된 후에 통일이 된 남한과 북한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통일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노래가 어렴풋이 기억난다. 한민족으로서 반드시 하나가 되자는 한마음으로 국이 통일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가치였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 한국을 “통일한국”이라 부르게 되었다. 통일한국은 경제, 생활, 문화, 정치 등 많은 부분이 변화되었다. 초반에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인 차이때문에 많은 어려움

을 겪었지만 북한 특유의 부지런함으로 몇년만에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 한국은 1950년대네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남한의 경제력과 기술력,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합쳐져 엄청난 경제발전으로 7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생활적으로는 대륙과 철도 연결이 되어 기차를 타고 유럽여행을 가고 평양으로 기차타고 출퇴근을 하는 등 생활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광범위해졌다. 통일 후에 남한과 북한간에 크고 작은 다툼이 자주 벌어졌지만 우리 조상들이 재빨리 발전하고 유입되는 서구문명에 적응했듯이 북한사람들도 순발력으로 세계화에 발빠르게 적응했다.

또한 남한을 잇는 백두대간과 예전에 비무장지대였던 곳이 최고의 청정지역, 자연공원으로 인정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

이 전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잡아먹었던 국방비의 감소로 의료보험,서민복지,세계 기아 문제들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서 통일 한국은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선망받는 나라로 발전을 하였다.

또한 국방장관들과 우수한 군사학자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면서 통일한국은 국방강국으로 감히 다른 나라들이 엄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나는 지금 통일한국이 너무나 자랑스롭니다. 오십 평생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이렇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던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통일한국을 위해 현재 몸담고 있는 미국과 조상의 나라 한국을 돕고자 나도 계속 통일한국을 대표하는 한 사람들 중에 열심히 일할 것이다.

전라북도 체험 후기

정선호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지난해 12월 전라북도에서 주최한 ‘한미 중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방문은 나에게 정말 특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혼자 하는 여행이라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정말 잘 한 것 같다.

내가 본 한국은 어른들을 통해 들었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공항이 웅장했고 현대적이어서 조금 충격을 받았다. 처음 느껴보는 겨울 날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금세 상쾌함으로 다가왔다. 낯설 것 같았던 한국은 마중나온 누나를 만나면서 서서히 편안해졌다. 누나는 정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전주에 있는 숙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먹은 치즈 돈가스는 정말 맛있었다. 너무 빨리 많이 먹어서인지 멀미를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 이후로도 나의 돈가스 사랑은 계속 되었다. 너무 늦게 도착해서 바로 잠

자리에 들었다.

우리는 대승 한지마을에서 지냈는데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는데 내가 제일 막내였다.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언어를 쓰며 다른 문화를 배우며 살았지만 우리 한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금방 친해졌다. 난 꼭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우리는 간단하게 아침을 먹은 후 한지 만들기 체험을 하며 연필꽃이도 만들고 한지도 직접 만들어 보았다.

처음으로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한국문화는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그리고 자유 시간에 본 한국의 길거리 문화는 정말 부러웠다. 많은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이 하와이에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으로 먹은 순두부찌개는 부드럽고 고소한 두부의 맛이 최고였다. 저녁식사 후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온 우리는 씨름도 하고 매운 라면도 먹고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로 탐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우리는 춘향 테마 공원에 가서

예전 건물들과 그네를 보고 전통 게임들을 체험해 보았다

한글학교에서 전에 해 보았던 게임이라서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치즈 테마공원에서 직접 만든 피자는 너무 맛있었다.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함께하고 팀별 게임을 하며 추억을 쌓아갔다.

마지막 날 우리 채석장에 갔다가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 갔었는데 갑자기 한국 역사가 궁금해져서 한국 역사책을 한 권 샀다. 이 날은 왠지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분이었다. 이 짧은 시간에 낯선 사람들과 이렇게 정이 들 수 있다니 정말 나도 믿기 힘든 일이다. 급기야 난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나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흑흑.. 정말 아쉬운 시간
들은 흘러가서 우리는 또 다시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이제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난 내가 한국인임을 알았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생겨났다. 또한 혼자
서 처음으로 한 여행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갖게 되었고 낯선 곳 낯선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친화력도 생겼다.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일정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다음에 다시 한번 꼭 참여하고 싶다.



하와이 협의회

2016 한마당 글잔치 글짓기 부문 중급 최우수상 수상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모아 한글학교 8학년 이하늘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가 두 명, 그리고 우리 집 막내이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딸인 나, 이렇게 다섯 명 이었는
데 둘째 오빠가 7월에 결혼하여 새 언니까지 하면 이제 여섯 명
이 되었다. 새 언니는 엄마와 아빠에게 나랑 똑같이 엄마, 아빠
라고 한다.

아빠는 다른 사람들에게 새 언니를 소개 시킬 때 잃어 버렸던 딸
을 26년 만에 찾았다고 하시며 내 딸이라고 하신다.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 엄마와 나는 오빠 결혼식 때문
에 방학 하자마자 한국으로 가게 되었다.

엄마는 오빠 결혼식 준비 하며 틈을 내어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
게 되었는데 의사선생님이 폐에 문제가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다
시 검진을 받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엄마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
원에 다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 하셨
다. 오빠 결혼식이 10일 남아서 모두가 기뻐하고 좋아해야 하는
데 엄마가 아파서 좋아 할 수 만은 없었다. 오히려 엄마가 나에게
괜찮다며 나랑 놀이 공원에도 가고 대학로에서 연극도 보러 가자
며 나와서 약속을 다 지켜 주셨다. 오빠의 결혼식을 마치고 다시
사모아로 돌아왔다. 엄마는 병원에서 준 약을 먹어서 몸 안의 병
과 싸우느라 많이 힘들어 하셨다.

엄마는 그 약을 먹고 얼굴에 이상한게 많이 났다. 엄마 얼굴의 상
처를 매일 소독하고 연고를 바르는 것을 힘들어 하셔서 나는 엄

마를 매일 도와 드렸다.

엄마의 얼굴에 이상한게 나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솔직히 무서워서 엄마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다. 엄
마가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혼자 다시 가셨다.
엄마는 한국 가기 전에 나에게 말했다. 한국에서 빨리 나서서 9
월에 돌아 오기로 나와 약속을 했다. 그런데 엄마가 건강이 더 안
좋아 지셔서 언제 돌아 올지 모른다고 아빠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었다. 엄마와 떨어
진지 벌써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엄마와 이렇게 오래 떨어진 적
이 없어서 엄마의 소중함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게 되었다.

나한테 매일 학교 잘 갔다 오라는 엄마,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는
엄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해 주던 엄마, 나에게 매일 잔소
리 하던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이제 나한테 잔소리 해도 좋으니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나는 '아빠 힘내세요' 노래말을 바
꾸어 엄마에게 들려주고 싶다.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엄
마 사랑해요 하늘이가 있잖아요.

플로리다지역협의회 제27차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초등부 금상

“친구와 함께 한 여행”

이신 (탈라하시한글학교)

나는 지난 겨울 텍사스에서 플로리다로 이사를 왔다. 바다가 많은 플로리다로 가는 것은 즐거웠지만 친구들과 헤어지는 것은 슬펐다. 그런데 이번 여름방학 때 오래 전에 헤어졌던 친구가 우리 집으로 놀러 왔다. 우리는 함께 바닷가로 가서 쇼핑을 했다.

처음에 서핑할 때는 바닷물이 엄청 세서 자꾸 넘어졌다. 물에 빠질 때마다 다리를 침범침범 팔을 휘적휘적 저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바닷물에 빠지지 않고 잘 탈 수 있었다. 서핑보드를 타면서 알록달록한 바다를 즐겼다.

아빠 엄마가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하실 때 너무 아쉬웠지만 너무 재미있었다. 호텔에 돌아와서 텔레비전을 켰다. 그런데 엄마가 옷을 정리하라고 종알종알 잔소리를 하셨다. 그때 친구가 우리 방 문을 열고 친구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친구네 방에는 맛있는 김치찌개와 맛있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다. 라면을 후루룩 후루룩 먹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머리가 울렁울렁 لر거렸다. 어제 바닷물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그러나 아침을 먹고 수영을 하러 바다에 또 나갔다. 물에 들어갔더니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많이 보였다. 물고기들이 금방이라도 손에 잡힐 것 같다. 물고기를 따라 나도 모르게 점점 깊숙이 들어갔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너무 아파서 이러다 죽었

구나 싶었다.

옆에 있던 친구도 울면서 소리치고 있었다. 아빠가 달려오셔서 물 밖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가셨다. 아빠는 흐르는 물에서 계속 씻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나는 너무 아파서 평평 울기만 했다. 내 귀는 점점 커졌고 팔과 다리에도 상처가 났다. 어른들이 해파리가 문 것 같다고 하셨다.

해파리에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나는 살아서 다행이다. 비록 귀와 뺨에 문신 한 것처럼 자국이 남긴 했지만, 나는 바다가 참 좋다. 보고 싶던 친구와 함께 놀 수 있어서 더 좋았다.

다음에 또 바다에 갈 거다.

“그때도 해파리가 나타나면 어찌지?”.

중등부 금상

“나의 진정한 정체성”

송규희 (올랜도한국학교)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한국사람입니까?’ ‘나는 미국 사람입니까?’ ‘나의 의무는 한국에 충성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에 충성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저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학교 이번 학기를 시작한 후 계속 부모님께 한국학교에서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한국 학교 대신 친구들과 놀기, 쇼핑하기 등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교가 아닌 다른 활동들을 토요일에 하고 싶었습니다. 항상 한국

학교는 나에게 더많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한 또 다른 공부교실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와 재미, 자유시간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학교 선생님께서 글짓기 과제를 주셨습니다. 그때 학교 숙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힘들어했습니다. 그 주 주일에 아빠와 함께 글짓기 과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딸인 호정이 언니가 몇 년 전에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인턴 했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원의원은 호정이 언니에게 엘에이의 한인들과 한인 문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호정이 언니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조사 하였고 도산 안창호를 소개 했습니다. 그

래서 미국 이민 100주년 기념으로 도산 안창호 메모리얼 인터체인지 와 우체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어라둥절했습니다. 하지만저는 무한도전 엘이이 편을 보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무한도전에서는 1930년대에서 1970년대에 유명한 할리우드 최초 한국인 배우였던 필립 안을 소개했습니다. 필립 안은 바로 도산 안창호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셨습니다. 그는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07년에는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10년에는 미주 한인 항일 운동 단체들을 대한민국 민회로 통합하여 독립운동을 강화하였습니다. 1913년에는 독립된 인재를 조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흥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1919년에는 대한민국 수립에서 참여하였습니다. 항일 운동의 중심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필립 안의 이름은 '반드시 필' 설립으로 반드시 조국의 독립을 이루겠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안창호 선생님께서 두 한인 인삼장수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한국 이민자들을 계몽 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다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오렌지 농장에서 일을 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만들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여러 나라를 다니시며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러한 희생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했

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훌륭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인터체인지, 광장, 동상과 우체국을 통해 기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 없이 희생한 여러 다른 한국 이민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을 조국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고등부 금상 "첫번째 이별"

이하은 (늘푸른한국학교)

누구나 삶에서 그들이 성장하므로 독립해야 하는 시간이 온다. 비 오는 8월 14일 일요일 우리 언니는 팜치에서 겐스빌에 있는 대학으로 새로운 삶을 위해 떠났다. 언니가 12학년 때 여러 대학에 신청을 하고 어느 곳으로 갈지 결정하는 것을 모두 보면서 이 시간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것이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 시간은 참 빠르게 간다. 우리는 함께 오랜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것들을 함께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늘 좋았던 건 아니다. 우리가 엄마와 아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싸울 때면 언니가 빨리 집을 떠나 이런 싸움을 하

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질 때의 슬픔을 말할 때 이해하지 못했다. 어쨌든 그 시간은 왔고 우리 가족은 언니가 지낼 아파트에 언니의 새로운 삶을 위한 모든 짐을 내려 놓았다. 낯선 방을 보니 이제 정말 언니와 헤어져야 한다는 걸 느꼈다. 우리는 언니 방과 화장실 그리고 부엌을 다니며 언니가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정리만 했다.

8살 동생 은찬이는 온 집을 뛰어다니며 신난 것 같았다.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는 언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기도를 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해졌고 눈물이 났다.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떴을 때 엄마는 울고 있는 나를 보고 웃었다. 하지만 엄마의 눈이 곧 빨개지는 것을 보았다. 언니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또 집에서 해왔던 것처럼 잘 하리라고 생각한다. 언니는 늘 나에게 좋은 길

을 가르쳐 주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니를 보며 배웠다. 가끔 이제 언니가 없으니 내가 언니처럼 부모님에게도 도움이 되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섭기도 하다.

언니가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위해 준비를 했지만, 우리는 아직 헤어지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다. 언니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우리는 차를 타고 쏟아지는 빗길을 달려서, 집에 돌아왔다. 주룩주룩 흐르는 빗물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주는 것 같았다. 피곤함에 정신 없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언니가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 이상했지만.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편안한 잠자리에 기분은 좋았다. 언니와 매일 얘기할 수 없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언니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이다. 언니가 있을 때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 미안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는 것처럼 언니도 내 마음을 알지 않을까?



이승민 총회장

좋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협의회의 지난 35년의 역사는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배려하면서 본인의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오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루어 오신 길을 18대 집행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어 갈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기존의 사업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협의회 소속 교사 명찰을 제작하며 학술대회에서 개별 선생님들의 학급 활동 준비 및 수업 발표를 공유하는 사업을 합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걸어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요. ^^



장은영 부회장

부족한 저를 믿고 부회장으로서 일할 기회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지난 이십여 년간 학술대회에 참석하면서 주말의 시간을 헌납하며 배우는 자세로 동병상련하는 교사들과의 만남이 소중하였으며 교사로서 소속감과 정체성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학술대회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의 주제 아래 ‘차세대의 한국어 학습이 개인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 개인 역량 강화에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변화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25년의 교사 경력을 바탕으로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고 맡은바 임무를 열심히하여 임원들과 더불어 엄청난 원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미순 부회장

지난 17대를 이어 18대에서 집행부의 일원으로 다시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함께 하게 됨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협의회 회장으로서, 집행부 재무로서, 보고 느끼며 배운것들을 토대로 더욱더 재미한국학교협의회를 발전시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총회장님의 인솔하에 새 시대에 맞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우리 2세, 3세들에게 한국의 뿌리 교육이 확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8대에서도 귀한 분들과 새로운 만남으로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알아가며, 서로를 통해 배우며,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리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아름다운 추억과 보람이 될 2년이 기대됩니다. 날로 발전되는 낙스를 바라보며 화이팅을 외칩니다!



오정선미 부회장

얼마 전,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려고 지하실에 둔 책장 청소를 하다가 분홍색으로 제본된 교재 하나를 찾았습니다. 23년 전에 제가 이곳저곳에서 필요한 자료를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든 교재였습니다. 미국 Coloring book에서 오려서 붙이고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부분도 있고 간혹 맞춤법이 틀린 지시문도 있어서 얼굴이 화끈거려긴 했지만 이런 책을 만들어 쓸 정도로 열정이 그 당시 제게 있었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학교를 처음 시작했던 때를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좀 보태면 그 당시에는 온종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그 열정의 매듭이 지금은 풀린 부분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학교에 첫발을 들여놓았든지 또는 스스로 찾은 기회였든지 한국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순수함과 힘찬 각오는 모두 같을 것입니다. 맘에 드는 자료 하나를 만들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연구하고, 학교 행사를 위해 밤샘작업을 마다치 않으시는 전 세계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을 가득 담은 햇병아리 교사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2년을 뛰어볼까 합니다. 뛰어가다가 넘어지거나 목말라 허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면 옆에 계신 친구이자 동료이자 스승이신 선생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 저 멀리 결승지점에 어느 지역협의회 슬로건인 “3세 교육을 위한 2세 교육”이란 문구가 걸려 있네요. 우리 한글 교육이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이 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황정숙 사무총장

살아갈수록 열정을 쏟아서 하고 싶은 일이 줄어들 즈음에, 저는 참으로 고마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두려움 섞인 큰 한숨 내쉬면서 겁 없이 뛰어든 협의회의 일이었지만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의 항해는 어느새 큰 기쁨이고 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도 하고 두 손도 포개어 가면서 마음 모은 노 젓기가 누군가의 보람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7대의 항해에 이어 18대의 항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그분의 공훈과 은혜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늘 믿어주시고 든든히 지원해 주시는 재미한국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총회장님 이하 임원님들께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0년대 우리 선배님들이 튼튼한 기둥으로 세운 재미한국학교협의회라는 건물에 멋진 집채를 더하고 더 근사한 지붕을 올려 우리 후세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시시간과 맘을 쏟는 일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이전보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더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곳이 눈감고 제가 꿈꾸는 어느 먼 훗날을 흐뭇한 맘으로 상상해 봅니다.



김미경 재무

삶에 있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정이 쌓여갑니다. 많은 인연중에 나스는 저에게 한국어 교육의 올바른 길잡이를 해 주었습니다. 보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한 많은 정보와 양식을 제공해 주었으며 지쳐서 힘들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열정과 봉사를 통한 기쁨과 뿌듯함 그리고 행복도 주었습니다.

십시일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스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사랑과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멀리 떨어져있는 현실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배움을 나눌수 있는 분들과 함께 18대 집행부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면 집행부의 재무로 봉사하게 된 것이 스스로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스의 재무를 맡게 되면서 30년의 커다란 느티나무를 가꾸어 오신 선배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에 누가 되지 않도록 30년 나스의 연수에 걸맞은 재정 관리의 전문성 그리고 비영리단체로서의 본연의 뜻을 이어가도록 신중하고 낭비 없이 정확하고 알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스는 한국어 및 한국인 정체성 교육을 위해 씨를 뿌리는 일선의 선생님들과 지역협의회를 위한 휴식과 안식의 커다란 느티나무라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선생님들을 위해 시원한 그늘이 되고자 합니다. 날이 갈수록 건강하고 열매가 풍성한 생명력 넘치는 나무로 성장하는 나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한나 홍보간사

3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우리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제18대 집행부의 일환으로 일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협의회를 위한 일꾼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형 교육간사

처음 미국 땅에 이민 와서 한국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국학교 봉사였습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재외동포로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한국학교 봉사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후세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NAKS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5년의 역사를 가진 NAKS에서 선배 선생님들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본받아 저에게 주어진 2년의 기간을 열심히 발로 뛰며 한인 2세, 3세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 교육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대 NAKS 화이팅입니다.



지수경 웹간사

제일 늦게 합류하게 된 저는, NAKS 웹 간사를 맡으면서 18대 집행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기뻐했습니다. 제가 지역협의회나 NAKS 학술대회에서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시던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익숙하지 못한 웹에 관한 일들을 배울 때는 조금은 설레기도 했지만 두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임원진들께서 남겨 놓으신 자료를 토대로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웹에 관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웹 마스터님이 계셔서 더욱 든든했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웹의 활용범위를 더욱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NAKS 웹의 장점을 살려 신속하고 편리하게 모든 회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분들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NAKS 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윤희 편집장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수없이 듣고 말했지만 직접 그 속에 들어가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을 가꾸어나가는 감동은 늘 가슴 뛰고 새롭습니다. 교수와 운영에만 집중한 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한 해 한 해 냉철한 반성과 새로운 계획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루어가는 과정과 결실을 하나로 묶어서 볼 수 있는 회보의 편집을 처음으로 맡게 됨에, 설렘과 두려움과 묘한 도전의식이 혼합하여 나는 또 새로운 경험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첫 경험이지만, 여러 훌륭한 한국/한글학교의 관계자들이 하나하나 모아 주신 글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와 자랑스러움, 우리의 열매인 학생들의 글들이 또 하나의 감동으로 가슴을 벅차게 만듭니다. 이번 호에는 교육현장의 소식을 더 많이 기재함으로써 서로 더 배우며 도전받으며 나눔을 실천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해마다 당연히 발간되는 한 권의 회보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한인 뿌리 교육 요람의 협의체인 나스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비상하는 지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원고준비에 수고한 집행부, 이사회, 지역협의회, 회원학교, 교사,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슴 깊은 속에서 소박한 고마움을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직지」
Jikji The Memory of the World, UNESCO



직지의 고장 대한민국 청주에서 만납시다

직지 세계화를 위한 직지캠프 운영

기 간 : 2017년 7월 10일 ~ 7월 13일

장 소 : 청주시 일원

참가대상 : 재미한국학교협의회소속 학생

참가인원 : 30명

주요일정 : 직지 및 한국문화 체험, 직지 특강,
역사문화유적지 탐방 등 (학생은 체재비 지원)

접 수 처 : 재미 한국학교협의회

청주시
CHEONGJU
CITY



청주고인쇄박물관
CHEONGJU EARLY PRINTING MUSEUM

애틀랜타 단체 관광 가이드

빌트모어 대저택 일정표

애틀랜타 와이너리
빌트모어 대저택
식물원



4명~24명 \$180 / 1인당
25명 ~ 33명 \$165 / 1인당
34명 ~ 45명 \$160 / 1인당
46명 ~ 54명 \$150 / 1인당

*포함사항 : 버스, 입장료, 중식, 가이드 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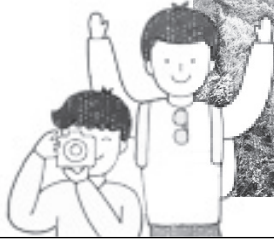


스모키 마운틴 일정표

스모키 마운틴으로 이동하여 체로키 인디언 마을 관광
(인디언 마을 뮤지엄은 선택 가능 - 입장료 \$20)
스모키 마운틴 뷰포인트 방문
게틀린버그 거리 자유 관광
(스모키 마운틴 전망 케이블카 선택가능 - 입장료 \$25)

4명~24명 \$150/1인당
25명 ~ 33명 \$140/1인당
34명 ~45명 \$130/1인당
46명 ~54명 \$120/ 1인당

*포함사항 : 버스, 중식, 가이드 팁



차타누가 루비폭포, 락시티 가든 일정표

루비 폭포
바위 테마 파크 락시티 가든 관광

04명 ~ 24명 \$165 / 1인당
25명 ~ 33명 \$145 / 1인당
34명 ~ 45명 \$135 / 1인당
46명 ~ 54명 \$125 / 1인당

*포함사항 : 버스, 입장료, 중식, 가이드 팁



상세한 관광안내는 누리집 www.naks.org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
여러분의 후원이
지켜 줍니다.



"To cultivate the
development of
strong bonds of
friendship among
Korean Schools
and instruction i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NAKS MISSION

GET IN TOUCH

non-profit educational
organization
501C-3, EIN #52-1596204
www.naks.org



NAKS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stilling pride in

**Korean-Americans
through education,
language, and history.**

HOW TO GIVE

we need you

NAKS has sustained by volunteer teachers for over 35 years. Contributions from individuals,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essential to our success.

sponsorship levels

- Platinum: \$20,000 - \$50,000
- Gold: \$10,000 - \$19,999
- Silver: \$5,000 - \$9,999
- Bronze: \$1,000 - \$4,999

give now

- If you would like to make a donation via credit card please contact us directly at www.naks.org, under the support section
- Email us directly at treasurer@naks.org or president@naks.org
-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NAKS

WHY GIVE?

growing education

Your donation will help to develop programming and support young Korean-American Education, training for teachers, and provide support for standardized assessment and systematic educational administration.

provide resources

- Intensive teacher training
- Younger generation teacher workshops
- Develop and administer SAT Korean Pilot Test
- Develop and publish Korean textbooks and SAT prep materials
- Speech and writing contest for students
- Support NAKS schools
- And much more!

show support

Your sponsorship will provide the monetary resources needed to encourage and strengthen the Korean-American population. As a sponsor your company will be recognized at NAKS events. Help keep Korean culture alive for generations to come, and give today!

Marriott
ATLANTA

8월에 애틀랜타에서
만나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35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주제: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

2017년 8월 10일 - 12일
Atlanta, GA

Georgia
on my mind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안내

날짜: 2017년 8월 10일 (목) ~ 12일 (토)

애틀랜타 메리엇 호텔

Atlanta Marriott Marquis

265 Peachtree Center Avenue NE, Atlanta, GA 30303
(☎ 404.521.0000)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도시 애틀랜타에서 제35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 있는 한국어 관련 기관들과도 연계하여 우리 선생님들이 한국어 교사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적용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알찬 내용의 학술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5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 국내외의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셔서 유익한 교육정보를 서로 나누시기 바라며 함께 꿈꾸며 도약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누리집을 방문해 주세요. www.naks.org

학술대회 문의: 오정선미 NAKS 부회장 (vp-so@naks.org)